

야고보 알베리오네

알베리오네 전집
OPERA OMNIA

연중 매일 짧은 묵상

야고보 알베리오네

연중 매일 짧은 묵상 I

바오로가족

바로 영성 센터 감수
2008년 성바로수도회 총본부

출판허가
성바로수도회 총원장 실비오 사시 신부

성바로팔수도회 엘리사베타 카펠로 수녀님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약어: BM

차례

| | |
|------------|----|
| 소개글 | 9 |
| 일러두기 | 22 |
| 약어표 | 24 |
| 원서표지 | 26 |

제1부 숭고한 진리

| | |
|--------------------------------|----|
| 머리글 | 31 |
| 1. 한 분이신 하느님 | 33 |
| 2.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 35 |
| 3. 성부이신 하느님 | 38 |
| 4. 성자이신 하느님 | 40 |
| 5. 성령이신 하느님 | 43 |
| 6. 나는 창조되었다 | 46 |
| 7. 나는 왜 창조되었는가? -I | 48 |
| 8. 나는 왜 창조되었는가? -II | 51 |
| 9. 유일한 목적 | 53 |
| 10. 나의 종말 | 56 |
| 11. 마지막 목적 | 58 |
| 12. 나는 나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가? | 61 |
| 13. 삶 | 63 |
| 14. 시간 | 65 |
| 15. 죽음 | 68 |
| 16. 죽음의 확실성 | 71 |
| 17. 죽음의 불확실성 | 73 |

© S.A.S.P. s.r.l., 2008
© EDIZIONI SAN PAOLO s.r.l., 2008
Piazza Soncino, 5 - 20092 Cinisello Balsamo (Milano)
<http://www.edizionisanpaolo.it>
Distribuzione: Diffusione San Paolo s.r.l.
Corso Regina Margherita, 2 - 10153 Torino

| | |
|-------------------|-----|
| 18. 죽음, 생명의 거울 | 76 |
| 19. 의인의 죽음 | 79 |
| 20. 죄인의 죽음 | 81 |
| 21. 사심판 - I | 84 |
| 22. 사심판 - II | 86 |
| 23. 사심판 - III | 89 |
| 24. 사심판 - IV | 92 |
| 25. 연옥 | 94 |
| 26. 연옥: 벌 | 97 |
| 27. 연옥: 의무들 | 100 |
| 28. 마지막 부활 | 103 |
| 29. 육신의 부활 | 107 |
| 30.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 109 |
| 31. 최후 심판 - I | 113 |
| 32. 최후 심판 - II | 115 |
| 33. 마지막 심판 | 118 |
| 34. 지옥 - I | 121 |
| 35. 지옥 - II | 124 |
| 36. 지옥 - III | 127 |
| 37. 천국 | 130 |
| 38. 천국: 복된 직관 | 133 |
| 39. 천국: 하나님의 사랑 | 135 |
| 40. 천국: 하나님의 기쁨 | 138 |
| 41. 영 원 | 141 |
| 42. 성격: 천성 | 144 |
| 43. 성격: 좋은 성격의 천성 | 147 |
| 44. 성격: 인격 수양 | 150 |
| 45. 인간 양성: 양심 | 152 |

| | |
|---------------------|-----|
| 46. 양심: 양심적으로 행동하라 | 155 |
| 47. 양심: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 | 157 |
| 48. 마음: 연민 | 160 |
| 49. 마음: 선의와 헌신 | 163 |
| 50. 마음: 우정 | 166 |
| 51. 마음: 나쁜 우정 | 168 |
| 52. 의지 - I | 171 |
| 53. 의지 - II | 174 |
| 54. 원죄: 결과 | 176 |
| 55. 대죄 - I | 180 |
| 56. 대죄 - II | 182 |
| 57. 대죄 - III | 185 |
| 58. 대죄 - IV | 188 |
| 59. 대죄 - V | 190 |
| 60. 죄의 길 | 193 |
| 61. 아담의 초자연적 상태 | 196 |
| 62. 인간의 타락 | 199 |
| 63. 구원 | 203 |
| 64. 구원자 예수 | 206 |
| 65. 개별적 구원의 열매들 | 209 |
| 66. 사회적 구원의 열매 | 213 |
| 67. 하나님을 알다 | 216 |
| 68. 창조되지 않은 은총 | 219 |
| 69. 성화은총 - I | 222 |
| 70. 성화은총 - II | 226 |
| 71. 성화 은총 - III | 229 |
| 72. 조력은총 - I | 232 |
| 73. 조력은총 - II | 235 |

| | |
|-------------------------|-----|
| 74. 창조된 은총 - I | 238 |
| 75. 창조된 은총 - II | 241 |
| 76. 은총은 불분명하다 | 244 |
| 77. 은총은 잃어버릴 수 있다 | 247 |
| 78. 은총은 모든 영혼에게 동일하지 않다 | 250 |
| 79. 세 가지 은총 | 253 |
| 80. 공로 | 256 |
| 81. 성령의 은혜 | 260 |
| 82. 열매와 지복 | 262 |
| 83. 은총에 협력함 | 265 |
| 84. 생활환경 | 269 |
| 85. 인류 안에서 | 272 |
| 86. 가정의 의무들 | 275 |
| 87. 교회의 자녀 | 277 |
| 88. 시 민 | 280 |
| 89. 영적 진보 | 284 |
| 90. 선교 사명 | 286 |
| 91. 신분상의 의무 | 289 |
| 92. 가톨릭 활동 | 292 |
| 93. 출 판 | 295 |
| 94. 영 화 | 298 |
| 95. 라디오 | 301 |
| 96. 현 재 | 305 |

소개글

「알베리오네 신부의 짧은 묵상 *Brevi meditazioni di Don Alberione*」은 은총의 풍요로운 해인 1948년에 아주 잘 익은 열매들 중의 하나입니다. 이 해는 비오 12세 교황님이 “법령찬사 *decretum laudis*”(1월 12일)로, 공식적으로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창립과 회헌을 인준해주신 경사스러운 때입니다.

이 해는 두 사람이 죽음의 희생제물로 봉헌된 때입니다. 하나는 상기한 교황 인준을 얻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봉헌한 디모테오 자카르도 신부의 죽음이고(1월 24일), 또 다른 하나는 성바오로수도회 평수사들의 성화를 위해 생명을 봉헌한 안드레아 보렐로 수사의 죽음입니다(9월 4일).

한편 이 시기는 폭넓게 확장이 이루어지던 풍요로운 시기로서 (이탈리아와 해외 도처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20여 개나 생겨났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공동체 진출, 성바오로말수도회의 사도의 모후 병원 건립, 알바노 라지알레에 새 수련소 설립 등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로마에서는 사도의 모후 대성당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짧은 묵상」 외에도 알베리오네 신부의 다섯 권의 다른 저서들이 출간되었습니다. 내용과 저술 분량이 서로 다른 이 저서들은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에 관한 설교집 *Appunti di predicazione su Gesù Maestro Via Verità e Vita*」이라는 소책자가 있고, 두 권은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수녀들에게 행한 「경청하십시오 *Ipsium audite*」라는 묵상집이 있으며,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Haec meditare*」라는 제목의 8권으로 간행된 성바오로딸수도회 수녀들에게 행한 영신수련 강론집, 전 공동체에 보낸 「5월의 잔꽃송이 *Fioretti per il mese di Maggio*」라는 제목의 선물과 같은 소중한 소책자, 「사도의 모후 마리아 *Maria Regina degli Apostoli*」라는 제목에 33개의 가르침이 담긴 마리아 신심에 관한 저서가 있습니다.

1948년 6월과 7월 사이에 「알베리오네 신부의 짧은 묵상 *Brevi meditazioni di Don Alberione*」이 “알바 인쇄 사도회 *Società Apostolato Stampa-Alba*”(성바오로출판사)에서 두 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로마에 있는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인쇄소에서 인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1권(1-2부)은 526쪽으로, 6월 4일에 출간되었고, 제2권(3부)은 439쪽으로, 1948년 7월 16일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두 권 모두 값이 저렴한 종이를 사용했으며, 얇은 회색 표지에 포켓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초판에 이어 3판(1952년의 2쇄, 1961년의 3쇄, 1965년의 4쇄)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판은 약간의 교정 또는 수정이 가해졌고, 각 묵상마다 성경구절을 삽입하여 초판과 다르게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첨삭 작업은 세 번째, 네 번째 판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완성되었습니다.

성바오로딸수도회의 감수 아래, 영어 번역본이 보스톤(미국)에서 출간되었는데, 1983년과 1985년 두 번에 걸쳐 출판되었습니다.

현재의 인쇄본은 제1권과 제2권의 묵상을 한 권으로 묶어 출간한 것입니다.

이 모음집의 내용은, 각 묵상들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신경(信經)과 계명, 전례와 그리스도교적 영성의 ‘신앙 유산 *depositum fidei*’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에 충실하며 완덕을 갈망하는 영혼이 작업하여 얻은 결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된 내용들은 영적 지도자들이 애용하던 많은 신비신학 교재들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큼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알바 신학교에서 성무를 수행할 때부터 영적 지도자로 활동하였고(1908-1922), 수많은 성소자들의 계발과 양성으로 바오로가족에 봉헌한 양성장이셨습니다.

그는 지극히 간결하게 본질적인 형태로 요약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직관력으로, 자신의 정신적인 틀 안에서 자신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모든 지식과 경험들과 자신이 경험하고 독서하는 모든 것을 통합하면서 가치있게 만들 줄 알았습니다. 각주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고, 다음 페이지에서 알게 되겠지만, 단 하나의 간단한 묵상의 틀 안에서 저자는 다른 작품에서 발전시킨 지혜로운 생각들을 요약하였습니다.

그는 평소의 습관대로 묵상의 실천적인 면을 고려하여, 원전의 출처를 밝히는 법 없이 영성대가들의 문헌과 금언, 개념들을 인용하였습니다. 더러 원저자의 이름을 밝히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를 생략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는 원저자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주에 실었습니다. 그 외 다른 경우에는 단순한 마음으로 이 묵상집의 내용을 숙고하는 이들의 이해력에 맡기고자 합니다.

* * *

우리 창립자의 전집Opera Omnia 총권에서 이 묵상집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그가 겸손하게 묵상집을 ‘짧은Brevi’ 묵상으로 분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아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저서의 소중함은, 우리가 1932년에 출간된 다른 저서「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Donec formetur Christus in vobis*」(DF)의 문헌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 재판본에서 그는 직접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묵상집”이라는 소제목을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묵상과 가르침의 요약”이라는 소제목으로 수정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DF는 묵상의 개요와 골격, 요점들만을 내포하고 있는데, 두 권의 「연중 매일 짧은 묵상*Brevi meditazioni per ogni giorno dell'anno*」을 보면, 그가 DF에서 전개한 묵상 요점들을 확장하고 발전시켜 나간 첫 걸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DF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되고, 그분 안에서 변화될 때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2코린 5,17),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사도적 영성의 심장입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하나로 종합하여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첫 번째로 관례화시킨 바오로적 방법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 지성을 위한 진리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특히 ‘복음서’를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 의지를 위한 길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고, 특히 정성을 기울여 ‘영성체’할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 마음을 위한 생명이시다. 그러므로 특히 미사성체를 통하여 성화은총과 조력은총을 입어야 할 필요가 있다.”(DF, 38항)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도록 인도해 주는 구체적인 여정은 ‘성자께 영광’ 단계라는 DF 두 번째 단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 단계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과 형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부께 영광’ 단계는 우리 안에 내재된 성부의 놀라운 계획을 관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죄는 그 계획을 거스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 죄를 멀리하고 성부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성령께 영광’ 단계는, 성령은 오로지 우리의 정신 안에 진리이신 예수를 형성하고, 우리의 의지 안에 길이신 예수를 형성하며, 우리의 마음 안에 생명이신 예수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 * *

두 권의「연중 매일 짧은 묵상*Brevi meditazioni per ogni giorno dell'anno*」에서 DF의 흔적을 찾아내고, 동시에 그의 발전상을

찾아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간추려 소개하는 중요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첫 번째 요점은, 취급한 주제들의 세부 구조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서문에서(BM1 p.8) 볼 수 있듯이 묵상 구조가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65주제의 묵상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제1부 - 송고한 진리

제2부 - 영웅적인 덕행

제3부 - 열심한 기도

그 세부 구조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영혼은 ‘지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모든 이의 스승이요 어머니이시며 여왕이신 마리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단계마다에 각각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송고한 진리

“지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영웅적인 덕행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열심한 기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DF의 내용과 그 연관성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제1부 (송고한 진리)는 저자가 DF에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지성의 일치 여정에 관하여 기술한 내용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첫 번째 연결고리는 지식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는 지성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스도교적 가르침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러한 연유로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위대한 진리들을 아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DF의 ‘실천적 결론’의 첫째 항목을 살펴보면 “지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소제목을 붙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알베리오네 신부님에게 있어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지성의 일치는, 지성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을 실천하는 것인 동시에 지성을 성화하는 것입니다.

“1.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공부, 곧 지성의 성화와 지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복음, 종교교육,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판단.) (DF 65항)”

제2부 (영웅적인 덕행)은 알베리오네 신부가 DF에서 길이신 예수님과 의지의 일치 여정에 관하여 기술한 내용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천상 스승은 모든 덕행의 모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천하신 덕행들을 탐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의지가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의 뜻(DF, 45항)을 끌어당기고,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여정은 힘을 다하여, (알베리오네 신부에 의하면 ‘의지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시다. 의지를 성화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곧 의지를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DF, 65항)”

「연중 매일 짧은 묵상」의 2권에 담긴 제3부 (열심한 기도)는 알베리오네 신부가 DF에서 생명이신 예수님과 마음의 일치 여정에 관하여 기술한 내용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창립자의 “열심한 기도”라는 표현은, 교회의 성사들과 기도 및 전례 등 기도 양식들과 하느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특정 장소들을 뜻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 원천을 뜻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 인격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성장하고, 점차적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 마음이 변화하며, ‘언제나 오로지 영혼들의 구원만’을 바라는 그분의 소망과 똑같은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알베리오네 신부에 의하면 ‘마음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천상 은총에 대한 숭고

한 연구 대상은 미사, 성체조배, 영성체, 마음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DF, 65항)”

2. 두 번째 요점은 묵상을 위해 제시된 주제들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1부 (숭고한 진리)에서 창립자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을 묵상하도록 인도합니다. 이것은 DF의 서언Preambolo과 첫 번째 단계인 “성부께 영광”에서 아주 짧게 다루었던 주제들입니다: 한 분이시고 삼위이신 하느님, 삼위일체의 각 위격, 창조주이신 성부, 창조의 목적, 인류의 목적, 최종 목적이신 하느님, 사심판(죽음, 심판, 천국, 지옥), 죄와 구원, 은총, 성사, 인호와 그분의 교육, 양심, 마음, 의지 … 하느님의 구원역사에 우리 인간이 협력하고, 특히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여기서는 인쇄, 영화, 라디오를 지칭함)을 통하여 기여하도록 부르심 받았음을 각별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제2부 (영웅적인 덕행)은 DF의 두 번째 단계인 “성자께 영광”에서 짧게 다룬 덕행들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향주삼덕(믿음, 희망, 사랑)으로 시작하여 이어서 사추덕(지혜, 정의, 용기, 절제)을 다루고, 다른 기초 덕행들(겸손, 순명, 정결, 인내, 극기, 경신덕Virtu della raligione, 열의 등등)을 숙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창립자는 DF에서 일부 소개한 내용을 발전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우리를 조금씩 인도하여, 우리가 완전히 헌신하며 살도록 —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영적 분위기에 머물기”(DF, 41 「준수성범-그리스도를 본받

아, 1권, 1장, 1번 참조) 초대하고 있습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DF에서 권고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마리아의 역할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와 성 요셉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다. 양육하도록 자신을 맡기셨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마리아에게 내맡기신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길이다.(DF, 41항)” (밑줄 부분은 역자 재번역)

저자가 다음과 같은 묵상 주제들에 대하여 숙고하도록 초대하는 광범위한 묵상의 날들을 계산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5일, 희망에 대해 2일, 자비에 대해 6일, 겸손에 대해 5일, 극기에 대해 7일, 열의에 대해 6일, 나자렛 학교에 대해 7일, 급기야는 예수님의 열의에 대해 11일, 마리아에 대해서는 30일의 기간을 할애하여 묵상하도록 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갖추어지게 수양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 3부 (열심한 기도)에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DF의 “은총의 수단” 단계에서 조금씩 다른 주제들을 무려 149일에 걸쳐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창립자의 전망에서 이러한 ‘수단들’, 또는 ‘영성의 원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기능 안에) 모습을 갖추게 해주시는 성령의 활동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성사 일반론에 관한 묵상 초대에서 시작하여 각 성사들, 그러니까 기도 주제와(일주일간!) 수도신분 주제

의 묵상으로 초대하여 광범위한 전례 영역과 전례주년으로 뛰어 들게 합니다. 이 시점에서 조금씩 당신의 영성과 공감되는 측면들을 드러내면서, 주일 말씀의 전례와 주요 성인축일들의 전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3. 세 번째 요점은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묵상의 삼중구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알려진 바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격(지성-의지-마음)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진리-길-생명이신 통합적인 그리스도의 전망과 일치합니다.

각 묵상의 첫째 부분에는 “믿어야 하는”(DF, 96항 참조) 내용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주제가 무엇인지, 지성이 이해해야 하는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알아야 할 진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당신의 몸에 배인 대로 우리에게 실천적 투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들에 투신하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표양은 한결같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각 덕행을 어떻게 실천하며 사셨는지 묵상하고, 성부께 충실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완전하게 일치하기 위하여 의지를 그분께 내맡겨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대부분 기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마음이 격렬하게 요동칠 때, 창립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감정도 기도로 다스려야 합니다.”(DF, 14항) 기도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이 되어야 하고, 그분의 ‘호흡(역자 재번

역)(DF, 55항)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의지-마음”이라는 삼중구조의 최종 형식은 각 묵상의 마지막 3단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묵상 3단계에서 창립자는 다음과 같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 양심성찰. (우리의 신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거룩한 가르침과 대조하기: 진리)
- 결심. (하느님의 계획에 헌신하기: 의지)
- 기도. (전례에서 얻어진 기도, 또는 더 빈번하게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서 나온 기도: 마음)

4. 창립자의 다른 문헌들처럼, 이 문헌의 올바른 접근을 통해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고, 창립자가 DF에서 물려주신 제안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숙고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사실 처음 접할 때는 「연중 매일 짧은 묵상」이 상당히 평범하게 보일 것입니다. 일상적인 묵상, 더러는 식상하고 별볼일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알베리오네 신부의 정신세계formamentis에 조금이라도 친숙한 사람은 전혀 다른 관점을 만나게 될 것이며, 아주 좋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인격 안에 형성되어야 한다는 긴급함에 창립자의 신중함이 집중되었음을 알아 갈 때, 독자는 묵상 전체에서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주의를 상기시키길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을 곧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주제마다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이루는 보석과 같은 작은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수 그리스도는 당신께 자발적으로 의탁하는 신자들 안에 사시고, 넓은 의미에서 그들을 사도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로마, 2008년 6월 30일

바오로 영성 센터

일러두기

참고문헌은 1948년 6월에 로마에서 출판된 첫 인쇄본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인쇄본에서는 각 목상 앞머리에 소개되어 있는 간추린 성경구절을 첨가하였는데, 우리는 이것이 유익하리라고 보았습니다.

창립자의 저서들을 인용할 때 필연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인쇄본과 언어에서든 이탈리아어 원본의 쪽 번호를 유일한 참조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번호매김은 판면 양쪽 가장자리에 기입되어 있습니다.(번호 앞에 BM1과 BM2가 매겨져 있음) 쪽 번호 바꿈이 문장 안에 오는 경우에는 세로획 “|”의 기호로 표시하였습니다.

성경구절 인용에 관하여

문헌 안에서 성경구절을 보게 될 때, 이것은 저자가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그는 성경 제목(코헬렛, 집회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등등)에서나, 시편의 장·절에서 불가타 성경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1974년판 이탈리아 주교회의 성서Bibbia CEI, ed.1974’의 약어에 맞추어 재조정되었습니다.

주의점이 각주에 실린 경우, 이것은 현재의 출판본 감수자들이 수고하여 작업한 것입니다.

시편의 장·절 번호에 대해서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의 장·절 번호를 따랐으며, 이어서 불가타역본의 장·절 번호를 붙였습니다. 인용한 성경 색인 목록에서 간편한 작업을 위해 히브리어 성경의 장·절 번호만 소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

악센트 그라베accento grave 부호는 현대 문법에 맞추어 악센트 아쿠토accento acuto 부호로 바꾸었습니다. (né를 nè로, sé를 sè로, perché를 perchè로, affinché를 affinché로, purché를 purchè로 등등)

명사 혹은 형용사의 복수형을 단순화하였습니다. (principii를 principi로, studii를 studii로, varii를 vari로, meritorii를 meritorio로, serii를 seri로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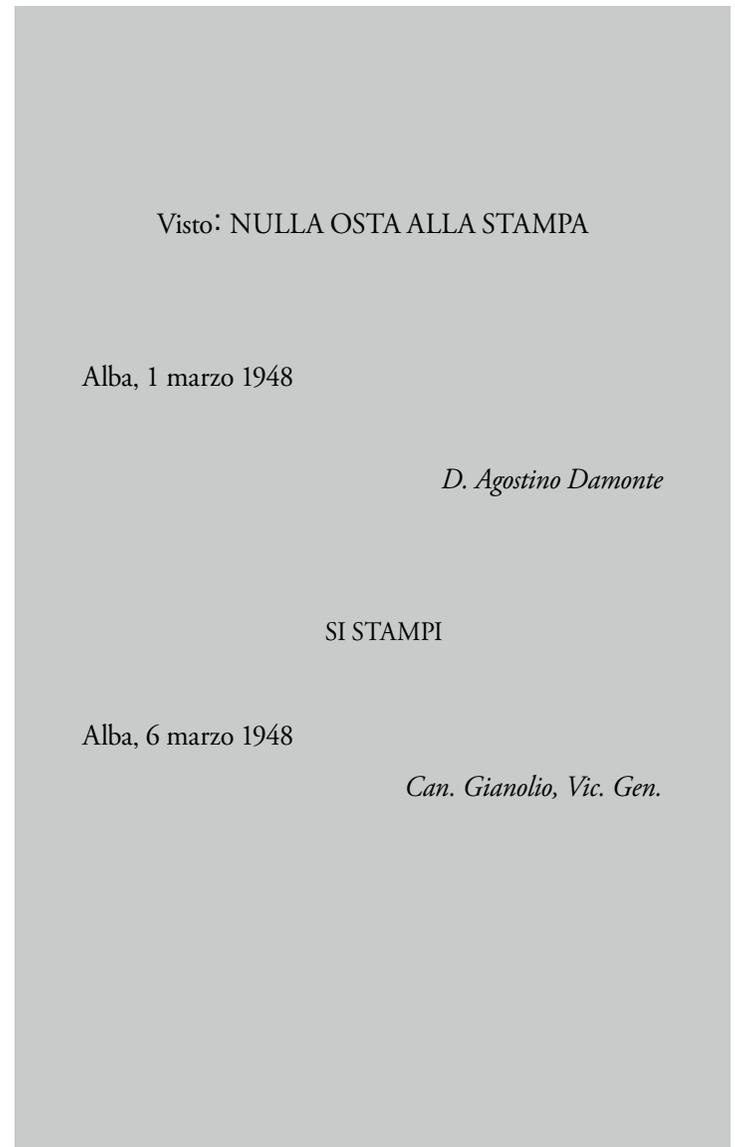
약어표

- ACV 「복음을 위한 몸과 마음 *Anima e corpo per il Vangelo*」,
야고보 알베리오네의 소품 모음집[1953-1957],
Opera omnia, San Paolo, Cinisello Balsamo 2005.
- AD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Abundantes divitiae gratiae suae*」,
바오로가족의 카리스마 역사 [1954],
Opera omnia, Roma 1998.
- AE 「출판 사도직 *L'Apostolato dell'Edizione*」,
사도직과 양성지침[1944],
Opera omnia, Cinisello Balsamo 2000.
- AS 「인쇄 사도직 *Apostolato stampa*」,
사도직과 양성지침, Alba 1933.
- BM1 「연중 매일 짧은 묵상1 *Brevi meditazioni per ogni giorno dell'anno*」, Alba 1948.
- BM2 「연중 매일 짧은 묵상2 *Brevi meditazioni per ogni giorno dell'anno*」, Alba 1948.
- DF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Donec formetur Christus in vobis」, [1932],
Opera omnia, San Paolo, Cinisello Balsamo 2001.
- DFms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수기노트) *Donec formetur Christus in vobis, quaderno manoscritto, inedito*」.
- NPS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E' necessario pregare sempre*」,

- Alba-Roma 1940.
- PD(seguito dall'anno) 「스승예수의제자수녀들에게 *Alle Pie Discepole del Divin Maestro*」,
15 volumi, PD, Roma.
- SP(seguito da mese e anno) 「성 바오로 *San Paolo*」,
성바오로수도회 소식지.



제 1 권 표지. 제 2 권 표지는 'Volume II'와 출판한 지역명이 Roma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제 1 권 뒷 표지 (제 2 권 뒷 표지도 동일함). (알바 교구의) 총대리는 참사위 원 파스칼레 자놀리오(Pasquale Gianolio)이다.

제1부
승고한 진리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마태 22,37)

저는 아주 바쁘고 단순하지만, “씩어 없어지지 않는,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¹을 얻으려고 매일 힘쓰는 이들에게 이 짧은 묵상집을 소개합니다.

각 묵상은 긴 시간 동안 묵상에 잠실할 수 있는 사람들과 묵상 주제들을 깊이 심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음미할 수 있는 간단한 묵상자료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들의 목적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천상 스승 예수님을 흠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묵상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며 걸어야 하는 길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어 우리가 믿어야 하는 진리를 일깨워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초자연적 생명을 제시하였습니다.

365개 주제의 묵상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 1 부: 숭고한 진리

제 2 부: 영웅적인 덕행

제 3 부: 열심한 기도

“영혼은 ‘지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²는 첫째가는 주요 계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1. 요한 6,27 참조.

2. 신명 6,5 참조.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³ 머물고 싶어하는 모든 이의 스승이요 어머니이시며 여왕이신 마리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지은이

1.

한 분이신 하느님

“주님은 위대하신 하느님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신 임금님. 땅 깊은 곳들도 그분 손 안에 있고 산봉우리들도 그분 것이네. ... 들어가 몸을 굽혀 경배드리세. 우리를 만드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수 이끄시는 양 떼로 세.”(시편 95,3-7)

1. 하느님은 가장 완전한 존재요, 최고의 유일한 선이시며, 모든 존재의 기원과 목적이십니다.¹ 그분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진리이시고, 지식의 주님이시며, 전지Onniveggente하시고, 은혜로운 분Benefattore이시며, 거룩하신 분Santo이십니다. 사랑Carità이시고 선Bontà이시며 아름다움Belezza이십니다. 그분은 필연적 존재이시니 “나는 있는 나”(탈출 3,14)이십니다. 그분은 내 탐구의 가장 합당한 대상이시고, 유일한 권위자이시며, 유일한 사랑이시고, 유일하고 영원한 행복이십니다.

2. 나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무無입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받았습니다.² 나는 하느님의 지극히 보잘 것 없는 피조물

1. 이 첫 묵상에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Donec formetur Christus in vobis*」(DF)에 있는 주제들을, 특히 “성부께 영광” 단계의 서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발전시키고 있다.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필연적 존재이시다. ‘나는 있는 나다Ego sum qui sum.’ ‘홀로 주님이시다Tu solus Dominus.’ 순수한 영이시고 위대한 분이시다. 지식, 힘, 영원, 전능, 영광, 지극히 완전하신, 가장 위대한 분이시다...”(DF, 17항)

2. “나는 누구인가? 지극히 우연한 존재다. ‘너는 존재하지 않는 자다.’ 너는 영

3. 에페 5,32 참조.

입니다. 나의 존재는 계속해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조만간 땅에서 사라질 것이며, 그분 앞에 서서 나의 삶에 대해 심판받을 것이고, 나의 행실에 따라 상급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할 것입니다.

BM1
10 나는 죄를 극복하고, 유혹을 이기며, 지옥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3. 주 예수님, 제가 저를 알고 당신을 알게 하소서. 오로지 당신만 갈망하게 하소서. 저를 미워하고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소서. 저를 낮추고 당신을 높이 공경하게 하소서. 당신 말고는 아무것도 목상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성 아우구스티노)

사람은 자신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흠송하고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알아 마음으로 당신을 흠송하며 찬양하고자 하나이다.

성찰 - 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분의 무한한 완전함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참으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자긍심을 지니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좋아 하는가? 혹시 나는 창조주보다 피조물에 마음을 더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

결심 - 앞으로 행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위하

 혼과 육체에 관해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와 활동에서도 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 스스로 지극히 불완전하다.”(DF, 18항)

여³ 행할 것.

기도 - 주님, 나의 하느님이시여, 온 땅에 당신의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⁵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⁶

주님의 업적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천사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⁷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⁸ 주님을 흠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⁹

2.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 성부와 말씀과 성령인데, 이 셋은 하나로 모아집니다.”(1요한 5,7)¹⁰

 3.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위하여'. 성 이냐시오 로올라의 금언. 「영신수련」(n. 98) 두 번째 주간 봉헌기도 참조. 이것은 '언제나 더' 및 '늘 한층 더'의 역동적인 원리에서 영향을 받은 금언('magis' 또는 'ad maiorem')이다.

4. 시편 8,2 참조.

5. 이사 6,3.

6. 마태 21,9.

7. 다니 3,57이하.

8. 루카 2,14.

9. 로마 미사경본의 대영광송 참조.

10. 불가타 성서를 인용한 것이다. CEI 성경에는 삼위일체적 의미를 성서 본문에 연결하여 삽입한 설명 문구로 보았기 때문에, 삼위에 대한 성경구절이 생략되어 있다.

1. 믿음이 하느님의 내밀한 생활에 관해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진리들은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하느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위격에서 삼위이십니다. 천상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모습 안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계속해서 낳으시는 말씀Verbo 안에서 영원토록 관상하십니다. 말씀Verbo은 성부의 아름다움으로 인한 사랑에 매혹되어 감동하십니다. 말씀Verbo을 향한 성부의 사랑과 성부를 향한 말씀Verbo의 사랑이 서로 황홀하게 어우러지면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느님은 삼위 안에서 완전하고 무한하며 영원한 내적 삶을 사십니다. 그분은 각 영혼의 내적 삶의 원천이시고, 기원이시며, 본본이십니다.

2.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세 가지 능력, 곧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선물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를 본받도록 합시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를 본받아서 내적 삶을 살도록 합시다.

하느님처럼 생각합시다. 하느님의 말씀은 참 빛이시며, 성부의 지혜이십니다. 인간이 되신 그분은 구원의 진리, 형용할 수 없는 신비, 유일무이하게 필요한 지식scienza을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진리를 공부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진리를 믿어서 정신mente을 성화하도록 합시다.¹¹

11. “정신을 성화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당연히 알베리오네 신부의 마음 깊이 자리잡고 있는 양성적 사도적 측면의 한 단면을 가리키고 있다. 그는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본받는 엄격한 여정을 거치면서, DF에서 그러한 지침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하느님께 대한 인식은 무지와 오류에서 벗어나 마침내 예수

“나는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한다.”(요한 8,29)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천상 아버지께 |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느님의 것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만유 위에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BM1
12

3. 주님, 당신은 당신들을 닮은 모상으로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제 안에 삼위일체의 형상이 있다면, 저는 당신들의 내적 삶을 본받고 싶습니다. 오 성부여, 제 원의가 당신들의 원의에 순응케 하시어 제 원의를 성화시켜 주소서. 오 성자이신 하느님, 당신들의 것으로 제 정신을 채워주소서. 오 성령이신 하느님, 제 마음에 초자연적인 진실한 사랑을 부어주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 당신들은 의로운 영혼 안에 머무시고, 그 안에서 당신들의 영원한 활동 곧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또 두 분은 성령의 기원이 되시는 활동을 계속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나이다.

성찰 - 나는 복음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의 원의는 하느님과 일치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무엇을 찾고 있으며, 무엇을 사랑하는가?

결심 -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의 삶을 본받기 위하여 오늘 나는 큰 사랑을 살아갈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처럼 생각하기에 이른다. 언제나 하느님과 일치하고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영혼의 상태이다.”(DF, 25항)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 상기시켰고, 끝으로「성 바오로」지의 모노그래프에서 “네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상세하게 서술하였으며, 「지성의 성화」소재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복음을 위한 몸과 마음」, 〈서울-바오로딸〉, 21-140쪽 참조)

기도 - 지극히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성삼위께 영예와 흠숭과 감사와 사랑을 이제와 영원히 세세대대로 바치나이다.

천상 성부께 영광을, 처음과 같이 이제와 영원히.

하느님 성자께 영광을, 처음과 같이 이제와 영원히.

성령께 영광을, 처음과 같이 이제와 영원히.

저는 믿나이다, 저는 흠숭하나이다. 저는 사랑하나이다. 영원한 직관에서 당신을 관상하기를 바라오며, 한없이 당신을 소유하고, 영원한 기쁨 속에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BM1
13

3.

성부이신 하느님

“우리에게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시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1코린 8,6)

1. 성부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관장하십니다. 태초에 하느님이 하늘과 땅, 나무, 동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¹² 당신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무^無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느님은 영혼을 창조하시어 육신에 주입하시고, 모든 사람의 탄생에 관여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건을 관장하시고, 역사를 주도하시며 시대를 인도하십니다. 사실 그들은 신적 의지를 통해서 하느님 아들의

12. 창세 1-2장 참조.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광 속에 나타날 때, 육화에서 최후의 심판까지 주님의 오심을 발전시키며 완성했고, 완성하며, 완성할 것입니다.

2. 나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과 나를 지탱해 주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 받았습니다. 만일 하느님이 내게 주신 것을 도로 거두신다면, 내게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며, 내 존재마저도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늘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인 양 자랑합니까?”(1코린 4,7)

나는 천상 아버지의 자비로운 다스림 아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섭리에 나를 의탁해야 합니다. 들에 핀 꽃을 보살펴 주시고 하늘의 새들을 보살펴주시는 그분은, 당신 모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한층 더 크게 보살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어두셨습니다.¹³

3. 주님, 저는 당신의 것이오며, 모든 것이 당신 것이옵니다. 제게 주신 모든 것, 지성과 기억, 의지, 육신, 감각,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당신께 바치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존하신 주인이십니다.

저는 당신 섭리에 의탁합니다. 당신은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당신의 왕국과 저의 성화를 위해 노력하오니, 오 선하신 아버지시여, 당

13. 참조: 마태 6,25 이하; 10,30.

BM1
14

신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성찰 - 나는 나의 영광을 찾거나 다른 그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언제나 오로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께 영광을 바치는가?

나는 결핍을 두려워하거나 세속적인 것의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역경에 처할 때 나는 용기를 잃지는 않는가? 나는 진심으로 하느님의 왕국을 찾고 있는가? 나는 천상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쉬고 있는가?

결심 - 나는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숭고한 존엄성을 느낄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므로, 깊은 겸손을 지닐 것.

기도 - 받아주옵소서, 오 주님, 저의 모든 자유를. 저의 기억, 저의 지성, 저의 의지를 받아주옵소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서 주신 것이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싶니다. 당신의 뜻이 제게 채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옵니다. 오로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총만을 베푸시어, 저를 풍요롭게 하시고, 다른 것을 갈망하지 않게 하소서.

4.

성자이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

셨습니다.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시어, 그만큼 그들보다 위대하게 되었습니다.”(히브 1,1-4)

1.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인류는 자의로 저지른 타락의 상태에 내버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성부께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8)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자께서는 성령의 활동으로 육화하시어, 마리아의 아들이 되셨고, 고해의 거룩한 삶을 사셨으며, 사람들에게 표양과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하늘로 가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교회와 사제직과 성사를 세우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고 죽으셨으며, 천국문을 다시 여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교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2. 육화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양자결연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이 땅에 오셨으며, 어제 그렇게 오셨고, 오늘과 늘 세세대대로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누가 하느님의 아드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들입니다. ㄱ) 그분이 가르쳐주시고 또 교회가 설교하는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 ㄴ) 겸손과 자비, 노동, 기도의 지극히 거룩한 표양들을 따르는 사람들. ㄷ) 수도관처럼 그분의 가슴에서 영혼들에게 은총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 제정된 성사들에 참

레하고, 거룩한 미사에 대한 깊은 신심을 키워나가는 사람들.¹⁴

BM1
16

3. 오 예수님, 세상의 구세주시여,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요한 12,32)라고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께로 인도하소서. 길 잃은 양떼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높은 십자가 위에서 성부께 향한 눈길을 멈추지 마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루카 23,34)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주소서. |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라는 감미로운 환영의 말씀으로, 계속 당신의 두 팔을 펼쳐 사람들을 안아주소서. 저의 지성, 저의 의지, 저의 마음을 당신께로 인도하소서.

성찰 -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내 믿음의 잣대는 무엇인가? “행복하여라. 고통받는 사람들”¹⁵의 말씀을 나는 믿는가? 나는 어느 정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나는 말구유의 가난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떠한가? 나는 얼마나 열심히 성사 생활을 하고 있는가?

14. 이렇게 간단한 언급에서도 알베리오네 신부의 영적 제안은 아주 분명하다. 모든 인간 능력을 ‘완전한’ 주 예수님과 접촉시키려는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느님의 아드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지성’을 다해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고, ‘의지’를 다해 “지극히 거룩한 표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며, ‘마음’을 다해 “성사들을 통하여 생명이신 예수님과 친교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바로 아래에 이어서 나오는 “저의 지성, 저의 의지, 저의 마음을 당신께로 인도하소서.”의 기도문 참조.

15. 마태 5,4.10 참조.

결심 -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을 나의 가장 큰 과제로 삼을 것.
기도 -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저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늑방의 물은 저를 씻으소서. 그리스도의 수난은 저를 격려하소서. 오! 착하신 예수님, 저를 들어 허락하소서. 당신의 상처 속에 저를 숨겨주소서. 저를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를 악한 원수에게서 보호하소서. 저의 임종 때 저를 부르시고, 또 저를 당신께로 오게 명하시어, 주님의 성인들과 함께 영원히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¹⁶

5.

성령이신 하느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요한 14,15-17)

1.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활동으로 잉태되시고 거룩하게 되

16. 알려지지 않은 중세기 저자의 유명한 기도문이다. 14세기 초반 10년 이내에 작성된 기도문이며, 1330년 요한 22세 교황이 이 기도문을 바치면 대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성 이냐시오는 자신이 쓴 「영신수련」 서두에 인용하여 사용하였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DF 5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셨습니다.

BM1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17 것을 약속하셨으며 | 성령강림일에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혼입니다. 교회를 무류성, 완전무결함, 거룩함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성령은 세례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견진으로 당신의 덕행을 증가시켜 주시며, 선한 일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로운 영혼으로 한층 더 일치시켜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지성을 비추고(비추임*illustrazione*) 의지를 움직이며(영감*ispirazione*) 마음을 강화하는(강화*elevazione*) 조력은총*grazia attuale*을 베풀어주십니다.¹⁷

2. 성령께서는 은총으로 영혼 안에 들어가시어 믿음을 부어 주시고, 희망을 선물하시며, 사랑의 불을 지펴주십니다. 그분은 슬기, 통달, 지식, 의견, 효경, 굳셈, 두려움의 일곱 가지 은사를 베풀어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정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 박해 받는 사람들 안에서 어떤 기쁨이나 복락을 누리게 하시어, 하늘나라의 충만한 복락을 미리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한편

17. 이 언급에 관해서는 DF 60항 참조. 우리 각 개인 안에 예수님을 성장시켜 주시는 성령의 활동은, “인간에게 지성에는 비추임을, 마음에는 거룩한 애정을, 의지에는 영감이라는 대단히 감탄스러운 효과를 가져온다. 더 나아가 인생의 모든 시기와 삶의 여러 상황에서 작용한다.” F. CHIESA, *Lectionis theologiae dogmaticae recentiori mentalitati et necessitati accommodatae*, Albæ Pompejæ, Typis Piæ Societatis S. Pauli, vol. III, Tractatus De Deo Spiritu Sancto, 1930, pp.617-619에서 광범위하게 다룬 주제이다.

12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주십니다.¹⁸

3. 오 성화의 성령이시여, 다시 한번 교회에 강림하시어 교회 안에 모범적인 목자들과 수도자들, 진리의 열정적인 사도들, 훌륭한 선교사들, 거룩한 여성 수도자들, 거룩한 영혼들로 가득 차게 하소서.

오 성화의 성령이시여, 저의 지성을 비추시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저의 의지를 움직이시어 변함없이 굳건하게 희망을 지니며 살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제가 한층 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성찰 - 나는 죄를 지으면서 성령을 멀리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았는가? | 나는 가벼운 죄¹⁹와 무관심, 특히 성사생활의 냉담함으로 그분의 활동을 방해하지는 않았는가?

결심 -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하신 방문자*Ospite Divino*의 마음을 슬프지 않게 할 것.

기도 - 오 하느님, 당신은 성령의 비추임으로 당신의 신자들을 단련시키셨으니, 바로 그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저희가 올바른 생각을 지니게 해주시고 늘 그분의 위로를 누리게 해주소서.

18. 그런데 성 바오로(갈라 5,22)는 무엇보다도 사랑(*agape*)을 의식하면서 사랑의 다른 표현들(기쁨, 평화, 호의, 등등)과 아울러, 성령의 열매(복수형이 아닌 단수형)를 서술하고 있다. 반면에 알베리오네 신부는 키에사 참사위원의 노선을 따라서, 12가지 열매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DF, 103-104항) 우리에게 대하여(사랑, 기쁨, 평화, 인내), 이웃 관계에 대하여(친절, 선함, 관대함, 온유, 충실), 외부와 맺는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겸양, 절제, 정결).

19. 가벼운 죄: 소죄.

오 하느님, 성령의 불꽃으로 저희의 감각과 저희의 마음을 정화시켜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순결한 몸으로 당신을 섬길 수 있으며,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겠나이다.

6.

나는 창조되었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습니다.”

(시편 8,4-7)

1. 하느님께서서는, 나보다 훨씬 더 잘 당신을 섬길 수 있었을 피조물들보다 나를 더 선호하셨기에 나를 부르시어 살게 하셨습니다.

영원에서부터 그분은 나를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선량한 부모, 열성적인 본당신부, 그리고 고유한 성소와 사명을 준비하셨습니다. 나의 성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성과 마음가짐과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 특별한 은총과 성덕과 영광을 풍요롭게 예비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합작품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1요한 4,8)

2. 두 가지 의무: 감사와 사랑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열렬하고,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Deo gratias²⁰이어야 합니다. 감사는 의무이며, 공감하는 마음의 표시이고, 또 다른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입니다.

나를 무한히 사랑하신 분을 사랑하십시오. 열렬한 애정으로 사랑하고,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십시오. 입은 은혜에 응답해야 하고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신 선물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하여 지성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내 사명에 충실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내적 선물들을 잘 사용하여 그 열매를 풍요롭게 맺도록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영광의 단계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3. 저는 당신들을 흠송합니다, 나의 하느님이시여, 저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까지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가톨릭 신앙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가정과 본당에서 참된 그리스도교 교육을 받게 해주셨으니 저는 당신들을 찬양합니다. 저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당신들이 가장 먼저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영원에서부터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오 사랑의 하느님이시여!

성찰 - 나는 하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감사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본당사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나의

20. 하느님 감사합니다.

체력과 건강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결심 - “주님, 저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루 동안 자주 말씀드릴 것.

BM1
20 기도 - 오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로 하여금 더욱 굳건한 믿음을 지니게 하소서! 오 주님, 저는 희망하나이다, 그러나 저로 하여금 더욱 확실한 희망을 지니게 하소서! 오 주님, 저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로 하여금 더욱 열렬히 사랑하게 하소서! 오 주님, 저는 죄를 뉘우칩니다, 그러나 저로 하여금 더욱더 *vieppiù*²¹ 깊이 뉘우치게 하소서!

저는 당신을 첫째 원리 *primo principio*로 흠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최종목적으로 삼나이다. 저는 당신을 영원한 은인으로 찬양하나이다. 보호자로서 참 좋으신 당신께 저는 의탁하나이다.

7.

나는 왜 창조되었는가? - I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마르 8,34-36)

1. 하느님은 나를 창조하시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당신을 알고 사랑하며 당신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21. *vieppiù* 고대 용어로 *ancor più*(더욱더)를 뜻한다.

하느님을 알도록 하십시오. 지성을 지니지 못한 피조물들은 하느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자연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작동합니다. 천사들은 순수 영적 존재들로서, 하느님을 알고, 지성으로 하느님을 섬깁니다. 인간은 영과 육을 지닌 존재로서, 우주 전체를 불러모으고, 가시적인 피조물 전부를 대표하며, 하느님을 알고, 자유로이 하느님을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하느님을 섬깁니다. 아주 완벽하게 하느님께 찬미를 바칩니다.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과 완전함과 업적들을 지성을 다하여 탐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힘을 다하여 그분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 은총의 도움으로 그분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주된 의무입니다. | 하느님
BM1
21 은 창조주이시고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받은 것이며, 내가 바라는 모든 선은, 각종 선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그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활동은 지상에서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하늘에서 그분을 향유하는 데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이렇듯 하느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이렇듯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참된 현명함은 모든 것을 하느님 뜻에 일치시키는 데 있습니다.²² 모든 부^富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만

22. 알베리오네 신부는 교황 비오 10세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얻었음이 분명하

일 내가 하느님을 소유한다면, 나는 모든 보물을 소유하는 것이며, 아주 큰 부자가 됩니다. 만일 내가 모든 피조물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나는 아주 초라하고 불행한 존재입니다.

3. 수많은 영혼들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며 섬기기 위하여 전 생애를 바쳤기에 지금 그들은 행복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소유하더라도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하느님을 섬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재화, 재물, 만족감, 명예, 지식, 영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느 날 죽음의 침대 위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 한편,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영원토록 그분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성찰 - 내 마음의 진실함과 내밀한 열망과 원의와 영광은 어떤 것들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느님? 또는 언젠가 사라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것들?

결심 - “하느님은 나의 전부이시다. 그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나머지 것들은 허망한 것이며,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자주 기도할 것.

BM1 22 기도 - 오 주님, 당신의 지혜로 저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정의

다.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시어 이세상에서 당신을 알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저세상에서 당신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 오랫동안 머물고자 한 듯 보이며, 그가 끊임없이 가르쳐 온 정신-의지-마음의 삼중구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느님을 알고(정신), 그분의 뜻에 일치시키며(의지), 하느님을 사랑하라(마음).

로 저를 보살펴주시며, 당신의 온화함으로 저를 위로해주시고, 당신의 전능으로 저를 보호하여 주소서.

저를 당신께 바치나이다. 오 하느님, 제가 생각해야 하는 모든 것에 관해 당신을 지향하게 해주소서. 제가 말해야 하는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그리하여 당신을 갈망하게 하소서. 제가 행해야 하는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그리하여 당신을 준거로 삼아 활동하게 하소서. 제가 참아야 하는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그리하여 당신의 덕행으로 그 모든 것이 지탱되게 하소서.

저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당신이 원하시기에,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원하실 때에 저도 원합니다.

8.

나는 왜 창조되었는가? -II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제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합니다. 그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뵈올 수 있겠습니까?”(시편 42,2-3)

1. 하느님의 지식과 사랑과 섬김은 최종 목적으로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줍니다.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불안하나다.”(성아우구스티노)

쾌락, 명성, 부귀, 덕행, 권력, 지식이 나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²³ 모든 것이 무한하지 않지만 나의 마음은 무한한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지만 나의 영혼은 영원 불멸합니다. 하느님만이 무한하시고, 하느님만이 영원하십니다!

2. 하느님 스스로 목적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분은 나를 창조하시면서 이보다 더 높은 목적을 설정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BM1
23

내가 대죄를 미워하면 나는 지옥을 모면하여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죄를 범하여 죄와 함께 죽으면, 나는 영원토록 천국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영원토록 구원받든지 또는 영원토록 구원을 잃어버리든지 할 것입니다. 복된 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든지 또는 저주받은 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절망 속에 살든지 할 것입니다. 이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삶에 따라 좌우됩니다.

3. 나의 하느님, 당신들의 자비로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당신들은 제 앞에 생명과 죽음을 놓아두시고, 자발적으로 생명을 선택하도록 초대하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²⁴ 당신들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저 자신이

23. DF, 26-27항 참조. “행복. 1. 마음과 영혼은 인간을 온전하게 만족시켜 주는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열망한다. 2. 이것은 부와 명예, 쾌락, 정신적·지적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이다. 3. 일시적인 재화를 무질서하게 좇는 이는 어리석은 자다. 그런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만족하지 못하고, 죽을 때도 비탄에 빠져 영원을 두려워할 것이다. 일시적인 재화는 오직 천국을 위한 수단으로 원해야 하나,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파멸의 울가미를 씌울 수 있는 재화를 두려워하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24. 신명 30,19 참조.

얼마나 나약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곧장 욕정과 사탄과 세상이 저에게 냉혹한 싸움을 걸어옵니다. 당신들이 저를 도와주소서, 나의 하느님. 그리하여 제가 악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소서. “악에서 저희를 구주소서. 오 주님, 모든 죄에서 저희를 구주소서.”²⁵

성찰 - 나는 죄를 두려워하는가? 나는 죄의 기회를 피하는가? 나는 위험 인물들을 멀리하는가? 나는 유혹을 받을 때 기도하는가? 불행하게도 죄에 빠졌을 때, 나는 곧바로 자비로운 고백성사를 보며 다시 일어서는가?

결심 - 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의 영혼을 구하고 싶다. 나는 소죄 하나라도 범하지 않기 위해 깨어 있을 것이다.

기도 - 당신께 비나이다, 오 주님, 저의 지성을 비추어주시고, 저의 의지를 불태워주시며, 저의 육신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의 영혼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제가 저의 지난날의 잘못을 애통해 하고,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치게 해 주시며, 나쁜 경향들을 고치게 해주시고, 제게 필요한 덕행들을 기르고 닦게 해주소서.

9.

유일한 목적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25. “libera nos a malo; ab omni peccato, libera nos, Domine”.

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은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 6,31-33)

1.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며, 내가 창조된 이유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목적에 종속됩니다. 지상에서 일하고, 먹고, 쉬며, 오락을 즐기지만, 모든 것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부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건강을 관리하지만,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직업상의 의무들, 오락들, 여가선용, 건강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천국을 성취하고 지상생활을 잃었다면, 나는 모든 것을 구원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지상생활을 즐기고, 부를 축적하며, 가장 높은 영예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천국을 성취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²⁶

2. 나의 목적은, 나의 지성을 다하고, 나의 마음을 다하며, 나의 의지를 다하고, 나의 삶을 다하여 전념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생각이어야 하고, 나의 모든 원의의 대상이어야 하며, 나의 온갖 말의 근거가 되어야 하고, 다른 온갖 결심을 요약하는 결심이어야 하며, 삶에서 어떤 다른 길이라기보다는 선택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사회관계와 친구관계, 복장과 독서할 도서 선정 방식, 그리고 나의 사생활과 공적 생활의 온갖 표현방식에서 나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26. 참조: 마태 8,26; 루카 9,25.

3. 주님, 제게 당신들의 빛을 비추어주소서. 저는 쓸한 세월과 많은 에너지와 체력을 다른 온갖 목적을 위해 소모하느라, 유일한 목적을 위해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복되신 예수님은, 저를 구하기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로지 저 자신을 망칠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제게 선물하시어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초대일지?

성찰 - 나는 나의 목적을 묵상하는가?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가? 매일 아침마다 기억하는가? 점심때마다? 저녁때마다?

결심 - 매일 아침·점심·저녁에 나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할 것. 왜 (수도회에) 들어왔는가?²⁷ 그리고 왜 세상에 살고 있는가?

기도 - 나의 선하신 예수님, 저는 저의 수많은 죄로 인하여 이미 지옥에 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발밑에 서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신을 모욕했고, 포기했었습니다, 나의 최고선 *sommo Bene* 이시여. 그러나 주님, 지금 저는 정신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갈망하며, 당신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이 만드셨고, 당신이 구원하셨으며, 세례 때 당신이 성화시켜 주신 이 영혼을 구하여 주소서. 살아서 당신을 사랑하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27. “Ad quid venisti?” 이 문장은 성 베르나르도가 자신에게 던진 아주 유명한 질문이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바오로적 성소의 목적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를 자주 인용하였다.(AD 197항 참조)

주소서. 마리아님, 나의 희망이시여,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격이 없는 당신의 이 아들을 구하여 주소서.

10.

나의 종말

“이 사악한 인간, 당신은 우리를 이승에서 몰아내지만,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서는 당신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요.”(2마카 7,9)

1.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²⁸ 이것은 일종의 원리이지만 목적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나를 소멸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곳 중 한 곳에서 살 것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하느님과 함께하여 행복하거나 또는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영원토록 불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엄중한 사실이며, 중간 단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영원의 어느 한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나는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나는 멈출 수 없으며, 단 한순간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상생활이 끝나면 나는 나의 영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야 한다.”(코헬 12,5)²⁹ 성 이레네오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

떤 사람들에게는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거라, 저주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너희들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왕국으로 들어오너라, 내 아버지에게서 복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복된 자이거나, 또는 영원히 불행한 자, 이것은 끔찍한 딜레마입니다.”

2. 문제해결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내 앞에 두 개의 길을 펼쳐 놓으시고 나의 선택에 맡기십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마태 7,13-14) 그러니까 구원 또는 멸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영원한 운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예견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의 표지(안내판)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여 걷고 있는 그것이 넓은 길입니까, 아니면 좁은 길입니까? 나는 이것 혹은 저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변경하는 일은 내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 어떤 것은 하늘로 인도하고, 다른 어떤 것은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3. 주님, 제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진리를 깨닫게 하소

29. 알베리오네 신부가 애용하는 문구다. 그는 습관적으로 라틴어 성경문구를 인용하곤 한다. “Ibit homo in domum æternitas suæ.” CEI(이탈리아 주교회의 성경) 번역성경에서는 ‘자기의’라는 형용사가 빠져 있는데 반해, 알베리오네 신부는 여기서 이 형용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 개념에 관해서, DF 16항과 DFms 31항을 참조한다.

28.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cogito, ergo sum”이라는 문장을 연상케 한다. 이 철학자에게 생각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원리였다.

서. 제가 하늘나라의 길 위에 있는지, 아니면 지옥의 길 위에 있는지요? 저의 종말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만일 얼굴을 하늘나라에 내밀게 되면 저는 축복받은 영혼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제가 지옥 가까이 가게 되면, 저는 절망의 절규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영원의 빛이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하시어, 제가 언제나 빛을 보게 하여 주소서.

성찰 - 내 삶은 나에게 무어라고 말하는가? 죄스런 삶은 멸망의 길이고, 순진무결의 삶은 하늘의 길이다. 나의 삶은 어떠한가?

결심 - 위대한 생각 *magna cogitatio*³⁰을 가질 것. 늘 행복하거나 또는 늘 불행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결과는 나에게 달려 있다.

기도 - 오 불행한 행복은 잔치상의 부자를 영원한 불행으로 이끌었습니다. 오 행복한 불행은 가난뱅이 라자로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주님, 저를 지혜로운 자 되게 해주소서. 저는 불미스럽게도 죄를 지어 마땅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오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의 예수님! 저를 용서주소서. 무엇보다도 저의 인내심을 강하게 하시어, 죽을 때까지 구원의 길 위를 걸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BM1
28

11.

마지막 목적

“주님, 저희에게가 아니라, 저희에게가 아니라 오직 당신 이름에 영

30. 성아우구스티노, 「시편 해설」, 시편 76, n.8.

광을 돌리소서. 당신의 자애와 당신의 진실 때문입니다. ‘저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민족들이 이렇게 말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느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며,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셨네.”(시편 115/113하,1-3)

1. 하느님께서는 피조물들과 당신의 모든 업적들 속에 당신의 영광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가장 행복하시고 복되시므로, 아무것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보탬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뭔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피조물들이 바치는 영광, 곧 외재적 영광 *gloria estrinseca* 뿐입니다. 그분에 의해 존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 그분을 알고,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사랑할 때, 피조물들은 그분께 외재적 영광을 바치는 것입니다.

2. 이 영광은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피조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은 품위있는 장엄한 감사와 찬미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임금의 영광이다.”(잠언 14,28) 수많은 백성을 거느리는 왕은 그만큼 찬미를 많이 받습니다. 오!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느님을 알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찬양이 크면 클수록 한층 더 하느님께 어울립니다. 완덕에 이른 사람들, 지혜로운 이들, 사랑하는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봉헌한 이들의 찬미는 하느님께 한층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의 희생제사는 흠숭이고, 찬미이며, 보속이고, 커다란 탄원입니다.

3. 내가 성인이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바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은, 내가 곧 최고의 선익을 얻는 것을 뜻하며, 모든 것이 이렇게 되도록 확실하게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³¹ 이는 | 성인들의 금언이고, 완전한 사랑의 행위이며, 순수한 지향입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죄인으로 천국에 머무르기보다는 차라리 죄가 없는 상태로 지옥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위대한 표현입니다.

BM1
29

성찰 - 나는 내 삶에서 단지 나의 선익만을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가? 하나님께 영광과 내 영혼의 성화라는 두 가지 열망을 내 안에서 조화시킬 줄 아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계획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³²

결심 -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이 메시지를 언제나 나의 금언으로 삼고, 나의 결심과 나의 기도로 삼을 것.

기도 - 오 좋으신 주님, 당신을 향한 사랑과 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열정과 세상에 대한 무관심한 마음을 주소서.

저는 장상들에게 순종하며, 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며, 원수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31. “Ad maiorem Dei gloriam.”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 표현을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의 끊임없는 호흡”이라고 정의하였다.(PD 47, n.242)

32. 루카 2,14.

12.

나는 나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가?

“당신 종에게 선을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을 지키오리다. 제 눈을 열어 주소서. 당신 가르침의 기적들을 제가 바라보오리다. 저는 이 땅에서 이방인일뿐 제게서 당신 계명을 감추지 마소서. 당신의 법규를 늘 열망하여 제 영혼이 갈망으로 지칩니다. 당신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시니 당신 계명을 떠나 헤매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모욕과 멸시를 저에게서 치우소서. 저는 당신의 법을 따랐습니다.”(시편 119/118,17-22)

1. 종말에 대한 생각이 주도적이어야 하며, 유일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를 지녀야 유혹과 싸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상의 재화는 종말과 연관시켜 생각하거나 종말을 위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 만일 존재 이유가 생각을 채우고 있고, 늘 저 위를 향하고 있다면, 생각있는 사람은 강력하고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며, 성덕을 향하여 단호하고 거리낌없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BM1
30

많은 사람들이 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인간적이지도 않습니다. 경박하고 변덕스러운 생각들 곧 망상, 경솔함, 저속한 독서, 무익한 대화로 살아가므로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미건조한 활동, 순간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충동적인 행동, 무질서한 생활 등은 종말을 망각하는 정도에 따라 비례합니다. 조난당하여 표류하는 배들,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

는 여행자들, 타인에게는 어리석고 자신에게는 굴욕적인 변덕
장자들, 이성이 아니라 짐승처럼 본능과 쾌락에 내맡기며 살아
가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2. 그러한 것에서 시간 낭비, 크게는 모든 인생 낭비, 무익한
오락, 목표 없는 우유부단함, 성과 없는 계획, 대죄, 소소한 감각
적 만족, 불순한 만남, 유혹의 위험, 나약함 등이 생겨납니다. …
이것은 나의 탓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태어나 종말에 대한 교육을 받았
고, 보다 숭고한 열망을 전달받았습니다. 만일 나의 눈이 저 등
대를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나의 탓입니다. 나는 적어도
교리의 첫 번째 문답을 공부하면서 종말에 대해 알고 있고, 모
든 강론은 종말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으며, 죽음을 생각하도록
끊임없이 경고받고 있기 때문이며, 영신수련에서 종말은 근본주
제이기 때문입니다. | 만일 내 시야에서 종말이 사라져 버렸으
며, 종말로 인도하는 길에서 이탈해 있고, 나를 비추어주던 빛
에서 내 시선이 벗어나 있으며, 하늘을 향해 가도록 도와주시던
은총의 동력에서 비껴나 있다면, 그것은 나의 탓입니다.

BM1
31

3. 설교를 거부한 도시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비난하신 예수
님의 말씀을 곧장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행
하여라, 너 코라진아!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아! 너희에게 일
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
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때에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 성싶느냐? 저승까지 떨어
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루카 10,13-16)

성찰 - 나의 구원에 대한 생각은 참으로 나의 주된 생각인가?

결심 - “하느님은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라고 자주 자문할 것.

기도 - 천상 스승이시여, 땅 위에 있는 것은 얼마나 허망하
며, 반면에 하늘에 있는 것은 얼마나 가치로운지 깨닫게 해주소
서. 세속적인 것은 얼마나 찰나적이며, 반면에 영원한 것은 얼마
나 영속적인지 깨닫게 해주소서. 죽음을 잘 준비하고, | 심판을
두려워하며, 지옥을 피하게 해주시고, 천국을 얻게 해주소서.

BM1
32

13.

삶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제가 길을 가
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는 저의 모든 길이 익
숙합니다. 정녕 말이 제 혀에 오르기도 전에 주님, 이미 당신께서는 모
두 아십니다. …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 저
를 엮으셨습니다.”(시편 139/138,1-4.13)

1. 우리는 삶을 여유롭게 보내거나, 쫓기듯 보낼 수 있습니다.
통솔 직무를 맡거나 아랫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자 신분으로 살아가거나, 기혼자로서 살아가거나, 독신으로 살아가갈 수도 있습니다. 시작점에 있거나, 중간지점에 있거나, 종착점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짧거나 상당 기간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직에서 일하거나, 예술에 종사하거나, 육체 노동을 하며 살아가거나, 교육직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인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온유하신 덕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느님, 그분의 뜻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2.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내용을 묵상하도록 합시다. ㄱ) 주님은 사람들의 상황에 알맞게 은총을 베푸시고, 영혼 구원에 충분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ㄴ) 삶의 모습에는 성인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죄인들과 의무에 불충실한 이들과 완고한 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ㄷ) 모두에게 언제나 주님의 은총에 협력하고자 하는 너그러운 의지가 필요하고, 아울러 손쉬운 것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힘든 일에서 은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기도의 마음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ㄹ)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임박한 천국을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궁핍할 때도 늘 기뻐하며 평상심을 유지합니다.

BM1
33

3.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내 입에 늘 그분에 대한 찬양이 있으리라.”(시편 34/33,2) 당신은 저의 주님이시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저를 인도하소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저는 늘 기쁜 마음

으로 당신을 흠송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릴 것입니다. 영원을 위하여 제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소중한 황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³³ 당신의 큰 영광을 위하여 봉헌할 수 있고, 비록 어떤 경우에는 아주 무거운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찰 - 나는 사물들을 영원의 조명에 관련하여 생각하는가? 나는 언제나 하느님의 명령을 부성적인 것으로 여기는가? 나는 모든 것을 그것이 사소하고 의무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지향하며 실행하는가?

결심 - 매일 아침 나는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모든 것에 매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면서, 나의 하루를 진심으로 하느님께 봉헌할 것.

기도 - 주님, 하늘과 땅의 하느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마음과 활동, 감각과 대화, 당신의 법과 계명에 대한 마음가짐을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그리하여 이 지상과 영원에서 구원을 얻어 자유롭게 해주소서, 오 세상의 구세주이시여.

14.

시 간

“젊음의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불행의 날들이 닥치기 전

33. 알베리오네 신부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사상이다. 희망의 주제에 관하여 나중(묵상 102항) 보게 될 내용과 비교해 보라.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최고선을 위한 것입니다. 신체적 도덕적 고통까지도 하늘을 위하여 귀한 보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에. '이런 시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네가 말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비 온 뒤 구름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코헬 12,1-2)

BM1
34

1. 시간³⁴은 주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시간을 봉헌하는 것보다 더 가치있는 것은 없습니다. | 성 베르나르도는 말하길 시간은 하느님만큼 큰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 안에서 은총과 천국과 하느님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이 이승에만 이러한 보물이 있습니다. 시간 안에서 모든 은총을 얻을 수 있는데, 성인들은 시간을 잘 활용하여 공로를 쌓았고, 악인들은 돌이킬 수 없게 공로를 잃어버렸습니다. 임종때에 약간의 시간을 얻어서 인생을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고통을 덜기 위한 단 한순간의 시간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며, 하늘에서도 영원한 영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떠한 시간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요한 9,4)

2. 시간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대단한 낭비입니다.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날, 여러 해를, 삶 전부를 영원을 위해 아무런 소득 없이 잃어버리는

34. 이 주제에 관해서 다음을 참고한다. DF 32항 및 '계약'이라는 시간의 대헌장: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가 작성하고 해설한 「성공의 비결」, A.Colacrai 와 S.M.De Blasio 감수, Ed. Archivio Storico Generale della Famiglia Paolina, Roma 2000⁵, p.31.

것입니다.³⁵ "평온한 날들이 지나가지만, 아무도 지나가는 하루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성 베르나르도)

죄를 짓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보물을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벌어들이는 데 사용합니다. 영원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무익한 수다를 떨면서, 지나친 놀이와 오락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단지 현세만을 위해서, 명예만을 위해서, 호기심만을 위해서, 세속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3. 당신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지금까지 제게 선물해 주신 많은 시간에 대해서 감사드리오며, 또 앞으로 제게 주실 시간들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 그러나 당신들은 당신들의 자비를 통해서 은총에 은총을 더해줍니다. 그리하여 제가 당신들과 사람을 위하여 모든 시간을 바치게 하시어, 당신들의 지극히 감미로우신 뜻을 완수하도록 하십시오.

BM1
35

성찰 - 나는 혹시라도 시간이라는 좋은 보물을 조금이라도 허비하지 않았는가? 나는 나의 일과를 어떻게 보냈는가? 나는 선을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활동하는가? 올바른 지향을

35. DF, 33항: "악한 일, 무익한 일, 공로가 되지 않는 일, 또는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질서있게 올바른 지향으로 선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두고 있는가?

결심 - 매일 저녁 나는 나의 하루를 보람있게 보냈는가?라고 자문하기로 한다.

기도 - 오 나의 하느님, 저는 “그날의 행복을 마다하지 말고 바라던 행복의 몫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라.”³⁶라고 말씀하신 당신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네가 힘껏 해야 할 바로서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냐 하여라. 네가 가야 하는 저승에는 일도 계산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³⁷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명령을 기억합니다. 성 예로니모가 성 바오로를 기리며 “성 바오로 사도는, 가장 마지막으로 사도직에 부르심 받았지만, 누구보다도 많이 활동하여, 가장 많은 공로를 쌓았습니다.”라는 글도 묵상합니다. 저는 장수하는 삶이 아니라, 선한 활동에 열렬히 투신할 수 있는 삶을 당신들에게 청하나이다.

15.

죽음

“사람이란 여인에게서 난 몸, 수명은 짧고 혼란만 가득합니다. 꽃처럼 솟아났다 시들고 그림자처럼 사라져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존재에게 당신께서는 눈을 부릅뜨시고 손수 저를 법정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 누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 그의 날들은 정해졌고, 그의 달수는 당신께 달려 있으며, 당신께서 그의 경계를 지으시어 그가 넘지 못합니다.”(욘 14,1-5)

36. 집회 14,14.

37. 코헬 9,10.

1. 죽음³⁸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 곧 은총의 상실은 영적 죽음, 또는 대죄상태라고 말합니다. | 육체적 생명의 상실은 물리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어 죽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 있는 인간적 결합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그 본성상 부서지고 부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Memento homo quia pulvis es et in pulverem revertaris.”(창세 3,19) 우리는 바람이 흩날려버리는 먼지이고, 행인이 밟고 지나가는 먼지이며, 교회가 부활의 희망으로 축성하고 거룩하게 생각하는 먼지입니다.

BM1
36

2. 죽음은 시련의 종착점입니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요한 9,4) 성 예로니모는 “우리가 살아 있을 때만 선행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각 사람에게 일정한 수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람은 성실하게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상생활이 끝날 때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든지 할 것입니다.

3. 나의 죽음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매일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달력을 넘길 때마다 나의 생명의 날들은 가혹하게 줄어듭니다. 나는 무덤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벌써 많은 지인들이 나를 떠나서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들은 묘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

38. DF, 30-32항 참조.

BM1
37

습니다. 나는 곧 그들에게 당도할 것입니다. 그때 육신이 없는 내 영혼은 더는 어떤 공로도 쌓지 못할 것이며, 또한 죄의 용서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 나는 선행이나 악행의 결실을 가지고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만일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너의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³⁹

성찰 - 나는 죽음의 교훈을 늘 유념하고 있는가? 내가 행하는 활동이 죽음의 순간에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형벌의 계기가 되겠는가?

결심 - 나는 모든 활동을 내 생애의 마지막인 것처럼 실행하도록 할 것.

기도 - 나의 생애는 천막처럼 잘려 나갔습니다. 베짜는 이처럼 그분께서 나를 베틀에서 잘라버리셨습니다. ...⁴⁰ 당신 앞에서, 오 주님, 저는 제 영혼의 비통함 속에서 저의 온 생애를 다시 살피겠습니다. 주님, 만일 그러한 것이 생명이라면, 만일 그러한 것들 안에 제 영혼의 생명이 심어져 있다면 저를 고쳐주시어 제게 생명을 주소서.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저의 비통함이 평화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저 자신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제 영혼을 해방시켜 주셨고, 저의 모든 죄를 어깨 너머로 던져버리셨습니다.

39. 2열왕 20,1; 이사 38,1.

40. 이사 38,12 참조.

16.

죽음의 확실성

“죽음은 더디 오지 않고, 저승의 계약은 너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네가 죽기 전에 친구에게 잘해 주고 힘닿는 대로 그에게 관대하게 베풀어라. 그날의 행복을 마다하지 말고 바라던 행복의 몫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라.”(집회 14,12-14)

1.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고 그 뒤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히브 9,27 참조) 나의 조상들 중에서 살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성인들 중에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살아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 모두가 매일 조금씩 죽어갑니다. 매일 자동차를 사용하면 조금씩 소모되어 가듯이 나의 육신과 감각과 신체기관들은 그렇게 낡아갑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만드시 죽으리라(morte morieris.”⁴¹는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BM1
38

2. 확실히, 죽음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분리시킵니다. 죽음은 육신에서 분리시킬 것이고, 육신은 무덤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무덤뿐.”(욘 17,1) 죽음은 친척들과 친구들을 떼어놓을 것이며, 그들은 나의 죽음의 침상에서 슬퍼하며 떠나 버리고, 나 홀로 주님 앞에 서게 내버려둘 것입니다. 그들이 묘지까지 나를 동반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명예와 재물을 떼어내 버립니다. 인간들의

41. 창세 20,7.

칭송은 하느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어떠한 부자도 단 하나의 장식용 실오라기조차 가져가지 못합니다. 죽음은, 세인들의 존경이나 위선적인 삶에 젖어들게 하면서 하느님을 크게 모독하게 만드는 세상과 이별하게 만듭니다. 영원에서는 그리고 묘지에서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3. 나는 죽음을 만나러 갑니다. 이 육신은 재로 변할 것이고, 이 영혼은 영원 안에 존속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살고 싶던 대로 살다 죽고 싶습니다. 육신은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것인데, 왜 내가 이 감각들, 이 육신, 나의 이 욕구들을 만족시켜야 합니까? 심판 때 나홀로 서있어야 하는데, 왜 내가 친구들 때문에, 또는 친척들 때문에 하느님을 버려야 합니까?

성찰 - 사람들의 칭송에 대해, 부와 안락함에 대해 나는 어떤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 나는 오로지 하느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BM1 39 결심- 포르토 마우리치오의 성 레오나르도의 이 기념비적 문구를 반복하여 읽도록 할 것.

- 삶은 짧다! ... 죽음은 확실하다! ...

죽음의 시점은 불확실하다.

- 영혼은 단 하나뿐이다. ...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

- 지금 너의 시간을 잃어버리면,

죽은 후 더는 시간이 없다. ...

- 하느님은 너를 보고 계시며 ...

하느님은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할 것이다.

- 모든 것은 끝이 있으며 ... 그리고 빨리 끝난다. ...

영원은 결코 끝이 없다. ...

하늘의 길은 좁으며 ...

그 길을 걷는 이들이 적다.

지옥의 길은 넓으며 ...

그 길을 달려가는 이들이 많다.

- 만일 네가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구원하고 싶다면 ...

소수의 사람들이 실행하는 것을 행하고,

죽은 후 하고 싶었던 것을 행하라.

기도 - 주님, 우리를 죽음에 붙이시면서 당신은 그 때와 시간을 감추셨나이다. 제 삶의 모든 날들을 정의와 성덕 안에 살게 하시어, 제가 이 세상을 떠나서 당신의 거룩한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소서. 성령 안에서 당신과 함께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17.

죽음의 불확실성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마태 24,42-44)

1.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1테살 5,2)

만일 도둑이 언제 침입할지 주인이 알고 있다면, 도둑이 집안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킬 것입니다. 도둑은 어떤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올 수 있습니다. 도둑은 성당에, 집에, 노상에서 침입할 수 있습니다. 도둑은 낮에, 밤에, 거룩한 전례 중에, 오락할 때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평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나쁘게 죽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고 또 두려워해야 합니다. 노인들과 중환자들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아직은 적어도 며칠은 더 살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2. 죽음의 시간은 불확실합니다. 청년기에, 건강할 때, 노년기 에? 오늘, 내일, 한달 후, 연중에, 훨씬 나중에? 이 점에 관한 우리의 무지는 절대적입니다. 추측은 늘 불확실합니다. 위험은 이 때든 저때든 언제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 혹은 프로그램 안에 늘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라는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3. 죽음의 형태는 불확실합니다. 나는 선종할까? 나는 나쁘게 죽을까? 열병을 앓다가? 냉담하다가? 죄 중에?

나는 오늘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지만,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오늘 은총 속에 있는 어떤 영혼이 내일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할 수 있고, 갑작스레 하느님의 법정에서 설 수 있

습니다. |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거룩한 겸손을 보존해야 하며, 늘 기도해야 합니다.

BM1
41

성찰 - 나는 회심을 미루고 *Tramando*⁴² 있지는 않는가? 어리다 는 핑계로 온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고자 하는 결심을 내리 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죽음이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가?

결심 - 매일 저녁 성모송을 3번 바치면서 선종의 은혜를 구 하도록 할 것.

갑작스럽게 죽지 않도록 은혜를 청하는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주 예수님, 당신이 겪으신 임종의 고통과 피땀 그리고 당신 죽음에 의탁하여 청하오니, 예기치않은 갑작 스런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주소서.

지극히 인자하신 주 예수님, 당신의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채찍질과 가시관, 그리고 당신의 지극히 쓰라린 십자가와 수난과 당신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겸손되이 청하오니, 성체를 모시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지 않도록 해주소서.

나의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느님 이시여, 당신의 고뇌와 고통, 당신의 고귀한 성혈, 당신의 거룩한 상처에 의탁하여 비오니, 오 나의 지극히 온유하신 예수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신 마지막 말씀과,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 기나이다.” 하신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돌연한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주소서. 오 나의 구세주시여, 당신은 당신 손

42. 창립자는 여기서 *tramandare* 동사(후세에 ‘전하다, 남기다’)를 ‘연기하다, 미루다’의 의미로 사용했다.

BM1
42

으로 저를 완전하게 만드셨나이다. | 참으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해주소서. 제게 주옵소서, 당신께 청하오니, 보속의 기회를, 그리고 당신의 행복과 은총을 잠깐이나마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제가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당신을 찬미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다섯 상처에 의지하여 비오니, 당신의 지극히 고귀한 성혈로 당신 종들을 구해주소서. “세상 구원 이루시려 흘리신 성혈 신비, 강생하신 만민 임금 당신 성혈 흘리셨네 Sanguine Sanguisgue pretiosi, quem in Smundi pretium ... Rex effudit gentium. ...”⁴³

18.

죽음, 생명의 거울

“네 빵을 물 위에다 놓아 보내라. 많은 날이 지난 뒤에도 그것을 찾을 수 있으리라. 일곱 또는 여덟 몫으로 나누어라. 땅 위에서 무슨 불행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름이 가득 차면 땅 위로 비를 쏟는다. 남쪽에서든 북쪽에서든 나무가 쓰러지면 그 나무는 쓰러진 자리에 남아 있다. 바람만 살피는 이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이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코헬 11,1-4)

1. “심판의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병고와 노환으로 임종이 가까워지면 주님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사랑으로 그분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곧바로 문을 엽니다. 세상을 떠나야

43. 성목요일 찬미가 “입을 열어 찬양하세”.

하는 두려움과 걱정에서 빠져 있는 사람은 문을 두드리는 심판관에게 문을 열어드리지 않을 것이며, 생전에 하느님을 무시하며 살았으므로 심판관이신 하느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편 생전에 자신의 희망과 업적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곧바로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심판관 앞에 나섭니다. 죽음의 순간이 가까이 오더라도, 영원한 보상을 받을 생각에 기뻐합니다.”

2. 죽음이 갑작스럽게, 돌연히 다가오면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잠을 자는 중에, 또는 여행중에 사고로, 또는 치명적인 졸도 등으로 인하여 | 영원으로 건너간다면,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무기력하게 지내던 때의 상태 그대로, 또는 여행할 때의 상태 그대로, 또는 갑작스레 졸도했을 때의 무방비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살아온 대로 죽을 것입니다. 공로를 풍성하게 쌓은 사람은 그것을 영원으로 가져갑니다. 죄 중에 있는 사람은 지은 죄를 하느님의 심판대에 가져갑니다. 병고나 (노환과 같은) 예비 보속을 먼저 겪은 후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쩌면 영혼은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화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심판 때 통회의 마음과 진실함을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 살아온 대로 죽을 것입니다.

3. 죄인이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BM1
43

하더라도, 평소에 공로를 쌓지 않았다면 과연 그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한편 평소에 공로를 쌓은 사람은 공정하게 상급을 주시는 하느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Opera tu sumus, non te deseremus.”⁴⁴ 늘 미지근하게 살던 사람이 열심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까? 또는 열의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무덤덤하게 죽을 수 있었습니까? 생전에 절제하며 살던 사람이 죽을 때 피조물과 쾌락을 찾겠습니까?

성찰 - 나는 기회가 닿기만 하면 무엇이든 공로를 쌓고자 노력하는가? 나는 언제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의를 갖고자 노력하는가?

결심 - 나는 확실하게 경건하고 선하며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확실하며 참된 수단은 단 하나뿐이다. “경건하고 선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BM1 기도 - 주 예수님,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수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의지하여 비오니, 회심의 순결한 삶을 제게 허락하시어, 제가 당신 사랑 안에서 죽을 수 있게 해주소서.

“오 하느님, 우리를 죽음에 붙이시면서 당신은 그 때와 시간을 감추셨나이다. 제 삶의 모든 날을 정의와 성덕 안에 살게 하시어, 제가 이 세상을 떠나서 당신의 거룩한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소서. 성령 안에서 당신과 함께 살아계시며 다스리시

44. 성 베르나르도의 금언. 그런데 여기서 성인은 알베리오네 신부가 언급한 공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죄를 가리키고 있다. 죄들이 임종자를 붙들고서 “우리는 당신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성 요한 베르크만에게서도 똑같은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19.

의인의 죽음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지혜 3,1-4)

1. 의인의 죽음은 고귀합니다. “당신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의 눈에는 소중하네.”(시편 115/116,15) 그 이유는 뚜렷합니다. 죽음으로써 시험의 삶⁴⁵이 끝나고 복된 영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는 언제나 죄를 범할 위험, 그러니까 지옥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영혼이 은총으로 견고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며, 천국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현세의 삶은, 슬한 슬픔과 시련, 도덕적이고 신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하

45. DF, 30-31항 참조. 알베리오네 신부는 삶을 시험의 여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느님의 손에서 떠난 인간은 하느님께 영원히 영광을 드리기 위해 삶이라는 시험의 여행을 해야 한다.”(DF, 35항) 이러한 비전의 맥락에서, ‘시험’의 범주에서 최후의 심판(Novissimi)을 또한 이해하고 있다. “죽음’은 시험과 충실의 종착점이다.”(DF, 30항) ‘심판’에 관해서는 “시험을 치른 후에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DF, 33항)고 말하고 있다. 지옥은 “영원한 파멸이고, 죄의 파멸의 완성이며 … 삶의 실패다.”(DFms, 37) 곧 주어진 시험의 실패다. 그리고 ‘천국’은, 모든 것에서 시험을 잘 견뎌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만족시킨다.”(DF, 24항)

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복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 자녀들의 고통을 거두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실한 영혼은 죽음으로 지상을 하늘과 바꾸면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2. 의인은 죽을 때 세 가지의 위로를 얻습니다.

BM1
45

지난 과거에 |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죄를 거슬러 싸우며,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의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하였던 기억이 첫 번째 위로입니다.

지금 현재 죽음의 고통과 형벌을 최종적인 가장 큰 가치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와 성 요셉이 보살펴 주시리라 생각하며, “의인은 때 이르게 죽더라도 안식을 얻는다.”(지혜 4,7)는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큰 위로를 얻을 것이라는 생각이 두 번째 위로입니다.

3. 선량한 일꾼이 힘겨운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약속한 날에 보상을 받으러가는 것처럼, 그리고 멀리 떠났던 아들이 자신의 인자한 아버지 집을 행복한 마음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가까운 미래에 상급을 받으리라는 희망이 세 번째 위로입니다.

성찰 - 스승 예수님, 당신의 빛을 제게 비추어주시길 간청합니다. 제게 알려주소서. 만일 오늘 반드시 영원을 위해 지상을 떠나야만 한다면, 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인지 알게 하소서. 제 과거는 나에게 무엇을 말해 줘니까? 제가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충실

한 종인 알폰소 데 리구오리 성인의 “괴로워하는 많은 이들이 단지 부정해서 또는 대단한 부정 때문에 지옥에 떨어집니다.”라는 금언은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제가 떠나야 할 때가 오기 전에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소서.

결심 - “죽음의 순간에 처할 때에도 나는 이러한 작업을 행하고, 이러한 대화 등을 기꺼이 나눌 것인가?”라는 격언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한다.

기도 - 주님, 제 삶의 날들을 경이롭게 해주신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제 존재가 당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인간의 삶은 그야말로 헛됩니다. 참으로 사람은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영문도 모른 채 현재를 걱정하며, 보물을 모으고, 누구를 위해 보물을 쌓아놓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제가 주님 맡고는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의 모든 선은 당신 안에 있사오니, 주님, 저의 모든 죄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소서. 들어주소서, 오 주님, 제 기도를. 제가 흘리는 슬픈 눈물을 모른 채하지 마소서.

BM1
46

20.

죄인의 죽음

“의인을 무시하고 주님을 거역한 악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에 따라 벌을 받을 것이다.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기는 자는 불쌍하다. 그들의 희망은 헛되고 노동은 벌이가 되지 않으며 그들의 작업은 결실이 없다.”(지혜 3,10-11)

1. “죄인의 죽음은 최악이다.”⁴⁶(시편 34/33.22) 그것은 사실 곤궁한 삶에서 영원한 형벌로 건너감이다.

누가 이보다 불행한 운명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죽음에 임박한 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걸으며 주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에(지혜 5.7)⁴⁷ 성인들도 고생했고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영원한 기쁨을 쟁취했습니다. 오,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불행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천국 또한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 죄인의 죽음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고통스럽습니다.

BM1 47
 가) ‘과거’의 기억: 행복한 삶을 위해 어느 정도의 인내심이 필요했었다는 생각과, | 지난 날 빈번히 저지른 악의적인 중대한 죄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나) ‘현재’의 생각이, 죽어가는 죄인을 괴롭힙니다. 양심의 가책, 불신, 절망, 애착하고 탐했던 것에 대한 애처로운 체념 등이 자신의 영혼을 찢어뜯습니다. 삶을 즐기려고 생각했던 사람은, 육신이 무덤에 묻혀야 할 때가 임박했음을 느낍니다. 오로지 부자가 되기를 바라던 사람은, 타인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어야 함을 느낍니다. 오로지 명예를 추구하던 사람은, 모든 이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굴욕적으로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 시험의 결과와 선고가 훤히 내다보이는 미래의 심판과 지

46. “죄인의 죽음은 가장 나쁘다Mors peccatorum pessima”는 불가타역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성경구절이 지니고 있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구절은 다음의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악인은 불행으로 죽는다.”(새성경 번역)

47. 새성경에는 “우리는 인적 없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번역되어 있다.

옥의 두려움으로, 불행한 이는 어떠한 위로도 발견하지 못한 채 괴로운 마음에 시달릴 것입니다.

3. 천상 스승님, 이처럼 가공할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내치지 마소서. 온통 죄로 얼룩진impiagata⁴⁸ 제 영혼을 보나이다. 걱정이 저를 뒤흔들고, 악습mali abiti⁴⁹이 저를 억누르나이다. 제가 당신 발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모든 악에서 저를 구하소서.

성찰 - 만일 내가 죄의 길에 빠져든다면 나는 나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결심 - 죄의 기회를 피하도록 할 것. | 특히 위험한 오락, 세속적인 사람들과 영적으로 게으른 이들을 멀리하도록 할 것. BM1 48

기도 - 아! 나의 주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인내해 주었으며, 당신은 얼마나 많이 인내해 주셨나이까? 당신의 인자하심이 무한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용서받을 희망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하느님을 저는 알고 있나이다. 저에게 희망을 지나라고 말씀하소서. 저는 희망을 지니고 싶나이다. 당신의 상처를 통해 저를 구하여 주소서, 오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마리아님,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48. 상처들로 뒤덮임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상처는 죄를 의미한다.

49. 라틴어 어투로 나쁜 습관을 지칭함.

21.

사심판 - I⁵⁰

“나는 또 태양 아래에서 보았다, 공정의 자리에 불의가 있음을, 정의의 자리에 불의가 있음을. 나는 속으로 말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느님께서서는 심판하시니 모든 일과 모든 행동에 때가 있기 때문이다.’”
(코헬 3,16-17)

1. 죽음 뒤에 곧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이어집니다.”(히브 9,27) 공의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영원한 상급 또는 영원한 벌의 선고를 내리십니다.⁵¹ 영혼은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심판을 주재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에게는 공포스러운 위엄으로 느껴질 것이고, 충실한 영혼에게는 자애로운 아버지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분은 준엄한 심판관이시니, 어떠한 기도도, 어떠한 눈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지혜로우신 심판관이시니, 악인들⁵²의 모든 죄악과 악한 뜻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심판관이시기에 지체없이 선고를 내려, 천국에서 영원토록 구원을 받든

50. DF,33-34항 참조.

51. 여기에서 제시되는 속고들과 계속 이어지는 최후심판에 관한 묵상에서 제시되는 속고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가르침과 공의회 후기 가르침, 특히 「인간의 구원자*Redemptor hominis*」, 「구세주의 어머니*Redemptoris Mater*」, 「자비로우신 하느님*Dives in misericordia*」, 「하느님은 사랑이시다*Deus caritas est*」 등의 회칙들에서 조명을 받아 해석되어야 한다.

52. Tristi는 고대어 “Tristo”의 복수형으로서, 나쁜 사람, 악인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지, 또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든지 할 것입니다.

2. 천상 심판관이 우리 영혼을 당신 친구로 여기시어 하늘나라로 우리를 초대하는 호의를 베푸실지의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들의 삶을 복음 선포에 매진하는 사도들을 대하실 때 자애로우십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교자들을 대하실 때도 그러하시며, 스승의 표양을 본받는 증거자들을 대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는 동정녀들을 대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고, 자신들이 지은 죄를 보속하며 씻어버리는 죄인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자애로우십니다. 그러나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의 손길에 떨어지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분의 초대와 영감, 호소를 거부하여 죄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이들은 심판관의 분노의 손길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 그분의 성사들을 더럽히는 이들, 교회와 그분의 대리자와 그분의 사제들의 적대자들, 말과 행동으로 추문을 일으키는 이들, 이웃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 약자와 무지한 이들을 억압하는 이들, 갑작스레 죄 중에 죽은 이들은 그렇게 분노의 손길에 떨어질 것입니다.

3. 오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의 스승이시여, 당신께서 당신의 옆구리 상처를 여시어, 회개하는 죄인들을 받아주셨음을 저는 묵상하나이다. 저의 무질서한 삶은 제게 두려움과 공포를 몰고 오지만, 당신의 마음은 제게 신뢰심을 일으켜 줍니다. 저는 심판관을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당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당신과

화해하고 싶나이다.

성찰 - 만일 내가 오늘 심판관 앞에 서게 된다면 그 만남이 어떠한가? 나는 무죄일까 유죄일까? 내가 유죄라면? 나는 하느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했는가?

BM1 50 결심 - 나는 확실히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양심성찰을 하고, 완전하게 회심하기 위해 노력하며, 가능한 고백성사를 잘 봄으로써, 확실하게 용서받기를 원한다.

기도 - 저는 힐라리오 성인의 금언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임종 뒤에는 유예되거나 지체하는 법 없이, 곧바로 상급을 받거나 또는 영원한 별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존재할 것이며, 제 영혼은 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호의적인 판결을 받든지, 아니면 저주의 선고 받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를 지었으나 죄를 뉘우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오 주님, 당신의 너그러움에 의탁하오니, 저의 죄를 씻어주소서.

22.

사심판 - II

“당신께서 부르시면 제가 대답하련마는. 당신 손의 작품을 당신께서 그리워하신다면야! 그러면 당신께서는 저의 발걸음을 세시고 저의 허물을 살피지 않으시련마는. 저의 악행은 자루에 봉해지고 당신께서는 저의 죄 위에다 칠을 하시련마는.”(욘 14,15-17)

1.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라자로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혀서 지옥의 형벌을 선고받았다.⁵³

영혼은 육신을 떠나와서 영원의 빛을 받습니다. | 그리하여 영혼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선행과 악행들을 분별하고, 어떤 것이 상급받을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하느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영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꿰뚫어 보시며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인지 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분의 심판은 영원한 것이 되며, 영혼에게 알려주십니다.

BM1
51

2. 그러한 빛을 받아 영혼은 입은 은총과 자비, 응답하기만 했다면 실현되었을 수도 있었던 성덕, 완수했어야 할 의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응답이 무엇이었는지 보게 될 것이고, 삶의 각 순간마다 쌓아올린 내적·외적 공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는 각 개인이 지은 죄, 그 횡수와 죄질, 그리고 하느님께 드렸던 배은망덕, 하느님의 초대를 거절했던 완고한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책에 적힌 기록들은 그 안에 모든 것을 담고 있으니 이에 따라 온 세상이 심판받으리 Liber scriptus proferetur, in quo totum

53. 루카 16,19 이하 참조.

continentur, unde mundus judicetur.”⁵⁴ 열린 책에 우리 각자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신분상 준수해야 하는 계명과 의무사항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우리의 활동들, 곧 생각, 감정, 말, 행위, 태만, 그리고 삶의 각 순간마다 쌓아올린 공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 나의 스승 예수님이시여, “가여운 저로서는 과연 뭐라 대답해야 합니까? 의롭다는 이데조차 불안하다 하는데, 저를 변호해 줄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Quid sum miser tunc dicturus? quem patronum rogaturus cum vix justus sit securus?”⁵⁵

당장이라도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 성체 안에서 겸손하게 말없이 계시는 분, 길 잃은 양을 부르고 찾아다니시는 선한 목자를 제게 보여주소서. | 죄인의 비탄과 눈물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당신은 오로지 정의로우시다고 말하는 목소리만 들으실 것이옵니다.

BM1
52

성찰 - 나의 생명의 책을 전부 펼쳐볼 때, 나의 유년기의 부분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청소년기는? 장년기 Virilitia⁵⁶는? 노년기는?

결심 - 매일 양심성찰을 열심히 하도록 할 것.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살피보도록 할 것.

54. 진노의 날(Dies irae) 부속가.

55. 진노의 날의 또 다른 내용.

56. Virilitia는 본래 기력을 의미하지만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이 단어를 늘 장년을 뜻하는 말로 사용했다.

기도 - 오 주님, 제 귀에 당신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나이다. “너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하느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⁵⁷ 당신의 충실한 종 성 아우구스티노가 말한 대로, 당신은 의인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오실 것이고, 악인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이 비어 있고 죄스러운 것에 대해서 깊이 무릎 꿇고 통회합니다. 제가 행한 몇몇 선행에 대해 만족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하느님 앞에서 참으로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올바른 지향, 당신을 향한 참된 사랑, 당신을 섬기고자 하는 선량한 마음을 주시어, 당신께서 제 영혼을 부르실 때마다 제가 미움을 받지 않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소서!

23.

사심판 - III

“지각 있는 사람들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결단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되갚으시고 인간을 그 길에 따라 대하십니다. 참으로 하느님께서서는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올바른 것을 왜곡하지 않으십니다.”(욥 34,10-12)

1. 심판은 진리 안에서 받게 됩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이 행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성 예로니모) | 선한 이들에게 진리는

BM1
53

57. 마태 24,50.

가장 큰 위로입니다. 삶은 투쟁입니다.⁵⁸ 매일 극복해야 할 유혹이 있고, 감내해야 할 희생이 있으며,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투쟁과 희생, 임무 완수는 오로지 하느님만 알고 계십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증거도 충분한 상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잊혀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이에게 베푼 물 한 잔도 잊히지 않습니다. 모든 자선 행위와 완수한 종교 의무들, 신분상 이행한 모든 의무들, 향주삼덕, 사추덕, 윤리덕들은 진리에 따라 기억될 것이고, 높이 평가받을 것입니다. … 성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감추거나 드러내지 않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2.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진리Verita의 날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기간에 걸쳐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지른 무질서와 사악한 죄들을 전부 보게 될 것입니다. 게으른 신앙심, 경시한 종교적 가르침, 무시해버린 의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독성죄, 모욕, 악담, 적개심, 미움, 도둑질, 거짓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든 욕구들, 좋지 못한 만족감, 건전하지 못한 독서, 공허하고 무익한 삶, 지키지 않은 약속들, 죄에 빠져버린 완고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고, 조금도 완화되지 않을 것이며, 용서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 빌어도 소용이 없으며, 어떠한 중재자도, 친구도, 아버지도 없을 것입니다.(에우세비오)

3. 오 주님, 성 베르나르도의 말을 빌어 당신께 말씀드리나이

58. 인생은 땅위에서 투쟁이다(Militia est vita hominis super terram).(옴 7,1 참조)

다. | “저는 심판받아야 할 자가 아니라, 이미 심판받은 자로서 당신 앞에 서고 싶습니다.”⁵⁹ “나의 심판관이시여, 당신께 비오니 여기서 저의 죄를 알아보게 해주시고, 여기서 통회하고 용서받고 회개하도록 해주소서. 저의 심판은 저의 태도에 달려 있나이다.”

심판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내가 쌓은 선행 또는 범한 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찰 - 지금까지 나는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가?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결심 - 고백성사를 진솔하게 잘 준비할 것. 필요하다면 충고백을 준비할 것.

기도 - 나의 주 예수님, 제가 지금 보속하지 않으면, 진리의 그날에 보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끊임없이 배은망덕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떤 보속을 바쳐야 합당하겠습니까? 오 주님, 또한 저를 위하여 당신의 자비로 보속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나이다. 화해성사로 당신의 피를 통해서 보속할 수 있음에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제게 통회의 은총을 베풀어주소서. 저는 제가 지은 죄를 모두 혐오하며, 이제와 항상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나의 희망이시여, 저를 위하여 거룩한 인내심을 빌어주소서.

59. 라틴어 본문: “Volo iudicatus praesentari, non iudicandus.”(성 베르나르도)

24.

사심판⁶⁰ - IV

“거만한 자들에게 내가 말하였다. ‘거만하게 굴지 마라.’ 악인들에게 내가 말하였다. ‘뿔을 쳐들지 마라.’ 너희 뿔을 높이 쳐들지 마라. 고개를 치켜들고 무례하게 말하지 마라. 해 뜨는 데서도 해 지는 데서도 아니요, 산속 광야에서도 오는 게 아니니. 오직 하느님만이 심판자, 어떤 이는 낮추시고 어떤 이는 높이신다. 실상 주님의 손에 잔이 들려 있으니 향료 가득한 거품 이는 술이라네. 그 잔에서 따르시니 그들은 찌꺼기까지 훑아 마시리라.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마셔야 하리라.”(시편 75,5-9)

1. 판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인데, 그것은 죽은 후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한 이들에게는 판결이 한없이 온유할 것입니다. |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마태 25,34) 이것은 예수님의 초대이고, 충실한 이에게 주시는 상급이며, 착한 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영혼을 온전히 순수하게 보존하였다면 즉각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마치 자석이 철조각을 끌어당기듯 영혼을 당신께로 끌어당기실 것입니다. 선한 이는 자신의 공로 덕분에 하늘로 고양될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며,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사랑하며, 하느님을 향유할 것입니다. 참으로 기분

60. 초판 인쇄본에는 제목이 단순히 “심판 - IV”으로 되어 있다.

좋게 희생과 감내, 착한 일과 열심한 신심, 영혼의 구원⁶¹을 위한 열의 등을 기억할 것입니다.

2. 악인들에게는 판결이 공포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마태 25,41) 그것은 즉각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전능한 분이시기에 어떠한 것도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잘못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인해, 마치 던져버린 돌이 깊은 심연에 빠져버리듯이, 죄인은 심연으로 깊이 빠져들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구현될 것인데, 죽음은 거의 지옥에서 고통을 직접 자각하게끔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고통의 침상에서 석탄의 침상으로, 생명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죄의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천벌의 상태로 떨어질 것입니다.

3. 주님, 저는 순간순간 심판으로 다가가고 있나이다.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심판이 제게서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못한 채 형벌의 선고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성찰 - 내 양심은, 아니 나의 삶은 어떤 심판을 미리 예견해 주는가? 나는 죄의 무게로 인해 삼시간에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느끼는가, | 아니면 쌓아둔 공로로 하늘 높이 고양되고 있

61. salute는 본래 건강을 의미하지만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라틴어적 어법을 사용하며 (영혼의) 구원을 가리키는 salvezza로 자주 사용했다.

음을 느끼는가?

결심 - “복을 받은 이들과, 오라”. 또는, “저주받은 자들과, 나에게서 떠나라.”는 두 개의 선고문을 자주 생각할 것.

기도 - 성인들의 무덤에서 사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합니다. 당신 종을 엄하게 처벌하지 마소서,⁶² 오 주님. 당신께서 죄를 남김 없이 모두 사해 주지 않으신다면 살아 있는 그 누구도 당신 곁에 의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께 비유하니,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참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심판관으로서 판결하시어 벌하지 마옵시고, 은총의 도움에 힘입어, 살아 있을 때 거룩한 삼위일체의 인호를 받은 사람은 복수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당신은 세세대대로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25.

연 옥

“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기초 위에 어떤 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면, 심판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마다 한 일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불이 가려낼 것입니다.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

62. “엄한 심판을 하지 마소서.”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표현.

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샅을 받게 되고,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타 버리면 그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 할 것입니다.”(1코린 3,10-15)

1. 연옥은, 소죄를 짓거나 또는 잠벌의 짐을 안고 영원으로 건너간 의인들의 영혼들이 지내는 장소와 그 상태입니다. 그들은 정의로우신 하느님께 진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연옥은 또한 탄식과 눈물, 정화의 불, 감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트렌토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감도를 충만하게 받아, 성경과 성전聖傳에 따라, 연옥이 존재한다고 가르치며, | 그곳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은 신자들에게 의해 구제될 수 있는데, 특히 미사성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⁶³

유다 마카베오가 하느님의 영광과 백성을 위하여 전쟁을 치를 때, 다수의 유대인 군사들도 많이 전사하였습니다. 이들 전사자들을 묻어주려고 했을 때, 율법으로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우상패의 보물들이 옷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은총 속에 죽었으므로, 유다는 모금을 하여 전사자들을 위해 속죄 제물을 바쳐 달라고 은 만 이천 드램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경건하게 잠든 이들에게는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내다보았으니,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

63. 트렌토 공의회, “연옥에 관한 교령”, 1563년 12월 3일(텐징거-휘너만,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선언 편람」, 다국어판, 1995, 1820판).

다.”⁶⁴

2. 생전에 지냈던 탐욕의 크고 작음에 따라, 정확의 불을 거치면서 다소 빠르게 구원받는 일련의 신자들이 있다고 성 아우구스티노는 말합니다. 곧바로 천국으로 갈 만큼 선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옥의 영원한 중벌을 받을 만큼 악하게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영원한 형벌은 아니지만 갚아야 하는 잠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사함은 받았지만 그 벌은 여전히 남아 있는 소죄가 그러하고, 천국으로 직행하여 하느님을 관조하고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게 만드는 게으르고 무기력한 생활이 그러하며, 대죄로 인하여 아직은 기워 갚아야 하는 벌이 그러하고,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절제되지 않는 자연적인 경향들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아를의 성 체사리오 S. Cesario d'Arles는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지상에서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지 않고 보속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재와 마른풀과 옷감이 불태워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갚을 때까지 연옥에 머물러야 한다고 합니다.

3. 나의 하느님, 저는 수없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선행을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악행 또한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껄인 쓸데

64. 2마카 12,45.

없는 말을 심판 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⁶⁵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찰 - 나는 나의 죄에 대하여 완전히 속죄하였는가? 아니면 고백성사를 보고 고해사제가 정해진 간단한 보속을 행하는 형식-치레에 그쳤는가? 나는 아직도 소죄를 범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죽을 때 하늘나라에 곧장 들어갈 수 있는 공로를 쌓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결심 - 연옥의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나는 나의 미지근한 마음을 극복하여, 여기서 사랑의 불에 타오르고, 나의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기를 갈망한다.

기도 - 주님, 제게 속죄의 정신을 주소서. 눈보다 더 하얀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제가 지은 죄를 늘 기억하게 하시어 겸손하게 살고, 주님께 의탁하여 살며, 나 자신을 교정하고, 죄를 보속하며 살게 해주소서.

26.

연옥: 벌

“그 여자의 죄악들이 하늘까지 닿아 하느님께서 그 여자의 불의한 짓들을 기억하셨다. 그 여자가 남에게 한 것처럼 되갚아 주어라. 그 여자의 행실을 갑절로 갚아 주고 그 여자가 남에게 부어 준 잔에 갑절로 독한 술을 부어 주어라. 그 여자가 영화와 사치를 누린 그만큼 고통과 슬픔을 그 여자에게 안겨 주어라. 그 여자가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 자리에 앉아 있는 몸, 과부가 아니니 슬픔도 결코 맛보지 않을 것이다.’

65. 마태 12,36.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루 사이에 여러 재앙이, 흑사병과 슬픔과 굶주림이 그 여자에게 닥칠 것이며, 마침내 그 여자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느님은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묵시 18,5-8)

BM1
59

1. 연옥에 있는 영혼은 일시적으로 하느님의 시선에서 사라집니다. | 육신을 떠난 영혼은 오로지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느님을 갈망합니다. 하느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그 영혼을 유인하지 못하고 그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자신을 감추시고 영혼에게서 멀어지시며 그 영혼을 당신에게서 쫓아버리십니다. 천상 아버지를 보기를 갈망하는 아들처럼, 오직 그 거룩한 빵만으로 채울 수 있는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그는 뜨거운 목마름으로 하느님을 그리워하지만, 이 갈증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살아 생전에 모든 것을 보속하여, 하늘나라의 복락에 곧바로 인도된 영혼들, 친구와 친척과 은인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천사들과 성인들과 지극히 거룩한 동정 마리아께서 홍겨운 잔칫자리에 계신 것을 멀찍이서 바라볼 뿐입니다. ... 잔치에서 제외된 연옥영혼은 아직 얼룩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 영혼이 얼룩져 있음을 보십니다. 구원받으리란 것이 확실하지만 그 영혼은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2. 연옥에서는 가장 작은 벌일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형벌보다 훨씬 혹독하다고 교회학자들은 말합니다. 갖가지 고통과 고뇌, 속앓이, 사람들의 배신, 불확실, 이별, 두려움 등을 생각해봅

시다.⁶⁶ ... 그런데 연옥은 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감옥에서, 화형대에서, 십자가에서 죽어간 순교자들을 생각해보거나, 아니면 익사자들spirati nei,⁶⁷ 생매장으로 죽은 이들, 목이 잘려 죽은 이들, 그리고 늑대와 사자에게 잡혀 먹힌 이들을 생각해봅시다. ... 이 끔찍함들도 연옥의 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의 형벌이 얼마나 가혹하고 날카로운지 생각해봅시다. 저 아래에서는 간단한 보속만으로 이 모든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리라고 연옥영혼들이 생각하지만, | 그들은 아주 게을러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타인을 위해 기도해줌으로써 연옥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지 않았으며, 대사를 얻기 위해 수고하지 않았습다. ... 이 모든 것은 형언할 수 없는 낙담과 후회와 슬픔일 것입니다.

BM1
60

3.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영광의 왕이시여, 믿는 죽은 모든 이의 영혼을 연옥의 벌과 깊은 구렁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그들을 사자의 입에서 자유롭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어둠의 세계tartaro⁶⁸가 그들을 삼키지 못하고, 그들이 어둠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기수 성 미카엘이, 옛날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소서. 제물과 찬미 기도를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영혼들을 기억하며 바치는 (기도를) 받아주소서. 당신은 언젠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나이다. 오 주님, 그들을 죽음에

66. 어려움, 고통, 고뇌 등.

67. 본문에는 전치사 in과 남성정관사 복수인 i가 합쳐진 전치사관사 nei가 있으나 전치사in과 여성정관사 le가 합쳐진 nelle가 더 정확한 단어이다.

68. 죽은 이들의 왕국.

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⁶⁹

성찰 - 나는 연옥영혼들에게 경건하고 민감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이들을 위해 매일, 매주, 매년 어떤 기도를 바치고 있는가?

결심 - 적어도 매일 저녁 “깊은 구렁 속에서 De profundis”⁷⁰ 기도문을 바치도록 할 것. 그리고 하루 중에 자주 죽은 이를 위한 화살기도문 Requiem aeternam⁷¹을 바치도록 한다.

기도- 오 주님, 매일 영원으로 들어가는 십사만 명의 사람들, 곧 일 분에 97명의 사람들, 매년 5천 1백만 명의 사람들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이들 중 다수가 곧장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겠지만, 또한 영원한 저주를 받을 만큼 사악하지도 않음이 사실이나이다. | 오 주님, 당신은 당신 정의와 자비를 통해 연옥을 마련하여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하셨나이다.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오 주님, 그들에게 불멸의 빛을 비추어주시어 평화로이 쉬게 하소서. 아멘.

BM1
61

27.

연옥: 의무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

69.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 전례문에서 발췌한 봉헌송 후렴.

70. “깊은 곳에서(주님, 당신께 부르짖습니다).”(시편 130/129,1)

71. “영원한 안식...”.

입니다. 이는 죽을 죄가 아닌 죄를 짓는 이들에게 해당됩니다.”(요한 5,16)

1. 연옥을 피하라. 지옥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싶어하지만, 연옥의 벌은 일시적이라고 여기어 연옥에 대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열심한 사람은 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죽음의 침대에서 곧장 하늘나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연옥에서 한 시간만 지낸다고 하더라도, 잘 생각해보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할 것입니다.

모든 이가 임종시에 위령기도를 해달라고 친지들에게 간청하는데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먼저 중재기도를 바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 이것은 죄와 그 잠벌의 완전한 사함을 보장해줍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한 뉘우침, 진심어린 회개, 극기, 자선 행위, 기도, 양심성찰, 대사, 영적·신체적 자비 행위 등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2. 연옥을 비워라. 연옥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친지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행위이고, | 종종 은인들에 대해서는 감사 표시이며, 어느 정도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는 죽은 이들을 위해 정의를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영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한 마음의 표시이며, 하느님의 칭찬을 크게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확실하게 연옥을 단축시켜주는 것입니다.

BM1
62

사랑하는 죽은 이들을 위해 중재기도를 바치는 것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니, 그것은 그 영혼들이 하늘에서 주님께 영원토록 찬미의 노래를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큰 고통을 겪으셨고, 지금은 천국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므로,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 영혼들은 자신을 위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가장 탁월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들은 그 감옥을 열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그 영혼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자신의 은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줄 것이기에, 우리가 중재기도를 바치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3. 주님, 용서의 시혜자largitore이시며 인간 구원의 애호가amatore이시여, 당신의 너그러우심에 힘입어 청하오니, 평생 동정이시며 복되신 마리아와 당신의 모든 성인들의 전구를 들으시어, 이 세상을 떠난 우리 가족의 형제들과 친척들과 은인들이, 영원한 복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찰 - 연옥에 대한 나의 믿음은 굳건한가? 이 교리에 대해 나는 잘 알고 있는가? 연옥의 존재에 대해서? 연옥의 벌에 대해서? 중재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연옥영혼들에 대한 미사성제의 가치에 대해서? | 나는 연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가? 나는 최선을 다해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가?

결심 - 미사 중에 미사지향을 올릴 때, 나의 사랑하는 죽은 이들을 위한 지향을 늘 바치도록 한다. 기회가 닿는 대로 묘소를 참배하도록 한다.

기도 - 전능하신 주 하느님, 통고의 어머니 앞에서, 당신 성자 예수의 능방에서 흘러나오는 귀한 피에 힘입어 간청하오니, 영혼들을 연옥에서 구해주소서. 이들 중에서도 특히 지극히 거룩한 미사성제와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의 신심에 각별한 이들을 구해주소서.

28.

마지막 부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쩌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우리는 또 하느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이들이 정말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느님을 거슬러 증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1코린 15,12-20)

1. 모든 이가 되살아 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필리 3,21) 성 바오로는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 네 가지 속성을 설명합니다. 무고통, 광채, 유연성, 민감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 무고통.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1코린 15,42) 부활한 육신은 더는 고통을 겪지 않으며, 더는 썩지 않고 더는 죽지 않습니다. 더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며, 더는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 그런데 저주받은 육신은 부활하여 모든 감각이 하나도 빠짐없이 영원한 불길에 시달릴 것이며, 온갖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결코 죽지 못하면서, 죽음의 형벌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죄를 범하는 데 이용되었던 감각은 더욱 고통받을 것이고,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BM1
64

저주받은 이의 육신이든 선택받은 이의 것이든, 그 육신은 불멸한다고 믿음은 가르쳐 줍니다.

나) 광채.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1코린 15,43) 선택받은 이의 육신은 빛날 것이며 변쩍일 것입니다.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마태 13,43) 이 광채는 영혼에서 육신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만일 영혼이 공로로 가득하다면 더욱 빛날 것입니다. “해의 광채가 다르고 달의 광채가 다르고 별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별들은

또 그 광채로 서로 구별됩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1코린 15,41) 정반대로 all' incontro⁷² 저주받은 이의 육신은, 죄의 표시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보기에 흉하고, 악취를 풍길 것입니다. 이 죄의 표시는, 죄가 엄중할수록 그만큼 더 수치스럽고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다) 유연성.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1코린 15,43) 육신은 별다른 어려움이나 수고로움 없이 영혼이 뜻하는 대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신속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육신은 온순하게 의지에 순종할 것입니다. 세상 전체가 복된 이에게 복종할 것이고, 우주의 아름다움은 그를 재창조할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육신은 움직일 수 없는 돌덩이처럼 죄의 거대한 무게에 짓눌려서 요지부동하며 무거울 것입니다. 이 무게는, 죄가 엄중하고 그 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한 이를 질식시키며 짓누를 것입니다.

리) 민감성.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1코린 15,44) 복된 육신은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에 복종한다는 의미에서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은 예수님께서 잠겨 있던 다락방에 들어오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폐쇄 공간을 통과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은 음식이 필요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영혼의 지극히 거룩한 요청에 복종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에 참여할 것이며, 인간 전체

BM1
65

72. all'incontro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고전형태로 이탈리아어에서 al contrario, invece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말이다.

가 점점 행복해질 것입니다. 인체학적·조직학적·미적으로 삼중의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2. 나의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시여, 마지막 날에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게 해주소서. 복된 이의 영광스러운 몸이 자신의 영혼을 만날 때의 기쁨을 맛보는 커다란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이의 영혼은 찌그러지고 찌어버린 자신의 육신을 만나게 될 때 그 절망감이 얼마나 경악스러울 것이며, 악한 삶의 결말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성찰 - 나의 육신에 대해 어떤 운명을 준비하고 있는가? 순결하게 살면서 육신을 성화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저속하게 만족을 채우면서 육신을 추락시키고 있는가? 영성체할 때 예수님과 그의 일치에 깊이 이루어지는가?

결심 - 거룩한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 자주 다음 내용을 암시할 것: “영성체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부활을 보증해 주신다.” “후세 영광의 보증을 받는도다 Futuræ glorie nobis pignus datur.”⁷³

BM1
66 기도 - 주님, 당신께서는 삶에서 가치있는 동반자가 되게 하기 위해, 영원에서는 영혼의 영광스런 동반자가 되게 하기 위해 저의 육신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자주 반항하는 아이를 사랑하는 듯한 큰 사랑으로 저의 육신을 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육신이 지닌 유혹들에 깨어있게 하시어 육신을 온순하게 만들고,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게 하소서.

73. “오 거룩한 잔치여”(O sacrum convivium) 후렴.

29.

육신의 부활

“자,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하나를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박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1코린 15,51-53)

1. 나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오래 전부터 이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라자로의 누이 마르타는 이미 죽은 오빠 라자로에 대해 말하면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요한 11,24)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천상 스승께서는 (다음과 같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요한 5,28-29)⁷⁴

2. 육신에 대한 참된 사랑은 |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따라 살아가고, 영원을 위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⁷⁵

BM1
67

74. 제4차 라테란 공의회, 1215년 11월 11일-13일, 1장, “가톨릭 믿음”(텐징거-휘너만,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선언 편람」, 다국어판, 1995, 801번).

인간은 이성적인 영혼과 유기적인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은 함께 움직이며 공로를 쌓을 수도 있고, 공로를 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은 한층 귀중한 부분인데, 선한 행위는 장려하고, 악한 행위는 금하는 등의 육신의 활동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질서는, 하느님을 거역하는 영혼의 반발에 의해 생겨나고, 육신을 조정하는 의지가 무기력해지면서 발생하며, 또한 이성과 그리스도교적 도덕을 거스르는 감각기관의 반발에 의해 생겨납니다.

많은 이들이 육신과 육체적인 욕구에 예속되어 살아갑니다. 욕정을 만족시키고 감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더러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1코린 2,14)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갈라 5,17) 그리고 그 말로는 어떠하겠습니까?

성인들은 육신을 착한 자녀처럼 훈육하고, 지혜롭게 지도할 줄 알았습니다.⁷⁵ 그리하여 영원한 행복을 준비하고, 이루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승화시키며, 거의 완전한 영화 spiritualizzazione, 靈化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1코린 15,51) 성인들은 육신을 극기하고 단련하

75. DF, 16항 참조. “삶의 본질은 영원을 위한 준비... 천국은 지복직관이므로 지성을 준비해야 하고, 천국은 최고신이신 하느님을 확증하기에 의지를 준비해야 하며, 천국은 기쁨이기에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영광을 입을 희망이 채워져야 하기에 육신의 준비를 해야 한다.”

76. 관련 주제는,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전하십시오”에서 “사랑스런 육신”을 참조할 것. (『성 바오로』, 1954년 2월-3월, p.8; 「복음을 위한 몸과 마음」, (서울-바오로딸), 294 이하 참조)

며 부정한 쾌락은 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탐식자들의 말로는 어떠하겠습니까? 또 게으른 자들은? 사치스러운 자들은?

3. 십자가에 못박히신 주님, 당신은 스승으로서 육신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 당신은 표양과 말씀으로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은 갓난 아이때부터 가난으로 고생하셨으며 청빈하게 사셨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마태 5,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BM1
68

성찰 - 나는 내 육신을, 특히 다음 세 가지 경향, 곧 게으름, 탐식, 색욕을 어떻게 길들여왔는가?

결심 - 육신을 의지에 복종시키고, 감각을 극기하면서 육신을 올바르게 사랑하기를 바랄 것.

기도 - “금지된 쾌락을 멀리하고, 허용된 음식도 절제하며, 성인들이 실천했던 것처럼 육신의 고행을 실천하면서 생활에서 육신을 극기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참으로 큰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라는 성 알폰소의 금언을 저는 묵상하나이다. 알칸타라의 성 베드로는 임종 후 [아벨라의] 성녀 데레사에게 나타나, “오, 내게 많은 영광을 안겨준 복된 보속이여!”라고 말하였습니다.

30.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에서⁷⁷

“그때 하늘에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세상 모

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면서,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가 선택한 이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마태 24,30-31)

1.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우리의 선하고 악한 행실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⁷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는 마지막 때에 선한 이들과 악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BM1
69 임종 후 사심판에서 | 모든 영혼은 각자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인류의 한 부분이고 일반사회와 종교사회의 지체로서 공공의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온 인류가 심판을 받을 때, 두 번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선을 행했고,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질렀는지 심판받을 것입니다!

최후 심판은 거룩한 섭리의 신비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왜 선한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악한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지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숨겨진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주님의 위대한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느님의 정의와 지혜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께서 오신다. 그분께서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성실하게 다스

77. 원 제목은 “최후 심판”이다.

78. 2코린 5,10 참조.

리시리라.”(시편 96,13)

2. 최후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가난하고 비천한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분은 사형선고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주 모욕을 당합니다. 호전적인 공격이 지속적으로 그분의 교회에, 그분의 가르침에, 그분의 교직자들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위엄을 지니고 오실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릴 것이다.”(마태 25,31-32)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 당신에게 하느님의 아들인지를 심문하던 율법학자들과 카야파를 혼계할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마태 26,64) 그러면 천사들과 사람들과 악마들 모두가 그분 앞에 엎드려, 구세주이시고 심판관이신 그분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관상하게 될 것입니다.

선량한 이들에게는 정의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활동하였고, 더러는 사람들에게서 박해받은 사도들과 교황과 사제들의 열정이 영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이처럼 순교자들은 자신을 괴롭히던 박해자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온유한 이들과 자애로운 이들에게는 오만한 이들과 복

수자들 앞에서 영광의 날이 될 것이며, 자비로운 이들과 인류의 봉사자들은 이기주의자들과 약탈자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선량한 이들은 겸손하고 감추어진 수많은 덕행들이 드러나면서 영광의 월계관을 받을 것입니다. 침통해 하는 이들⁷⁹은 부끄러움을 겪을 것이며, 그들의 위선과 추잡한 행위들이 공개될 것입니다.

3. 주님, 저는 최후 심판을 믿습니다. 그날은 참된 영광의 날이 될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재림이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최종적이며 영원한, 오류가 없는 말씀을 내리실 것입니다.

성찰 - 나는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의 섭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가? 나는 하느님께서 정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것이 남김없이 밝혀지는 위대한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는가?

BM1
71 결심 -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선도 악도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주 기억할 것.

기도 - 오 예수 그리스도님, 저는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오류가 없으시며 온 우주의 심판관이시여! 저는 지극히 엄위하심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영광의 당신을 관상하나이다. 사회 관계와 관련하여 제 안에 믿음과 정직한 마음이 자라게 해주소서.

79. 악인들.

31.

최후 심판 - I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어 심판하시니 악인은 자기 손이 한 일에 걸려드네. 악인들은 저승으로 물러가라. 하느님을 잊은 민족들은 모두 물러가라. 그러나 가난한 이는 영원히 잊히지 않고 가련한 이들의 희망은 영원토록 헛되지 않으리라. 주님, 일어나소서. 인간이 우쭐대지 못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당신 앞에서 심판받게 하소서. 주님, 민족들을 공포에 떨게 하시어 그들이 인간일 뿐임을 깨닫게 하소서.”(시편 9,17-21)

1. 모든 심판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마태 26,64; 마르 14,62) 그분은 천사들의 웅대한 무리를 거느리고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마태 24,30) 이 표징은 교부들에 따르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이 십자가의 표징이 하늘에서 빛날 것이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선량한 이들은 충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던 예수님 그분을 만나 뵈게 될 것이기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이시는데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들은 두려움과 분노와 공포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어린 양⁸⁰의 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

80. 희생제물의 어린 양이 되었고, 부활하셨으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BM1
72

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싶어서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서 우리를 덮어달라고 말할 것입니다.⁸¹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날이 되고, 진리와 정의의 날이 되고, 주님의 날이 될 뿐입니다.

2. 심판은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모든 선과 모든 악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각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타인의 삶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1코린 4,5)

그때에 자신의 하느님을 참되이 사랑하면서, 눈에 드러나지 않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다리던 이들, 겸손한 이들의 덕행은 빛날 것입니다. 덕행의 내적 행위들도 또한 알려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잊혀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주 깊이 숨겨진 죄들이 드러날 것이고, 단지 생각이나 지향만으로 지은 죄들도 드러날 것입니다. 위선으로 감추어진 죄들, 또는 고해소에서 말하지 않은 죄들, 은밀한 허영심과 만족감과 질투 등 모든 죄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3. 오 주님, 이 세상에서 모든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날에는 당신의 격노하신 얼굴을 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최고의 형벌이 되게 하여 주소서. 당신을 만나기 전에 용서를 받게 해 주소서.

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묵시 5,6이하 참조)

81. 루카 23,30 참조.

성찰- 위선적인 삶을 산 사람은 심판 날에 가장 무서운 공포 속에 자신을 고백할 것이고, 겸손한 삶을 산 사람은 온 세상 앞에서 큰 위로를 느끼며 자신을 고백할 것이다. 나는 나의 죄와 잘못을 성실하게 고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결심 - 최후 심판 때 불태워지지 않도록 내적·외적으로 절도 있게 살아가도록 한다. BM1
73

기도 - 오 주님, 빌라노바의 성 토마스 S.Tommaso da Villanova의 기도로 당신께 청하오니 들어주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사형선고 받기를 원하셨던 당신의 심판을 저는 기꺼이 받고자 하나이다. 저는 당신의 수난에 희망을 두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바라나이다.

32.

최후 심판 - II

“하느님,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며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시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느님께서 광채와 함께 나타나시네. 우리 하느님께서서는 잠잠히 아니 오시니 그분 앞에 불이 삼킬 듯 타오르고 그분 들레에는 엄청난 폭풍이 이네.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려 저 위 하늘과 땅을 부르시네. ‘나에게 모여라, 내게 충실한 자들이 제사로 나와 계약을 맺은 자들이!’ 하늘이 그분의 의로움을 알리네, 하느님, 그분께서 심판자이심을.”(시편 50,1-6)

1. 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일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 이들을 가를 것이다.”(마태 25,32) 밀과 가라지 비유⁸²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주인에게 좋은 밀 가운데에 섞여 있는 가라지들을 솥아낼 것인지 묻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확 때 추수꾼들이 먼저 가라지들을 베어내어 단으로 묶어 불 속에 던지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밀을 거두어 곡식창고에 모아둘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도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선한 이들과 악인들을 분리할 것이며, 이 악인들은 지옥의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BM1
74

2. 오른쪽에는 선한 이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 “저를 염소들 속에 두지 마시고, 양들 가운데 자리 주시며, 당신의 오른손으로 저를 높여주소서.”⁸³ 하느님께 충직한 천사들이 천상의 모든 계층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연령층과 모든 계층의 거룩한 영혼들이 있을 것이고, 성조, 예언자, 사도, 순교자, 증거자, 동정녀, 무죄한 이, 회심자, 선량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 훌륭한 왕, 가장家長, 젊은이, 군인, 전문가, 예술가, 노동자 … 성 요셉,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께서 계실 것입니다.

왼쪽에는 악인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루치펠과 그의 사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나쁜 악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상숭배자, 위선자, 신성 모독자, 도둑, 사기꾼, 폭력배, 불순자, 폭군, 독재자, 배신자, 위조자, 자살자, 교회 박해자, 약자를 괴

82. 마태 13,24이하.

83. 진노의 날(Dies irae) 부속가에서 발췌.

롭힌 사람, 살인자, 이단자, 교회 분열자, 부도덕한 사람, 악에 완고한 사람 … 카야파, 유다, 카인이 있을 것입니다.

지상에서 많은 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지만, 많은 이들이 영원토록 갈라지게 될 것이며,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갈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생전에 선하게 살아온 이들은 오른쪽에 서게 될 것이며, 중죄인들은 왼쪽에 서게 될 것입니다.

3. 나의 하느님,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날에 나는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뽑힌 이들과 함께 오른쪽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악한 이들과 함께 왼쪽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저를 구하여 주소서, 오 나의 하느님, 그날에 제가 오른쪽에서 있게 해주소서.

성찰 - 그날에 나는 내가 지상에서 좋아하고 선택하며 본받고 추종하던 이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 내가 동료와 모델에게서 본보기로 삼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수호천사의 권고를 따르는가, 아니면 사탄의 충동질을 따르는가?

BM1
75

결심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금언을 깊이 기억하도록 할 것. 선한 이와 어울려 사느냐 악인과 어울려 사느냐 하는 것은 온전히 나에게 달려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더는 나에게 달려 있지 않고 오로지 심판관이신 주님께 달려 있다.

기도 - 오! 주님, 오늘 저는 선택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통회를 통해서 선한 이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한 많은 죄인들이 무죄한 이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의 오른쪽에 설 수 있음을 아오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저를 구하소서. 회

심한 죄인들의 어머니이기도 하신 마리아님, 저를 구하소서.

33.

마지막 심판 Giudizio finale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입니다. 정녕 누리는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고 그분께서는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거기 있는 것들도 모두 기뻐 뛰고 숲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그분께서 오신다,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께서 오신다. 그분께서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성실하게 다스리시리라.”(시편 96,10-13)

1. 마태오 복음(25,31-46)이 소개하고 있는 마지막 선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릴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에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

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들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보았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그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때에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2. 사심판은 개인의 사적인 의무와 연관이 있고, | 공심판은 사랑의 실천면에서 특히 개인의 사회적인 의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정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자녀, 하인, 등등의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시민 사회에서도 타인을 향한 의무가 있으니, 주인과 아랫사람, 노동자, 스승, 동료 등등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 신자는 개인 의무와 공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제로서, 어떤 이는 평신도로서 살아갑니다. 모두가 약자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의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선한 표양의 의무가 있고, 정의와 자비의 의무가 있으며, 기도와 형제적 충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그리스도교 신자는 최소한의 의무가 있고, 수도자는 좀 더 많은 의무가, 사제는 훨씬 더 많은 엄격한 의무가 있습니다.

3. 오 스승 예수님, 당신은 가정에 관련한 의무를 수행하고 가정적 덕행을 실천하는 가장 완전한 표양이십니다.⁸⁴ 이처럼 당신은 또한 인류의 가장 완전한 표양이시고, 자비와 열정, 연민, 기도와 같은 사회적 덕행을 실천하는 가장 완전한 표양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와 스승, 사제, 중재자의 직무를 완전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성찰 - 나의 의무와 가정적 덕행과 사회적 덕행에 관해 그분

84. DF(39항 이하)의 “길이신 예수” 항목에서 “예수님은 모든 이에게 쉽고도 거룩한 귀감이 되신다”를 참조할 것. 알베리오네 신부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천상 스승께 기도하도록 초대한다. “매순간 당신의 가난, 정결, 순명의 발자취를 따라 걷게 하소서. 다른 모든 길은 넓으나 당신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가르쳐 주신 길이 아닌 모든 길은 무시하고 미워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저도 원하오니 제 뜻 자리에 당신의 뜻이 있게 하소서.” 가정적 덕행에 관해서는 DF 42항을 보라. “사생활은 순명, 기도, 희생, 가정적인 덕이라는 신비스러운 고리이다.”

이 심문하시면 나는 무어라고 대답할 것인가? 특히 굶주린 이와 목마른 이, 병든 이, 가난한 이들을 향한 자비의 덕행에 관해 심문하시면 나는 무어라고 대답할 것인가?

결심 - 사랑의 의무에 관해 양심성찰을 더욱 섬세하게 할 것. | 특히 나의 신분에서 따른 사랑의 의무에 관해 더 세세하게 성찰할 것.

BM1
78

기도 - 오! 예수님, 당신의 심판 말씀이 얼마나 많이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당신께서 이웃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지나치지 않으심에 대해 마치 제게 해주신 것처럼 여기겠나이다. 그리하여 저 자신이 빛을 진 사람처럼, 불행에 빠진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자비를 베풀겠나이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 저는 최후 심판 때에 당신의 자비를 입어 관대한 선고를 받으리라 기대할 수 있나이다. 청하오니, 오 예수님,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을 제게 주소서.

34.

지옥 - I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마태 13,41-43)

1. 지옥은 대죄 중에 죽은 이들이 처벌받는 장소이자 처벌받

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관한 내용은 우리 종교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를 느끼게 하는 교리입니다.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진리입니다. 동시에 많은 이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얻게 해 주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천상 스승께서는,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질 것이며, 부도덕한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길에 태워질 것이고, 탐욕스런 부자는 죽은 후에 지옥에 떨어질 것이며, 이웃에게 자비를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⁸⁵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마태 5,30; 9,48)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마르 9,48)

BM1
79

2. 지옥의 첫 번째 형벌은 상실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 심판 때 사악한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마태 25,41)

죄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Peccatum est aversio a Deo”⁸⁶ 됩니다. 그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영원으로 들어간 후에는 더는 그분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실의 형벌은 형벌 중에서 가장 두려운 벌입니다. 이는 최고

85. 마태 12,31 참조.

86. 성 아우구스티노의 표현(성토마스에 의해 재인용됨).

의 선이신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영원으로 들어간 후에는 모두가 바라는 단 한가지의 열망만을 지니는데, 이 열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초자연 세계로 들어 올려져서 하느님을 향하는 강력한 마음을 느끼게 되나, 지옥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마음을 영원토록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혼은 그분을 향해 달려가고 싶겠지만, 하느님은 거절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영혼의 흑심이 클수록, 그리고 영혼의 죄가 엄중할수록 그만큼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3. 이제 알겠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당신의 위협적인 말씀을. “악인은 이를 보며 울화를 터뜨리고 이를 갈며 스러지는구나. 악인들의 욕망은 허사가 되는구나.”(시편 3,10)⁸⁷ | 제가 지옥의 고통을 묵상할 때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루카 16,24)라는 영원한 탄식이 들려옵니다.

BM1
80

성찰 – 혹시라도 나의 태만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대죄를 범한 적은 없는가? 나는 죄의 위협에 나 자신을 방치한 후 이에 대해 괴로워한 적이 없는가?

결심 – 구원방기를 갈망할 것. 그리하여 죄로 이끄는 모든 기회를 피할 것.

기도 – 저 자신이 지옥의 영원한 벌에 던져지기보다 차라리 제 손과 발을 잘라 버리고, 제 눈을 빼어 버리게 하소서.⁸⁸ 지옥

87. 정확하게는 시편 112(111),10이다.

88. 마태 5,29 이하 참조.

불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그 무엇이 제게 있다면 깨닫게 해주소서, 오 성령이시여. 이것이 손, 발, 눈과 같이 제게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제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소서. 오 나의 유일한 참된 선이시여, 영원토록 당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소서, 오 유일한 행복이시여.

35.

지옥 -II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마르 9,43-47)

1. 지옥 선고를 받은 영혼은 고통스러운 형벌로 공포를 느끼면서 영원토록 다음과 같은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 알폰소 데 리구오리에 따르면, 그러한 묵상 주제는 특별히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BM1
81

가) 내가 지옥 형벌을 받는 이유는, | 야심과 욕설, 외설적인 말, 임종 때 타인에게 넘어가고 마는 약간의 재산 등과 같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속된 것이어서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

하는 것들 때문입니다.

나) 조금만 더 수고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며, 죄지을 기회를 피했다라면 나는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실천했던 것처럼 내 신분이 요구하는 의무를 완수하는 것으로 나는 충분히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리) 그럼에도 나는 여기 지옥의 파멸에 빠졌습니다. 부당하게 그리된 것이 아니고, 타인의 탓도 아니며, 은총과 배려가 부족한 것도 아니며, 오로지 나 자신의 잘못으로, 나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그리되었습니다.

미) 이러한 지옥의 파멸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것이어서, 늘 지옥불에 휩싸여 결코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2. 마지막 순간인 영원에서 의인들은 자신을 괴롭히던 악인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악인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경악하여 벌벌 떨며, 선한 이들이 예기치않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슬픈 마음으로 후회하면서 속으로 다음과 같이 투덜거릴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괴롭히던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들은 미쳤고,⁸⁹⁾ 그들의 말로는 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 단정지었는데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들과 성인들 사이에서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속은 것이다. 죄와 파멸의 길 위에서 쓸데없이 헛수고만 하였구나. 교만, 오만, 재물, 이것들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모든 것이 그림자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89. 지혜 3,1 이하 참조.

마는데 … 죄인들은 지옥에서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과연 사악한 이의 희망은 바람 앞의 검불과 같고, 공중에서 흩어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 곁에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BM1
82

3. 지극히 자비로우신 나의 하느님, 당신 발 앞에 엎드려 비나이다. | 지금 저는 어디에 있나이까?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모두 당신의 자비 덕분이옵니다. 그러나 오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자비에 자비를 더해 주시어, 제가 살아 있는 동안 죄의 위협을 깨닫게 해 주시고, 제때에 회심할 수 있게 해주소서. 저를 구해주소서, 오 나의 성모 마리아님.

성찰 - 나는 나 자신을 파멸의 위협에 빠트리는 어떤 집착과 욕망, 나쁜 습관을 지니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완전하게 구원받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본받고 있는가? 나는 심판 날에 무엇을 말씀드릴 것인가?

결심 - 지배적인 욕망을 극복할 것. 이 욕망은 그 무서운 감옥으로 나를 유혹하는 올가미임을 명심할 것.

기도 - 주 나의 예수님,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을 빌어 당신께 비나이다. 제가 살아 있는 동안 온갖 벌과 고통을 모두 겪게 하시어, 그로써 영원한 한탄 속에서 저를 구해주소서. 당신의 징벌에 대한 큰 두려움을 제 안에 심어주소서. 이곳에서 잘라내고 태우고 벌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영원에서 저를 구해주소서.”⁹⁰ “저희

90. “Hic ure, hic seca, hic non parcas, ut in æternum parcas.”(성 아우구스티노)

를 구하소서, 주님,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오 주님. 심판 날에, 저희를 구하소서, 오 주님, 우리 영혼과 형제들의 영혼, 이웃들의 영혼과 은인들의 영혼을 영원한 파멸에서 구해 주시기를 청하나이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⁹¹

36.

지옥 -III⁹²

BM1
83

“무법자의 모임은 삼베 조각 묶음과 같아 그들의 말로는 불꽃처럼 스러진다. 죄인들의 길은 편편한 돌로 깔려 있지만 그 끝에는 저승의 구렁텅이가 있다.”(집회 21,9-10)

1. 육신은 악에서처럼 선에서도 영혼과 함께하는 동행자이고, 또한 처벌과 보상도 영혼과 함께 받는 동행자입니다. 감각의 형벌은 실제적인 고통이며, 하느님께서 징계 도구를 통하여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감각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육신에서 분리된 영혼 또한 똑같이 겪으며 사탄들도 그러한 고통을 받습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 고통의 장소, 감옥, 유향 못,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둠, 불구덩이, 불가마, 불못,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너머에 육신에 대한 형벌, 감각에 대한 형벌, 온갖 형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불길의 형벌이 있다고 말합니다.

91. 성인들의 위령기도에서.

92. 초판 제목은 단순히 “지옥”으로 되어 있다.

2.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육체의 모든 것이 실제로 직접 불타는 고통을 겪을 것이지만, 우리는 상세한 내적 본성을 알지 못합니다. 살아서 나쁜 욕망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불길이 아니라, 악인에게 형벌을 주고 처벌할 수 있는 능력 *Cruciare*⁹³을 손안에 쥐고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지혜로운 불길’, 이것은 정의로우신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며, 인간의 감각과 인간 기능을 더 집중적으로 불태우는데, 대부분 죄를 범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BM1
84

‘활활 타오르는 강렬한 불길’,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불길보다 더 강렬한 불길이며, 세상의 불길은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허락하신 것이지만, | 활활 타오르는 강렬한 불길은 오로지 형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불길입니다.

‘영혼과 육신을 관통하는 불길’, 영혼의 모든 능력과 육신의 모든 감각을 파고드는 불길이며, 성 아우구스티노가 말한 것처럼 “참으로 갑작스럽게 *miris et veris modis*”⁹⁴ 태워버리는 불길입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는 지상의 재화에 집착하여, 하느님보다 그 재화를 더 선호하게 되고, 지상의 재화를 그분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적 재화 때문에 사람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바로 그것들로 징벌도 받는다.”(지혜 11,16)

사람은 시각적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지옥을 ‘바깥 어둠’이라고 하고, ‘영원히 마련되어 있는 짙은 암흑’이라고 합니다.

93. 라틴어 *cruciare*(십자가에 매달다)는, 이탈리아어 고통을 당하게 하다(*far soffrire*), 학대하다(*tormentare*)를 의미한다.

94. 성 아우구스티노, *De civitate Dei*, I, XXI, c.10.

지옥에 빠진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을 소스라치게 만드는 것들만 보게 될 것이며, 그 나머지는 온통 아주 짙은 어둠뿐입니다.

그리고 썩어 문드러진 시체들의 악취 때문에 사람은 후각적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비명을 지르는 소리, 저주하는 말, 겁에 질려 탄식하는 소리 때문에 사람은 청각적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또 다른 고통은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으므로 아무리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도 마시거나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꾸러기 부자는 지옥에서 물을 좀 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3. 오 예수님, 나의 선하신 스승이시여, 당신의 피와 당신의 죽음은 나의 희망입니다. 당신의 죽음이 저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당신 수난의 공로를 통해 저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⁹⁵ 그럼에도 저는 참으로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성찰 - 나는 눈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는가? 나는 귀로 죄를 범한 적이 없는가? | 나는 코로 죄를 지은 적이 없는가? 나는 먹는 것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는가? 나는 만지는 것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는가? 내가 받을 만한 형벌(처벌)들을 생각해 보았는가?

BM1
85

결심 - 나의 육체적인 감각을 그분의 뜻으로 십자가에 못박을 것.

기도 - 저는 당신 말씀을 기억하나이다, 오 주님. “저마다 수

95. 이탈리아어 *Chi più di me ha partecipato*는 참여가 아닌, 은혜를 입은 사람들(*beneficiario dei*)을 뜻한다.

고한 만큼 자기 샅을 받을 뿐입니다. …⁹⁶ 권력자는 더 많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 죄인이 자신의 욕망을 채웠던 그만큼 형벌도 한층 더 가혹할 것입니다.” 만일 제가 중죄를 짓고 죽는다면 어떤 지옥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는지요? 오 성령이시여,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아주 고귀한 선물을 제게 주소서.

37.

천 국

“우리의 이 지상 천막집이 허물어지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건물 곧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천막집에서 우리는 탄식하며, 우리의 하늘 거처를 옷처럼 덧입기를 갈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천막을 벗더라도 알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 속에 살면서 무겁게 짓눌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천막을 벗어 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을 생명이 삼키도록 말입니다.”(2코린 5,1-4)

1. 천국은 지고의 지복직관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지복직관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선한 천사들과 의인들은 하느님을 초자연적으로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은 지복직관이 이루어지는 곳”⁹⁷이라고 교부들과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에 대하여

96. 1코린 3,8.

97. ‘곳’이라는 명사는 어떤 공간의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때,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 신학자들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복되신 동정녀와 성인들, 선한 천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 천상의 지복은 직관, 사랑^{amore},⁹⁸ 영원한 희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피곤과 노고의 종착지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생명은 참된 생명, 영적 생명, 천상 생명을 지칭하고, 영원한 끝이 없고, 죽음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상급’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충실한 이들에게 주시는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느님과 나누는 성찬’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과 친밀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묵시 3,20) 또는 ‘정의의 월계관’이라고도 합니다. 살아서 영적 투쟁을 아주 잘 해낸 이들에게 거룩한 약속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영광, 명예, 광채, 하늘나라, 지복직관^{visione}, 천상 예루살렘, 즐거움, 영원한 빛, 행복, 지복, 하늘 본향, 영원한 영광, 하늘이라고도 말합니다.

98. 단순 착오로 보임. ‘사랑’이 아니라 ‘소유’로 바꾸어야 맞다. 알베리오네 신부의 보다 완성된 전망에서 살펴보면 삼중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느님을 지각함(정신-믿음의 완성형), 하느님을 소유함(의지-희망의 완성형), 하느님을 음미함(마음-자비의 완성형)이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그는 자주 ‘소유’를 ‘사랑’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BM1
87

3. “저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천상 스승님, 제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소서. 저 위에서는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 동정 마리아, 성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저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는 귀양살이로 잠시 머물뿐, 천국을 향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위에 영원한 거처를 마련할 것입니다.

성찰 - 기차를 탈 때 기차의 좌석을 이용하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나는 나 자신을 순례자라고 생각하는가? 세상의 것들을 사용할 때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가?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는가? 집착하지 않으며 살아가는가?

결심 - 마음을 드높이! 내 마음을 언제나 하늘로 향할 것!

기도 - 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사도 성 바오로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제게 새겨주소서.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⁹⁹

99. 1코린 7,29-31 참조.

38.

천국: 복된 직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1요한 3,2)

1. 천국은 하느님을 마치 그분 안에 있는 것처럼 명료하게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영혼은 그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오로지 피조물을 통해서만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 피렌체 공의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례를 통해 원죄의 사함을 받은 영혼은 다른 죄로 얼룩지지 않았거나 완전히 정화되었다면 임종하는 즉시 곧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한분이시고 삼위이신 하느님을 마치 그분 안에 있는 것처럼 명료하게 직관할 것입니다.”¹⁰⁰ 천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늘 바라보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 바오로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렵듯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1코린 13,12)라고 말합

BM1
88

100. 피렌체 공의회, 1439-1445, “그리스인들을 위한 교령”.(벤징거-휘너만,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선언 편람」, 다국어판, 1995, 1305번)

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직관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얼굴에서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성,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 모든 성인들, 자연계의 모든 진리, 누렸던 은총, 그리고 우리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2. 하느님을 직관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¹⁰¹ 교회가 가르치는 신비와 진리를 믿는 사람은 언젠가 기적처럼 명료하게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영광을 얻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계명과 교리,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세례 때 선물로 받은 것으로서,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종교교육으로 함양되어야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¹⁰² 그러므로 지상에서 믿음을 공부하고, 동의하고, 고백(증거)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루카 12,8)

BM1
89

3. 저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101. 이것은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자주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유념해야 할 것은, 믿음을 단순히 신적인 덕행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진리이신 예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믿음을 통해 하느님의 지혜에 참여하고, 하느님과 일치됨으로써, 하느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가 되고 하느님의 정신은 우리의 정신이 됩니다. ...”(이 책 97항 참조)

102. “nosse, credere, profiteri”.

믿나이다. 저는 하느님의 외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그분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수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시어 하느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음을 저는 믿나이다. 저는 성령과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고, 성인들의 통공과 죄사함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성찰 - 나는 믿음의 진리를 공부하고 있는가? 나는 마음속 깊이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자각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가?

결심 - 하느님의 말씀과 책을 통해 믿음의 진리를 함양할 것.

기도 - 주님, 제 믿음을 성장시켜 주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당신 마음에 들 수 없나이다.¹⁰³ 제가 당신께 가까이 나아가고 영적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나이다. 나의 하느님, 가톨릭교회의 품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마음을 다하여 당신께 감사드리오며 제 믿음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나이다.

39.

천국: 하느님의 사랑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

103. 히브 11,6 참조.

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어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묵시 21,1-3)

BM1
90

1. 지고의 선이신 하느님 안에 영혼이 정겨운 침묵으로 머물 때 감미로운 황홀감과 형언할 수 없는 일치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 황홀경으로 인하여 복된 자들은 하느님께 고취되고 흡수되어 생각과 근심과 자애심 등과 같은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복된 자들은 오로지 하느님으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하느님의 선에 깊이 머물면 머물수록 복된 자들은 그만큼 강력하게 하느님과 결합됩니다. 몇몇 신비가들은 이것을 허기진 아기의 상태로 비유하곤 합니다. 엄마 젖을 힘차게 물고 다른 것에는 일절 신경 쓰지 않는 아이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또는 천상 신랑의 품에 안기는 거룩한 신부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적 본성에 대한 송고하고 감미로운 관상을 통해서 생겨나는 일체감을 의미하는데, 신적 생명에 밀착하여 끊임없이 모방하고, 신적 의지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변모를 뜻하기도 하는데, 그분에 대한 사랑의 불에 완전히 녹아버려 신성의 절대 심연으로 침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침잠하지만 그분과는 구별됩니다.

2. 하느님을 소유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실천해야 이를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일치하여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무한히 선하신 하느님을 소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무한히 풍요로운 선이시므로, 인간의 모든 소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달콤하고 완전하며, 즐겁고 빛과 선으로서 영원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계명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¹⁰⁴ |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나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들에서 나타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바라십니다. 자주 다음과 같이 되풀이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BM1
91

3. 주님, 큰 은총을, 은총 중에서도 가장 큰 은총을 당신께 청하나이다. 당신을 사랑하는, 아주 많이 당신을 사랑하는, 생명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는 은총을 제게 주소서. 가장 큰 덕행은 사랑입니다.(1코린 13,13 참조) 사랑은

104. 이것은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즐겨 애용하는 주제들 중의 하나이다. DF에는 영원한 법을 하느님 뜻의 표현으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하느님의 뜻을 송고한 법이며 가장 큰 사랑의 행위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거기에 일치시켜야 한다.”(DF, 19항)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신자들을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것이므로, 각 신자는 하느님의 뜻을 가장 큰 사랑의 행위로 알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신앙인은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어 그 뜻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한다. 나중에 이러한 전망은 길이신 예수님께 바치는 기도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저도 원하오니 제 뜻 자리에 당신의 뜻이 있게 하소서.”(DF, 40항)

영원토록 지속되는 덕행입니다. 이 사랑을 제게 주소서. 오 성령 이시여, 당신은 성부와 성자의 불이십니다. 제 안에 이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제 삶의 전부를 불태워서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찰 - 나의 사랑은 참된 것인가? 사랑을 실천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가?

결심 - 매일 사랑의 실천을 자주 행하겠다.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늘 청해야 할 가장 큰 은총이고 가장 큰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청하는 이에게 주시리라고 나는 믿는다.

기도 - 주님, 저는, 무한한 선이시며 저의 영원한 행복이신 당신을 마음을 다하여 만물 위에 사랑하나이다. 저는 제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저를 모욕한 사람을 용서하나이다. 제게 은총을 베푸시어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한층 더 당신을 사랑하는 은총을 베풀어주소서.

BM1
92

40.

천국: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천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되지 않을 것이다. 어좌 한가운

데에 계신 어린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묵시 7,15-17)

1. 하나님은 그 자체로 복된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신성에 참여하도록 창조된 영혼은 하나님의 기쁨에도 참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마태 25,21)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요한 16,22)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그러한 기쁨을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다.”(루카 22,29-30)

복된 이들은 어떠한 슬픔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묵시 21,4)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을 즐기고, 당신으로 기쁨을 느끼고, 당신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참된 삶입니다.”¹⁰⁵(『고백록』, 10권, 22장) 참으로 갈망하여 성취한 기쁨은 위로가 됩니다.

2. 복된 이들은 마음의 정당한 바람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충분하고도 가장 완전한 모든 즐거움을 발견할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종합적이고 완전한

105. “Et ipsa est beata vita, gaudere ad te, de te, propter te”.

덕행, 하느님 곁에서 그리고 피조물 옆에서 누리는 참되고 드높은 영예와 영광 등을 발견할 것입니다. 복된 이들은 특히 지극히 숭고한 영광의 하느님과 대단히 영예로운 성인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선보다 타인의 선으로 누리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은 참된 즐거움이요, 유일하고 완전한 기쁨입니다.

BM1
93

하느님을 찾기 위해 지상에서 전심으로 노력한 사람은 하느님을 향유할 것입니다. 묵상과 성체조배를 하면서 기도로 하느님께 즐겨 머무는 사람, 하느님께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줄 아는 사람, 특별히 영성체할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참되게 받아 모시는 사람, 마음의 밀실에서 주님과 의 일치와 내적인 친밀감을 형성하여 추구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향유할 것입니다.

3. 주님, 기도의 정신과 미사성체에 대한 열정과 성체를 자주 모시고자 하는 신심을 제게 주소서. 오 천상 스승이시여, 당신은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안에 현존하시어, 당신을 찾는 모든 이들이 당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을 뵈게 하여 주시며, 당신의 은총을 모든 이에게 베풀어주소서.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잊고 사는지 모르나이다!

성찰 - 나는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가? 나는 성체조배를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가? 나는 자주 그분과 대화하는가? 나는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가?

결심 - 짧게라도 매일 성체조배를 할 것. 이것은 후세에 하느님의 현존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보습수표이다.

기도 - 성체이신 주 예수님, 저의 열정이 식었으므로 당신 사랑의 불로 저를 뜨겁게 주소서. 당신과 친밀한 사람들이 성체조배를 열심히 할 때 당신은 위대한 선을 가르쳐 주시고 베풀어 주셨나이다. 성 알폰소 데 리구오리, 성 루이지 곤자가, 성 프란치스코 레지스,¹⁰⁶ 성 베드로 올리아노 에이마르¹⁰⁷는 바로 그 위대한 선을 깨달았나이다. | 저를 또한 훈련하시어 당신께 나아가게 주소서. 제가 죽기 전에 철저히 저를 단련하시어 저의 모든 것을 차지주소서.

BM1
94

41.

영원¹⁰⁸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마태 25,46)

1. “심판관이신 하느님께서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라는 말씀을

106. San Francesco Regis Clet. 1748년 그레노블(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성 빈첸시오 드 폴이 파리에 설립한 선교수도회에 입회하였다. 몇 년 후 자원하여 중국 선교사로 떠났으며, 1819년에 순교하였다.

107. 1962년에 시성됨.

108. DFms 31 참조. “1. 영원은 끊임없는 생명을 온전히, 한꺼번에, 그리고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다(*interminabilis vitae tota simul et perfecta possessio*). 인간적인 예측을 한다 해도 영원이 무엇인지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불 속(*Vitam aeternam, ignem aeternum*). 2. 저 세상으로 건너간 사람들 중에 축복받은 이들은 그들 뜻인 최대의 평온을 누리면서 매순간 영원히 충만한 기쁨을 향유한다. 저주받은 이들은 무서운 절망뿐 아니라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의 중압감을 한꺼번에(*tota simul*) 영원히 짊어 져야 한다. 예를 들면 평평한 탁자 위에 놓혀져 납으로 된 포환으로 내리누르는 듯한 중압감이다. 3. 영원은 우리 영혼에 대단한 자극이 되어야 한다. 영원이 위협에 놓일 경우,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충분치 않다(*nulla nimia*

듣는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자들이며, 영원한 불 속에서 끊임없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관이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복된 이들이며, 하느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라고 성 이레네오는 말합니다. 하느님은 영혼을 창조하셨으며, 그 영혼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 끝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몸이 영혼과 함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선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질 것이며, 악인은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느님처럼 영원할 것입니다. 만일 기쁨에 끝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벌에 끝이 있다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이 참되게 복된 곳이라면 기쁨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고, 지옥이 절망의 심연이라면 저 아래는 결코 고통의 끝이 없을 것입니다.

2. 형벌이 아무리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라도 길게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무거운 형벌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수술받을 때의 고통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벌이 아주 길고 끝이 없다면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사라지지 않는 엄청나게 무거운 고통이 됩니다. 몇 주, 몇 달, 몇 년간 산책과 같은 것을 통해 받는 위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기에 오히려 | 더 가혹한 고통으로 뒤바뀔 뿐입니다.

BM1
95

securitas ubi periclitatur aeternitas). 영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다. 인간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야만 한다(ibit homo in domum aetertatis suae). 삶은 영원을 준비하는 것인데,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희생을 치른다 해도 자신을 구원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웃으면서 자신을 멸망시킨다.”

지옥에서는 인간의 감각이 고통의 벌을 받고, 인간의 모든 감각 기능이 고통을 겪으며, 육신 전부가 불 속에 잠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옥에서 타오르는 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몇 세기나 몇 십억 세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죄인은 그곳에서 결코 불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으며,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고통이 완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영광 또한 영원합니다. 영혼이 더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며,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복된 이는 영원토록 행복을 향유할 것이고, 마치 매순간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영원토록 활기가 가득할 것입니다. 늘 기쁨에 목마르지만, 또한 늘 채워질 것입니다. 복된 이들은 만족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¹⁰⁹(1테살 4,17)라고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3. 주님, 그러니 영원히 타오르는 불 앞에서 한순간의 만족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한순간의 만족감이 평생 지속된다 하더라도 수십억 년과 수십억 세기 동안 누리는 형언할 수 없는 황홀함에 비하면 백 년의 기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찰 - 부적절한 쾌락을 맛볼려고 할 때, 한순간의 쾌락이 영원한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109. “Sic semper cum Domino erimus.”

성인들은 지혜롭고, 사리에 밝으며 현명한가, 아니면 사악한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성격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수효는 끝이 없다고 말한다. 혹시 내가 여기에 속하지는 않는가?

BM1
96

결심 - 다섯 명의 슬기로운 처녀들과 다섯 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의 비유 이야기를 기억하고,¹¹⁰ 죄의 위험을 경계할 것.

기도 -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제게 지혜로움을 주소서. 분별의 은혜를 제게 내려주소서. 제가 용기를 내어 선을 위하여 일할 줄 알게 하시고, 보상으로 영원을 획득할 줄 알게 하소서.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처럼 하느님은 우리 소망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그분을 뵈게 될 것이며, 아무런 망설임없이 그분을 사랑할 것이고, 기꺼이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평온을 얻을 것이며, 지고의 선이신 그분을 관상할 것입니다. 보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42.

성격 : 천성

“이름은 큰 재산보다 값지고 명성은 은보다 금보다 낫다. 서로 마주치는 부자와 가난한 이, 이들을 모두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영리한 이는 재앙을 보면 몸을 숨기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가다가 화를 입는다. 겸손과 주님을 경외함에 따른 보상은 부와 명예와 생명이다. 빛간자 자의 길에는 가시덤불과 덩이 있어 제 목숨을 지키려는 이는 그것들을 멀리한다.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잠언 22,1-6)

110. 마태 25,1-13 참조.

1. 성격이란, 한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된 성향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표지이고, 특히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행동하는 인간의 사회적인 능력을 지칭합니다.

좋은 성격은 축복이고, 나쁜 성격은 회초리입니다. 좋은 성격의 사람은 순수하고, 온순하며, 친절하고, 이타적이며, 단순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맑은 눈을 가지고 있으며, 배려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며, 이웃에게 행복감을 전파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의 만남에는 단정짓는 법이 없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모두가 그를 신뢰합니다.

나쁜 성격의 사람은 어둡고 사나운 날씨와 비슷합니다. 두려움을 조장하고 독설을 내뱉거나 증오심에 가득찬 말을 자주 합니다. 그의 영혼은 평온하지 못하며, 질투와 야심, 예민한 감정에 휘둘립니다. 인간의 욕정이 사람을 지배하여 거칠고 난폭하며 빈정거리는 말을 쉽게 내뱉곤 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품고 거의 야만적입니다. 기쁨은 아주 적고, 대부분 폭풍이 몰아칩니다. 모두가 이러한 성격을 회피합니다. 드물게 몇몇 사람이 이러한 성격의 사람들을 동정하거나 모험하듯이 견뎌냅니다.

BM1
97

2. 좋은 성격의 사람은 생산적이고 온화하며 호의적이고¹¹¹ 친절함의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스러움을 해소하고, 분노를 진정시키며, 반감을 완화시킬 줄 압니다. 고충을 들어주고 위로해 줍니다. 평정심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줄

111. 원문의 *persuasive insinuazioni*는 라틴어 어원에 따라 긍정적인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생각들을 전하다, 또는 소개하다, 호의에 대한 평가 등.

알고, 처음에 어렵게 사랑했다가 고충을 겪고 있는 이들도 다시는 헤어지지 않도록 일치시켜 줍니다. 모두가 그를 가까이 하며 충고를 기꺼이 듣고, 그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나쁜 성격의 사람은 식초와 같습니다. 선을 실천할 줄 모르며 단지 필요할 때만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갑니다. 마음을 닫고 살며, 공동체와 학교, 단체, 가정, 교실에서 인간질을 일삼습니다. 분란을 일으키며, 좌절과 무관심을 조장합니다.

3. 좋은 성격의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낙천주의자들은 행복합니다!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망과 신망을 얻는 것 외에도 | 내적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밖으로 넘쳐 흐르는 평화는 먼저 그들의 영혼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BM1
98

반대로 나쁜 성향은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불행합니다. 그가 만들었고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시들은 그의 신경을 자극합니다. 사실 그는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기 보다는 자신이 더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찰 - 나는 나의 성격을 통제하는 데 얼마나 많이 실패하였는지 모른다! 내적 번뇌는 얼마나 많은지! 나는 전심전력을 다해 나의 완고한 마음을 거슬러 싸웠던가? 내 인생은 나에게 무어라고 말하는가? 현재의 나는 어떠한가? 나는 나의 성격을 고치고 수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결심 - 오늘부터 좋은 성격 또는 나쁜 성격이 가져오는 결과

에 대해 속고하도록 한다.

기도 - 오 예수님, 당신께서 너그러움과 온유함으로 모든 이를 대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나이다, 수많은 군중들, 어린이들, 불구자들과 병자들이 당신을 둘러쌌다. 저는 당신의 학교에서 아직도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완고하고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오 주님, 회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저는 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회적 덕행이 저의 커다란 공로가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이 위대한 공로를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살펴 주소서.

43.

성격 : 좋은 성격의 천성

BM1
99

“그릇된 입술을 가진 우둔한 자보다 가난해도 흠 없이 걷는 이가 낫다. 지식이 없는 욕망은 좋지 않고, 발걸음을 서두르는 자는 길을 그려준다. 사람은 미련하여 길을 망치고서도 마음속으로는 도리어 주님께 화를 낸다.”(잠언 19,1-3)

1. 좋은 성격은 사회적 덕행의 총체이며,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랑에 대해 성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

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건디어 냅니다.”(1코린 13,4-7)

좋은 성격은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건디어 냅니다. 결인, 무지한 이, 소박한 이, 악인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멸시, 빈정 거림, 앙심, 망각, 무관심, 냉소에도 불구하고 모욕하지 않습니다. 모욕한 이들을 용서하고, 존중하며,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자들을 축복해 줍니다.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Vince in bono malum.”¹¹² 소신있게 자신의 길을 가며, 늘 큰 신뢰를 갖게 하며, 스스로 자신을 돌볼 줄 알고, 타인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2. 좋은 성격의 사람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경계하여 말과 행동에 늘 조심합니다.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언행에 주의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거만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그의 교류는 사려 깊고 교양있게 처신합니다. 그는 친분을 많이 쌓지는 않지만, 깊은 소양을 바탕으로 분별력있게 친분을 쌓아갑니다. | 그는 권위적이지 않고, 경박하지 않으며,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행동과 말을 절제할 줄 압니다. 그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염두에 둡니다. 장상들을 존경하며, 그러나 아첨할 줄 모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대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또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는 소외받는 이들을

112. 로마 12,21.

위한 변호인이 되어 줍니다.

3. 좋은 성격의 사람은 타인의 행복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는 창의적이고 준비성이 있으며 관대합니다. 타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금합니다. 타인에 대해 좋게 여기며, 타인의 선의를 진정으로 바라는 습관은 그로 하여금 참된 선함, 변함없는 성실함, 평온함을 지니게 해 줍니다. 적시에 위로의 말을 할 줄 알며, 타인의 기쁨에 함께할 줄 알고, 약자의 필요성을 알아차리며 배려할 줄 압니다. 봉사할 때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봉사에서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봉사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유쾌하게, 사심없이, 예의바르게 봉사합니다.

성찰 - 앞서 인용한 성경구절에서 성 바오로가 언급한 바 있는 좋은 성격의 표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한다. 내 양심은 그러한 표지들에 대해 무어라고 대답하는가?

결심 - 내 성격의 주된 결함을 늘 조심하며 사회적 사랑의 덕행을 쌓도록 한다.

기도- 주님, 저는 이상적인 인격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모릅니다. 제 묵상의 모든 논점과 모든 관점은 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 오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러한 본을 따라 수양된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십니다. 신심실천과 애덕과 내적 덕행이 없는 외형적인 종교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걸치레한 종교심은 그리스도교를 사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주님, 제가 저를 알게 하소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소서.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일하게 하소서.

44.

성격 : 인격 수양

“네 이름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름이 황금덩이 천 개보다 오래 남는다. 행복한 삶은 그 날수가 정해져 있지만 좋은 이름은 영원히 남으리라. 자녀들아, 받은 가르침을 평화롭게 지켜라. 감추어진 지혜와 보이지 않는 보물 이 두 가지가 무슨 유익을 가져다주겠느냐?”(집회 41,12-14)

1. 낳아준 부모, 자라온 환경, 받은 교육은 기질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은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의 성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의지로 계속 싸워야 하겠지만 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승리하며, 승자가 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나는 일관성있는 지속적인 행동으로 내 성격을 형성해가고, 조절하며,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하고, 나의 성향을 알아야 합니다.

BM1 102 주된 경향들은 쉽게 나타납니다. | 이것은 일상적으로 의지를 주도하고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감각한 사람들의 경향입니다. 게으름, 나태, 안일함, 무관심, 비정함, 비열함, 하느님 경외심의 결핍, 이웃 존중의 결핍, 자존감 결핍이 바로 그러합니다. 두 번째는 폭력적인 사람들의 경향입니다. 교만, 질투, 성급함, 경솔함, 자제력 부족, 야비함, 독선이 바로 그러합니다.

2. 두 번째로 나의 성격을 바르게 형성하려면 인격 수양에 힘써야 합니다.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 매진하고자 하는 결심을 다지고 나서, 기회가 닿는 대로 선하고 덕스러우며 사려깊은 삶을 살아가고자 자신을 조절하거나 촉구해야 합니다.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침기도와 묵상 시간에 나의 영적 작업 계획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 일과 중에 자주 그 계획을 되돌아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계획 실현을 다짐해야 합니다. 넘어질 때는 주님께 “이 노예살이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하고 간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다음 날은 기도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주님, 당신의 은총으로, 저는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나이다.”

3. 세 번째로 항구하고도 진지하게 작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 초기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용기를 잃어버리고, 손을 놓아버리며, 결심과 임무 수행,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제력을 항구하게 발휘하여 나의 성향을 활기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BM1
103

성찰 -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나는 교정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가? 성격을 바꾸는 수단들을 활용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양심성찰을 하고 있는가?

결심 - 주 결심에 관해 양심성찰을 잘 할 것.

기도 - 주님, 당신은 저희 마음과 성향을 알고 계시나이다. 당

신은 원죄가 저희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저희를 치유해주소서.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당신은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오리이다.”¹¹³

당신께 저의 상처를 보여드리오니, 저의 가장 내밀한 나약함을 기억하시고 저를 치유해주소서. 오 제 영혼의 의사이신 하느님이시여.

45.

인간 양성: 양심

“지각 있는 사람은 사려 깊은 생각을 지나치지 않지만, 거만하고 오만한 자는 겁 없이 나서리라. 지각 없이 행동하지 말고, 행동하는 동안에는 마음을 바꾸지 마라. 모든 일에서 너 자신을 지켜라. 이것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집회 32,18-19,23)

1. 양심¹¹⁴은 내 영혼 자체이며, 나의 내적·외적 활동을 숙고하고 조정합니다. 양심은 숙고하는 능력¹¹⁵이 있어서, 나의 행동을 관찰하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또는 금지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나의 영혼에서 울리는 하느님 음성의 메아리입니다. ‘인간의

113. 영성체 전 신자들의 기도. 마태 8,8 참조.

114. 양심 주제에 대해 알베리오네 신부는 1957년 3월에 발행된 「성 바오로」지에 “양심의 증언(Testimonium conscientiae nostrae)”이라는 소논문을 실었다. 이를 「복음을 위한 몸과 마음」, (서울-바오로딸), 313-334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15. 창립자는 ripiegarmi를 ‘반성하다’, ‘정신을 차리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참된 생명’입니다. | 해야 하는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압니다. 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실천적인 판단입니다. 내 존재 깊숙이 새겨져 있으며, 유해한 꿈에서 보호해주는 하느님의 전령사입니다. 넘어지면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멈춰서면 앞으로 나아가도록 부추겨줍니다. 절망에 빠지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격앙될 때는 현실을 의식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해줍니다.

2. 양심은 ‘친절한 안내자’입니다. “음울한 분위기를 경계하라. 그러한 동료, 그러한 독서를 피하라. 그러한 오락은 멀리하라. 생각과 마음을 조심하라. 감정의 변덕스런 움직임에 맞서라.” 양심을 말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양심의 소리를 더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양심은 강력한 ‘제동장치’입니다. 유혹에 휩쓸리어 뜨겁고 격정적인 본능이 난폭한 욕구¹¹⁶에 따라 나설 때, 양심은 그것을 통제하고 억제하며 다스리어 치명적인 타락에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편 양심의 소리가 무시되고 사람이 파국의 비탈길로 미끄러져 갈 때, 양심은 더욱더 큰 소리로 반발하고, 건전한 반응을 일깨워줍니다. 경악할 만한 환상이 지나가고 나면, 양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은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비탈길을 다시 올라가며, 진리와 선의 길을 걸어갑니다.

양심은 진흙탕에 빠진 패배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할 것이며, 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회심하도록 인도해줍니다. 비록 죽음에 직면한 순간일지라도 양

116. 강한 열망들, 갈망들을 뜻한다.

심은 단념하지 않습니다.

BM1
105

양심은 ‘자극제’입니다. 죄인들에게도, 의인들에게도 자극제가 됩니다. 게으름뱅이와 잠꾸러기를 깨우는 자극제가 됩니다. “어찌하여 재능을 무기력하게 방치하는가? 어찌하여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인생을 탕진하는가? 심판의 날이 두렵지 않는가?”

양심은 낙담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일깨워줍니다. “지울 수 없는 얼룩은 없습니다. 하느님은 악인의 죽음을 바라지 않습니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¹¹⁷ 은총과 힘은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3. 나는 침묵의 시간이나 고뇌의 시간에 다음과 같은 음성을 자주 들었습니다. “더욱 고결하게 살아라. 한층 더 열의를 가지고 살아라. 한층 더 마음을 드높이 들어 올려라. 한층 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성찰 - 나는 양심의 소리에 얼마나 가치를 두었는가?

결심 - 자주 잠심의 시간을 가질 것. 내 주변의 소음을 모두 제거하여 내밀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

기도 - 주님, 양심을 통하여 제 존재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당신의 음성을 듣나이다. 음울한 꿈에서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넘어지면 저를 일으켜 주소서. 멈춰 서면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저의 비겁함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며, 저의 나약함

117. 예제 33,11 참조.

을 극복하게 해주소서. 오 주님, 당신의 음성에 온순하게 귀 기울이게 하시어 당신의 경고를 따르게 주소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¹¹⁸

46.

양심: 양심적으로 행동하라

BM1
106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 령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1요한 3,18-21)

1. ‘본분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때 유일한 증거자는 양심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타인이 보든 안 보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인간의 감시는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은 하느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어떠한 임무나 의무, 또는 관심사라도 유념해야 합니다. 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단지 감시받기 때문에, 또는 처벌이 두려워서 행동합니다. 손쉬운 수단을 좇아다니며, 미흡한 수단의 해결에도 만족해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자신을 거스르는 검열 수단이 필요합니다.

경악할 상황은 양심이 바르지 않은 구성원들의 단체인 경우

118. 시편 95,8; 히브 3,7.

입니다. 그 단체의 모든 덕행은 거짓입니다.

2. ‘진리를 속이지 마십시오.’ 반대로 의무를 수행해야 할 때 과감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결코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어떠한 측면에서도 혐오스럽고 유해합니다. 거짓말은 진리 이시며 진리의 애호가이신 하느님을 증오하는 것이고, 정직과 진실을 애호하는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더는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해롭고, 속임수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해롭습니다.

거짓 행동은 말로 하는 거짓말보다 더 해롭고 혐오스럽습니다. 두려움으로 생각과 감정을 숨기면서 속으로는 반대하지만 타인을 편들며 존경하는 표현은 거짓 행동입니다. | 고백해야 할 잘못을, 심지어 고백성사에서까지도 불의한 침묵 속에 감추는 은폐 행위는 거짓 행동입니다. 겉으로만 의롭고 착한 체하며, 거짓으로 꾸며대는 위선은 거짓 행동입니다. 거짓 사실도 거짓 행동에 못지않게 위중합니다. 일과 사람 관계에서 부정직하게 말을 내뱉는 것은 확실한 거짓입니다. 이간질과 배신, 감언이설로 여러 가지 모순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양면 얼굴을 가진 이중성은 확실한 거짓입니다.

BM1
107

3. ‘정의를 속이지 마십시오.’ 오 주님, 정의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존중되어야 할 덕행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이웃이 재물을 소유하고, 자신만의 비밀을 지키며, 대우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물질적 이해 관계에 매달리곤 합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착복, 상해, 권력남용,

횡령을 멀리합니다. 양심이 무딘 사람은 법망을 피해다니며, 불법적인 인허가와 자유의 남용으로 쉽게 범죄행위를 저지릅니다.

성찰 - 나는 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함을 인지하고 있는가? 신용으로 위탁된 비밀을 지켜야 함을 인지하고 있는가? 수도사원으로 인한 비밀을 지켜야 함을 인지하고 있는가? 타인의 약점과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아는가?

결심- 명예는 다른 많은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나는 나로 인하여 훼손될 수도 있는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고, 존중하도록 할 것. 비방과 험담을 멀리할 것! 양심의 결함들을 특별히 대죄로 간주하여 마음에 새길 것.

기도 - 주님, 제가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도록 해주소서. | 온갖 종류의 거짓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제 양심이 결코 저를 책망하지 않게 하소서. 제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당신 음성의 유익한 경고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BM1
108

47.

양심: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

“말하기 전에 배우고 앓기 전에 몸조심하여라. 심판이 닥치기 전에 너 자신을 성찰하여라. 그러면 썸 바칠 때에 용서를 받으리라. 병들기 전에 너 자신을 낮추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회개의 태도를 보여라.”

(집회 18,19-21)

1. 양심적인 사람은 양심에게 묻고, 양심에 귀기울이며, 양심

을 따릅니다. 양심의 소리에 따르는 것은 하느님과 이웃, 그리고 우리 자신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은 우리에게 법규를 주셨고, 영혼에 규범을 새겨주시어 매번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위반할 수도 있는 계명들의 단순한 목록을 참고하시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소리를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는 무지의 실수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양심의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나의 범칙 행위가 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나의 법전입니다.

행위는 인간의 눈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눈은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생생한 믿음과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느님 현존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섬세한 양심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나 자신을 아주 잘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관이신 하느님께서서는 내가 하느님의 법과 행위 사이에 저질러놓은 모순들을 탐문하실 것입니다. 나의 양심이 잣대가 되어 나의 행실을 판단할 것입니다.

BM1
109

2. 이웃과 함께: 양심적인 사람은 존경을 받고, 신망을 얻으며, 진심어린 관계를 맺습니다. 양심이 무딘 사람은 회피와 경멸 대상이 되며, 사회분열의 요인이 됩니다. 양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실수를 범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가정에서도, 사

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로지 올바르게 정직하며 순수한 양심을 지닌 사람만을 신뢰하고, 비밀을 털어놓으며, 의탁합니다. 부부, 부모, 직장 상사, 학교 교사, 재판장에게는 양심이 핵심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억압하는 것을 금하는 계명보다 더 중대한 것은 없습니다.

3. 자기 자신: 나는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악인은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오 하느님, 카인과 유다, 베드로, 막달레나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그러나 카인과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절망에 빠졌고, 베드로와 막달레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았으며,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찰 - 나는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양심의 충고를 요청하는가? 나는 양심을 따르는가? | 내가 양심과 반대로 행동한 결과로 어떤 징벌과 망각, 저항감이 생겨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는가?

BM1
110

결심 - “하느님은 나의 마음과 정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나의 경구로 삼을 것.

기도 - 오 천상 스승이시여, 당신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평화는 이웃과, 나 자신과,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오 주님, 거룩한 원의와 선량한 충고, 거룩한 업적의 샘이시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제게 허락하시고, 선량한 양심에 따라 살아

감으로써 우리나라는 그 평화를 제게 허락하소서.

48.

마음: 연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짓는 사람이고,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는 행복한 사람이다. 악을 꾸미는 자들은 반드시 길을 잃게 되지만, 선을 꾸미는 이들에게는 자애와 진실이 따른다.”(잠언 14,21-22)

1. 우리 자신에 대한 통제는 마음의 통제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선하며,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마음에 평화가 깃들입니다. 마음은 선을 창출하는 탁월한 원천이거나, 악을 발생시키는 증오스러운 기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마음을 인도하거나 제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내 아들이,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¹¹⁹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큰 존경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군가를 애정이 담기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경계합니다. 대신에 섬세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본능적으로 똑같이 반응합니다. 마음은 위대한 동

BM1
111 력입니다.¹²⁰ 이것은 | 교육자와 사도들의 힘입니다. 그들은 사랑

119. Praebe, fili mi, cor tuum mihi.(잠언 23,26)

120. 이것은 아주 효과적인 표현으로, 알베리오네 신부의 다른 글에도 언급되어

하고, 사랑으로 극복해 냅니다.

마음의 움직임은 특별히 네 가지로, 연민, 헌신, 선의, 우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천상 모델에 맞추어 자신의 마음을 가꾸고자 하는 사람은 이 네 가지를 거룩한 마음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2. ‘연민’. 이것은 선한 마음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연민을 자극하고 감동시키며, 연민은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느끼며, 슬픔에 젖어 듭니다. 그리하여 치유하기 위하여 애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 빈첸시오 드 폴은 파리 거리에 나가 고아와 걸인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구호소와 병원, 사랑의 협회, 피신처를 설립하여 버림받은 이들과 약자, 병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재소자들을 위로하고, 위험에 처한 이들을 보호해주며, 전쟁으로 인해 굶주림에 시달리는 군중들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3. 한편, 악한 마음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합니다. 심하게는 고통을 볼 줄 모릅니다. 그는 거만하며,¹²¹ 에리코의 길을 가던 사제처럼 길가에 쓰러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한 척

BM1
112

있다.(『성 바오로』, 1953년 9월-10월 참조; 「복음을 위한 몸과 마음」, (서울-바오로딸), 158쪽; NPS, p.174) 알베리오네 신부가 마음의 역할에 부여하고 있는 중요성과 가치는 아직 개척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그의 전망의 혁신적인 측면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마음은 성경적 개념에 따라 단순히 생명과 생각, 지향의 바탕일 뿐만 아니라, 감정의 바탕이기도 하다. 마음-감정은 기도에서 연결되어야 한다. “기도는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DE, 14항)

121. 거만한, 오만한.

합니다.¹²² 그는 아픈 병자에 대해 연민을 느끼지 못하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지 않으며, 자기의 돈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들의 질병은 무질서한 삶의 원인이라고 비난하는 일을 서슴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태도를 보입니다. 침묵을 지켜야 할 때 오히려 떠벌립니다. 아직 명예를 지켜줄 수 있음에도 암시와 악의적인¹²³ 해석으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이들과 모함을 받은 이들을 짓밟으면서 악마적인 쾌락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주는 커녕, 오히려 더 비통하게 만들고, 악화시킵니다. 타인의 불행이 그의 무관심을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단지 그가 더 잔인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렇게 그는 악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찰 - 두 가지 묘사: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까?

결심 - “저 군중이 가없구나!”¹²⁴라고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것.

기도 - 복되신 예수님, 당신은 저희를 초대하시어 당신의 마음을 본받도록 하셨나이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은 당신의 것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제 안에 당신의 연민과 선하심의 감정을 부여하시어 모든 불행한 이들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소서.

122. 루카 10,30-31 참조.

123. 사악한, 악한.

124. 마태 15,32.

49.

마음: 선의와 헌신

BM1
113

“회중이 너를 사랑하게 하고 웃어른에게 머리를 숙여라. 가난한 이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평화의 인사를 상냥하게 건네어라. 억눌린 이를 억누르는 자의 손에서 구출하고 네가 심판을 내릴 때에는 심약해지지 마라.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고, 그들의 어머니에게 남편 노릇을 해 주어라. 그러면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께서 네 어머니보다 더 너를 사랑해 주시리라.”(집회 4,7-10)

1. ‘선의.’ 선의는 사랑의 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그가 가는 곳이 어디든 아주 온화한 태도로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얻었으며, 행복의 섬광을 사람들에게 선사하곤 하였습니다. 호감은 관계를 호의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먼저 정신적으로 자비롭게 생각하는 습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온화함은 우스꽝스러운 니스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형제들을 좋게 생각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비에서 친절까지 단 하나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마음에서 선한 말, 선한 원의, 친절, 배려, 섬세함이 우러나옵니다.

반대로 악한 마음은 약점을 찾기 위하여 구석구석 뒤지고, 타인의 약한 면을 들추어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질투심은 타인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을 즐깁니다. 온화한 마음을 지닐 줄 모르며, 온화하게 보이고자 하는 노력은 위선일 뿐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많은 이에게 해로운 사람 또는 성가

신 사람으로 치부되어 사람들에게 외면당합니다. 그는 겨울에 불어닥치는 찬바람 같아, 그의 호흡은 영혼들을 얼어붙게 합니다.

2. ‘헌신.’ 헌신은 선한 마음의 관대한 선물입니다. 선한 마음은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압니다. 무엇을 내어놓는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 시간과 돈, 생명, 피를 내어놓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을 성급하게 내치지 않고, 이들을 위해 시간을 충분히 내어줍니다. 그의 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와 구제 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할 정도로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합니다. |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과 힘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점점 더 열심히 봉사하고, 타인을 대신해서 그의 짐을 모두 짊어집니다. 자신의 일은 제쳐두고 타인의 일을 먼저 염려합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기까지 아낌없이 희생합니다. 숫구치는 열정으로 지치지 않고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투신합니다. 마음에 와닿는 것을 위해, 또는 마음을 움직이는 우정을 위하여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의 소유자는 어떤 것이든, 얼마가 되든 개의치 않고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3. 반대로 이기주의는 악한 마음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이기주의는 주는 대신에 가져갑니다.

자신의 시간에 대해 인색하고,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며, 성가시게 구는 이들을 멀리하고, 방문자들이나 도움을 호소하는 이들을 배척합니다. 그는 받는 순간들을 주시합니다. 그 외에는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자신을 위해 금을 쌓아둡니다. 더러는 아무런 배려 없이 정의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의탁하는 순진무구한 사람들을 악용하면서 자신을 위해 금을 축적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노라고 대답합니다. 무리할 정도로 절약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늘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과민할 정도로 신경을 씁니다. 모든 위험을 원천봉쇄합니다. 수고를 모르며, 영웅적인 용기도 없고, 관대함도 없으며,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이기주의자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자랑하며, 봉사합니다.

성찰 - 나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의 표지들을 살펴보면서 나 자신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결심 - 선의와 헌신에서 우리나라오는 마음으로 결정을 할 것.

기도 - 오 성 바오로 사도여, 당신은 사랑으로 모든 이를 위해 모든 것이 되셨나이다. 이토록 이기적이고, 이웃의 불행에 대해 무관심한 저를 위해서도 가까이 보호자가 되어주소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어,¹²⁵ 제 안에 선의와 사랑, 헌신의 마음을 일으켜주소서. 제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본받게 해주소서.

BM1
114

BM1
115

125. DF에 수록되어 있는 천상 스승께 바치는 기도문 참조. “제 마음을 당신의 마음으로 바꾸어주소서. 하느님과 이웃과 저 자신에 대한 사랑을 당신 사랑으로 바꾸어주소서.”(DF, 40항)

50.

마음: 우정

“성실한 친구는 든든한 피난처로서 그를 얻으면 보물을 얻은 셈이다. 성실한 친구는 값으로 따질 수 없으니 어떤 저울로도 그의 가치를 달 수 없다. 성실한 친구는 생명을 살리는 명약이니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런 친구를 얻으리라.”(집회 6,14-16)

1. 우정은 선한 마음의 네 번째 열매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자신의 우정을 바르게 키워 나간다.”(집회 6,17)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한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연민과 헌신, 선의, 감사의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일까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은 사랑이 가득하고, 희생과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선한 마음은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찬바람으로 얼어붙은 사람들을 데워주는 난로처럼 따뜻합니다.

BM1 116 2. 선한 마음은 보상을 받습니다. 사랑한 만큼 거의 언제나 사랑을 받습니다. 더러 그의 애정이 배신의 땅바닥으로 쓰러져 꺾이더라도, 대개는 호의적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서며, 어려움 속에서도 활기를 되찾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린 포기과 고통스러운 배은의 시기를 겪더라도 달콤한 위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악한 마음은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따라서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서서히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습니다. 비록 사회적 상황에서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애정이 없는 관계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는 기댈 곳이 없고, 누구도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흥금을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누구도 그에게 흥금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보호하지 않기에, 그는 아부하는 거짓말에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3. 주님, 제 마음을 인도하고 성화시키며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하여¹²⁶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마음은 예쁘고 향기로운 꽃들의 모판이 될 수도 있고, 혐오스러운 독사의 소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인해 행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며, 선한 일과 아름다운 일을 향해 관대하게 투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찰 - 나는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충실한 친구인가? | 나에게서는 참된 친구들, 적어도 참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는가? 나는 우정의 의무를 수행할 줄 아는가?

BM1
117

결심 - 마음은 나의 삶에서 아주 넓은 공간을 차지하므로, 강력하게 마음을 다스리도록 할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면 할수록, 양심성찰 작업은 더욱 필요하다.

기도 - 예수 성심이시여,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를 찢으신 당신 수모에 힘입어 청하오니, 제 마음에 충실하고 든든한 우정의 정, 관대한 헌신의 정, 참된 연민의 정, 한결같은 자비심을 심어

126. 알베리오네 신부는 성무일도 1시경에서 바치고 있는 기도문을 인용하고 있다. “주 하느님, 하늘과 땅의 왕이시여,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육신, 우리들의 감각과 대화, 활동을 당신의 법에 따라 인도하고 성화시키며, 올바르게 하고 다스려주소서. ... Dirigere et sanctificare, regere et gubernare dignare, Domine Deus, Rex coeli et terrae, hodie corda et corpora nostra, sensus, sermones et actus nostros in lege tua et in operibus mandatorum tuorum...”

주소서.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¹²⁷

51.

마음: 나쁜 우정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소홀히 하지 말고 친구가 되어야지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약한 평판은 치욕과 비난을 불러들인다. 두 혀를 지닌 죄인의 짓이 그러하다. 힘센 네가 황소처럼 찢기지 않도록 자신을 마음 내키는 대로 들어 높이지 마라. 너는 네 잎사귀를 먹어 치워 열매를 망치고 너 자신을 마른 장작같이 남겨 놓으리라. 사악한 정신은 그 사람을 파괴하고 그를 원수들의 놀림감으로 만들리라.”(집회 5,15-6,4)

1. 잘 무장된 마음은 사람에게 유용한 보물이 되나, 빛나간 마음은 사람을 파멸시키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것들이 부패하면, 가장 추악해집니다 *Corruptio optimi pessima*.”¹²⁸ 거짓 사랑과 관능적 우정으로 빠져들 때 마음이 빛나갑니다.

순수한 우정은 고결함과 풍요로움이 넘치나 육체적인 우애는 거짓이며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입니다. 발작이 일어 육체를 불태우는 신체적 도덕적 병입니다. 눈에는 불꽃이 이글거리고 | 행동은 무질서하며, 머리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온 존재가 사로잡힙니다. 흔히 꿈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를 필요로 하는 욕구가 더욱 거세집니다. 쓸데없는 만

BM1
118

127. 시편 51,12 참조.

128. 이 말은 키케로의 금언이며, 그레고리오 대 교황이 인용하였다.

남을 자주 갖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기념물, 사진, 편지 등으로 대체하여 욕구를 채웁니다. 더러는 범죄¹²⁹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감각적인 사랑은 눈을 멀게 합니다. 만남과 근심으로 시간을 빼앗기고, 다른 만남을 찾아다닙니다. 마음은 혼란스럽고, 생각은 뒤죽박죽이며, 삶은 무질서합니다.

2. 나쁜 우정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성격에 따라 다르게 생겨나는데, 다혈질적인 사람은 성급하고, 냉랭한 사람은 느리며, 게으른 사람과 탐식가, 그리고 감정주의자들은 거의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독서와 구경거리, 볼거리 등은 결정적인 유혹거리를 제공합니다. 마음은 우상을 찾고, 덕행과 지위, 재능, 아름다움 등에 의해서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천박한 망상에 의해 우상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나쁜 우정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행운, 평판, 덕망을 잃어버리고, 급기야는 스캔들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더는 진지하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신분의 의무를 망각하거나 의무를 형편없이 수행합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빠져버린 여인은 남편에 대해 더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자녀와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행운을 잃어버립니다. 더는 이성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으며, 악습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주 무분별한 지출을 합니다.

평판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동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는 의심과 판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호감의 감정이 생깁

129. 이탈리아어 원문에 *dilettuose*(즐거움, 유쾌한)으로 되어 있지만, 2판에서처럼 *delittuose*(범죄, 유죄)로 읽어야 한다.

BM1
119

니다. | 끝으로 원망의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모든 존경의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고, 좋은 사회적 덕망을 추락시킵니다. 종교와 덕행이 표류합니다.

대개 정신에서 시작하여 육체에서 끝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영적인 사랑은 자주 애정을 낳고, 애정은 존경심을 낳고, 존경심은 친밀감을 낳고, 친밀감은 육체적인 사랑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스캔들은 서서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시체는 어느 새 썩어 문드러집니다. 추락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리도 요란하고 피해도 큼니다. 도덕적 덕망이 더욱 크게 요구되는 지위일수록 스캔들의 폐해도 그만큼 증대되고 깊어집니다.

3. 주님, 그러면 죄없는 영혼이 흔들리고, 망가지며, 능욕당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짓게 하는 악인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심연이 놓여 있습니다.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부도덕한 사람에 대한 경고는 하느님 말씀으로, 두려울 정도입니다.¹³⁰ 그러니까 모든 연결이 끊어집니다. 더는 영혼이 하느님의 것이 아니고, 하느님은 영혼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하느님이시여, 이러한 단절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제 마음을 대비할 수 있게 해주소서! 제가 절망 속에 있음을 느낄 때,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소서.

성찰 - 이러한 것에 대해 양심은 나에게 뭐라고 말해주는가?

130. 루카 17,1 이하 참조.

나는 우정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가?

결심- 기억할 것들: 내 마음을 구원하는 것은 참으로 모든 것을 구원하는 것과 같다. 또한 나와 함께 다른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정에 대한 나의 감정을 점검할 것. 죄스러운 모든 관계를 단념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출 것.

기도 - 주님, 저는 인간이옵니다. 인간으로서 저는 변덕스런 마음을 지니고 있고 감각적입니다. 어떠한 자극 앞에서든 저는 완전하고도 성공적인 절제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또한 손을 자르고, 발을 절단하며, 눈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사는냐 죽느냐 하는 단 하나의 딜레마만 있기 때문에 저는 잘라내야 합니다. 오 주님, 이 마음을 당신께 바칩니다. 진심으로 제 마음을 매일 바치고자 하오니,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보호하여 주소서. 오 주님, 눈동자처럼, 당신 날개 그늘 아래 저를 숨겨주소서.

BM1
120

52.

의지 - I

“주님은 저의 몫이시니 저는 당신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제 마음 다하여 당신 자비를 애원하니 당신 말씀대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길을 되돌아보고 제 발길을 당신 법으로 돌립니다. 당신 계명을 지키려 저는 지체하지 않고 서두릅니다. 죄인들의 올라미가 저를 휘감아도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시편 119,57-61)

1.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신에게 명령할 줄 아는 사람이고, 선택한 길에서 굳건한 결심으로 걸어나가며, 영혼의 모든 힘과 육

신의 모든 기능을 동원하여 목적지에 도달할 줄 압니다. 의지는 인간 능력 중에서 여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의지는 자신의 위치에서 명령을 내리어 지성과 힘을 다하여 모든 기계를 조종하는 기사와 비슷하며, 군대의 최고 사령관¹³¹과 비슷합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으며, 유혹에 빠지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BM1
121

의지가 강한 사람은 너그러움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될 때, 전 존재가 목적의 아름다움으로 압도되고, 또 그 어떤 노력이 요청되더라도 이를 실현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을 인식합니다. | “아무리 바랄지라도 게으름뱅이의 갈망은 헛되다.”(잠언 13,4) 늘 희망해야 합니다. 기도의 열의에서도 희망하고, 역경과 실의에 빠지더라도 희망해야 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견뎌냅니다. 이러한 연유로 적절한 묵상을 통하여 의지에 박차를 가하면서 해마다 연피정 때, 매일 율피정 때, 매일 예방성찰할 때 결심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2. 하느님의 특별 선물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생명의 선물은 자연의 선물과 은총의 선물 모두를 포함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생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확고하게 목적 달성을 희망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많은 이들은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목적을 알고 있

131. duce라는 말은 라틴어 어원에 따르면 안내자, 지휘자이다.

었지만 흔들렸을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원의를 지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입니다.

3. 주님,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선한 의지의) 사람들에게 평화.”(루카 2,14)라는 천사들의 말을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약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족하기를 바라고, 의지의 결단으로 죄를 범합니다. 어떠한 원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지만 살아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영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지상적 축복에만 만족해합니다. 선한 의지의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생각과 하늘을 향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지는 온 힘을 다하여 하늘나라를 차지하려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찰 - 나는 약한 의지의 사람들 그룹에 속하여 있는가? | 또는 아무런 원의도 없는 사람들 그룹에 속하여 있는가? 아니면 좋은 의지의 사람들 그룹에 속하여 있는가? BM1
122

결심 - 나는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활동의 여왕 자리에 나의 의지를 두도록 한다.

기도 - 자신의 인생을 참되게 살아 가는 사람은 굳건한 의지로 목적을 향해 가도록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매일 10분 동안 “원한다, 늘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¹³²라는 구호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되풀이하여 외우도록 훈련시키던 거룩한 성인의 권고를 본받고자 합니다.

132.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극작가 빅토리오 알피에리(1749-1803)의 금언이다.

오 거룩한 성령이시여, 저의 의지를 비추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어, 당신 은총의 도움으로 저의 전 존재를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저의 의지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해주소서.

53.

의지 - II

“한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분은 그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제 의지의 손에 내맡기셨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네 뜻에 달려 있다. 그분께서 네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집회 15,14-17)

1. 의지가 강한 사람은 타인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자기 고유의 의무를 수행하고, 진리와 정의에 입각한 규율을 따릅니다. 어느 누구도 경멸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는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 이에게 가까이 순종합니다. 하급자의 충고도 가까이 경청하며 좋은 표양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마땅히 행해야 할 자기 고유의 의무로 여깁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바라지 않으며, 충동적이지 않고, 나쁜 표양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에게 길은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직선입니다. | 비록 아주 순종적이고, 온화하며 온순하게 보이더라도 단호하게 그 길을 따릅니다. 얼마나 품위있고 단호합니까! 얼마나 올바른지 모릅니다! 그는 또한 절제에 대한 진정한 주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어

BM1
123

할 줄 알며, 분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압니다.

2. 의지는 노력과 훈련으로 단련됩니다. 약한 의지가 지혜롭게 지도를 받으면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영웅적인 행동을 갑작스럽게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덕행, 작은 극기를 훈련하면 됩니다. 모든 덕행을 한꺼번에 습득하려고 덤벼들지 마십시오.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세분하여 더 작은 것에서 실행하도록 하십시오. 매일 작은 계획을 예비성찰에서 숙고하도록 하십시오. 하나의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번덕스러움이나 순간적인 충동에 따르지 말고, 좋은 규범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고집스러울 정도로 늘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도움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3. 내적 힘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들,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신비가들은 말하기를 바른 생각들은 유익하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은 강한 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적인 힘은 감수성이며, 무기력에서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선물을 지닌 영혼의 내적인 열정입니다.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모든 예술은 대체로 효력이 있는 감정을 다시 일깨우고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성찰 - 나는 생명의 가치를 자주 기억하는가? 나는 이 지상 삶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 나는 재능을 잘 사용해야 함을 알고 있는가?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죽음이 다가올 때 어떤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는가?

BM1
124

결심 - 나의 결심을 재점검할 것. 작은 결심인가? 한가지 결심인가? 매일 무엇인가를 완수하는가?

기도 - 주님, 저로 하여금 묵상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어, 묵상에서 열정이 타오르게 해주소서. 당신은 제게 선교 사명을 위임하셨으며, 그 책임을 요구하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위해 치르는 몸값이며, 희생제물이나이다.

저의 모든 삶은 신성한 저울 위에서 평가될 것입니다.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의 은총이 제 안에서 열매 맺지 않고 허비되지 않도록 저에게 친구들, 설교자들, 책들, 지도자들, 고해사제 등의 격려를 보내주셨나이다.¹³³

54.

원죄 : 결과

“이 계명을 빌미로 죄가 내 안에 온갖 탐욕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사실 율법과 상관이 없을 경우 죄는 죽은 것입니다.”(로마 7,8)

1. 아담의 후예들은 은총과 초자연적 선물을 상실하는 것 외에, 부모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도 겪고 있습니다. 인류는 아담이 예속되었던 그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인류는 질병과 고통, 피로,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후 개인적, 사회적, 물질적, 도덕적으로 거대한 파멸이 이어졌습니다.

오류.¹³⁴ 인간 정신은 아주 쉽게 오류와 헛된 호기심에 빠졌습

133. 1코린 15,10 참조.

니다. 동시에 진리를 발견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 지성은 무지와 경솔에 빠지고, 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깨닫기 힘들어지고, 착오를 일으키며, 편견에 사로잡히고, 정신적으로 타락하는 경향이 있으며, 거짓 시스템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인류는 하느님의 본성과 종교심, 인간 영혼, 참된 행복의 대상, 덕행 등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오류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종교적 도덕적 진리에 대한 심각한 무지가 있었고, 다른 편으로는 모든 것에 대한 철학적이고 공공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히브리 민족만이 아주 특별한 섭리의 인도하심으로 하느님께 충실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예언자와 선지자, 저명한 학자들을 파견하셨습니다.

2. **악의.** 우리에게는 건강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듯이 인간 본성은 선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은 여러 가지 질병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실천하고, 악과 싸우며, 감정을 억제하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134. 이 문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스테파노 라메라 신부의 (S.Lamora) 저서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1949)에서 알베리오네 신부의 서문 참조. “그러나 인간은 온 인류에게 두루 전파된 원죄로 인하여 은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추락하였고, 저하되었으며, 뒤집혔습니다. 그리하여 지성과 의지, 감정이 추락하였습니다. 하느님 아들이 인간 본성을 취하시어 육화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활에서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지성의 추락과 전복으로 인하여 뛰어난 사람들도 구약의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총체적인 오류에 빠져들었습니다. 의지의 추락과 전복으로 인하여 사람은 성 바오로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악습에 빠졌습니다. 감정의 추락과 전복으로, 오늘날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볼 수 있는 각종 우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지의 병에는 다음의 7가지가 있습니다.¹³⁵ 무기력, 항구하지 못함, 태만, 악의, 완고함, 악습. 아담에서 하느님 계시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퇴폐와 악습, 타락을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성 바오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마음의 욕망으로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몸을 수치스럽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 이런 까닭에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넘기셨습니다. … 그들이 하느님을 알아 모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분별없는 정신에 빠져 부당한 짓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 그들은 온갖 불의와 사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차 있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덕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험담꾼이고 | 중상꾼이며, 하느님을 미워하는 자고, 불손하고 오만한 자입니다. …”(로마 1,24-31)

BM1
126

3. **욕정.** 이것은 마음이 전복되어 격렬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올바른 길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으며, 악으로 나쁘게 기울어져서 악의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성애 반하는 애정으로 차 있고, 무질서한 감정과 애착이 가득합니다.

참 하느님을 망각하고 피조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동물과 바위, 나무, 하늘의 별, 사람을 향한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

135. 정확히 말하면 ‘6가지’이다. (후속 재판본에서는 교정되었다.) 이러한 의지의 병에 대해서는 DF 61항을 참고할 것.

물을 받들어 섬겼습니다.”(로마 1,25) 이에 앞서 성 바오로는 이방인들이 “불멸하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과 날짐승과 네발 짐승과 길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로마 1,23)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성찰 - 이와 같은 상황은 아직 구원이 이르지 못한 곳에 살고 있는 인류의 절반 이상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나는 가톨릭 교회의 품 안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는가? 나는 비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가? 선교 활동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는가?

결심 -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위해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지성과 의지, 마음을 많은 병에서 회복시켜야 한다. 나는 나의 구세주께 의탁하겠다.

기도 - 오 나의 하느님, 저의 지성과 의지, 마음을 치유해주소서.¹³⁶ 의사이신 주님, 저는 많은 병에 시달리고 있나이다. |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오 예수님, 당신은 많은 이들의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병을 치유해 주셨나이다. 저는 죄를 지은 죄인으로 의사가 필요하오니, 제 영혼을 구해주소서. 저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BM1
127

136. 이 호소문은 알베리오네 신부가 1932년에 영신수련을 하면서 자신을 위해 작성한 기도문이다.(이것은 그의 개인 메모장에서 볼 수 있다.) “성령님, 성령강림의 모후의 전구로 비오니, 저의 경솔함, 무지, 망각, 고집, 편견, 오류, 진리의 배척으로 흐려진 지성을 치유해주시어, 모든 것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심어주소서.”(“성령님께 바치는 기도”, 바오로가족 기도서, <한국-성바오로>, 2002년판, 230쪽)

55.

대죄 - I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내가 아들들을 기르고 키웠더니 그들은 도리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 준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아아, 탈선한 민족, 죄로 가득 찬 백성, 사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 등을 돌리고 말았다.”(이사 1,2-4)

1.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치는 중대한 잘못임을 알고, 자유의지으로써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면 대죄가 성립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과 순결 또는 다른 덕행을 거슬러서 생각하거나 생각에 빠질 때, 정신적으로 대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계획은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잠언 15,26)

나쁜 것을 바라거나, 지난 과거의 죄들을 그리워할 때, ‘감정적으로’ 대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마태 5,28) “저희가 사랑하던 것처럼 혐오스럽게 되어 버렸다.”(호세 9,10)

믿음과 사랑, 순결, 순명과 같은 그리스도교적 덕행을 거슬러 말하고, 강연하며, 노래하고, 비방하며, 저주하는 등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언행으로’ 대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복수, 미신, 도둑질 같은 외적인 ‘행위로’ 저지르는 대죄가 있습니다. 주일미사 참례, 자녀들의 교정과 교육, 대부분 신분에 따른 본

분을 ‘방기함’으로써 저지르는 대죄도 있습니다.

2. 대죄는 자신에게 은혜를¹³⁷ 베풀어주신 하느님께 대한 부도덕한 ‘망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정신과 몸, 언어 등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바로 이 선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창조주를 모욕합니다.

대죄는 창조주이자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계명을 주셨으나 죄인은 “나는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Non serviam: non obbedisco.”¹³⁸ 라고 강변합니다.

대죄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오로지 하느님 안에서만,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만 인간은 평화와 축복,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자책과 수많은 징벌, 특히 영원한 고통의 형벌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하느님께는 악인과 그의 악행이 똑같이 가증스럽다.”(지혜 14,9)

3. 오 나의 하느님, 미친 듯이 자주 당신을 모욕하였던 배은망덕한 자, 반역자, 어리석은 자가 당신 앞에 엎드리나이다. 저는 자비와 용서를 청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나이다.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하여 영예롭게 하리라.”(시편 91,15)고 당신은 말씀하셨나이다.

성찰 - 나는 십계명을 거슬러 중대한 죄를 범할 수 있다. 나

137. 다음 판에서 교정한 것처럼 우리의 은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

138. 루치펠이 항변한 변명(예레 2,20 참조)

는 첫째 계명을 범하였는가? 둘째 계명을? 셋째 계명을?

결심 - 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청할 것.
그리고 죄의 속성과 죄의 결과에 대해 잘 알기 위해 노력할 것.

기도 - 주님, 제가 죄를 지었을 때, 당신은 제가 참회하기를 기다려주셨고, 처벌하지 않으셨나이다. 저는 당신의 자비를 영원토록 찬미할 것입니다. | 그러나 저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께
BM1 129 청원하오니, 제가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두지 마옵소서!
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이오니, 저를 구하여 주소서 Tuus sum ego, salvum me fac. 십자가의 공로로, 지극히 거룩한 당신의 성심으로 저를 구하여 주소서.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이시여, 제가 죄를 범하기보다는 갈바리아 산에서 당신이 겪으셨던 고통에 힘입어, 차라리 제가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은총을 빌어주소서.

56.

대죄 - II

“그분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굽어보시고 사람의 행위를 날 낚이 아신다.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집회 15,19-20)

1. 하느님을 ‘모욕함’. 악의적인 모욕은 모욕을 주는 사람과 모욕당하는 사람 사이의 거리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위중하다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무한합니다. 하느님은, 하늘과 땅 모두가 그분 앞에서

는 마치 원형경기장과 같이 작아 보이거나 또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위대하십니다. 인간은 왜소하고 나약한 피조물이며, 하느님 앞에서는 흙먼지보다도 초라한 존재입니다.(이사 40,15 참조) 그래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죄는 본성상 거의 무한한 악의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죄가 모욕하는 하느님께서 무한히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 알폰소는 말하길, “모든 천사와 온 인류가 다 함께 죽음과 희생제물로 봉헌될지라도, 단 한가지 죄도 갚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대죄를 끝없는 지옥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본성상 무한한 악은 영원한 형벌이 적합한 것입니다.

2. 하느님의 ‘영광을 더럽힘’. 이것은 하느님보다, 그리고 그분의 은총보다, 그분과 친교를 맺는 것보다 값싼 만족과 세상의 재화를 더 선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죄인이 저울 양쪽 접시 위의 물건들을 달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무한한 선이신 하느님과 자신의 망상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값싼 영예를 주님의 무한한 위엄과 견주고, 바라빠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이사 40,25)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느님이 이토록 불쌍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장상이 보는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최대의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3. 주님, 저는 저의 잘못으로 아주 많이 당신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당신은 무한하고 영원한 선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체험을 곧바로 변덕스러운 쾌락에 팔아치웠습니다¹³⁹ 그토록 당신을 무시했음에 대해 지금 용서를 베풀어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통회하오니, 당신 은총 속에 저를 받아주시길 약속해 주소서.

성찰 - 죄는 대개 동기부여에 달려 있다. 그 원인으로는 동료, 책, 시선, 좋지 못한 생각이 있다. 나는 어떤 원인에 접촉되어 있는가?

결심 - 유혹을 받을 때, ‘하느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것. 나는 면전에서 하느님을 모욕할 정도로 만용을 부리고 있는 않는가?

기도 - 오 주님, 저는 지금 당신 발치에서, 죄가 얼마나 큰 악인지를, 아니 유일한 참된 악이라는 사실을 깨닫나이다. 제가 겪는 여러 다른 불행과 고통을 보속과 정화, 속죄, 공로로 받아주소서. ... | 오로지 죄만이 본성상 악이며, 많은 악의 원인이 되고, 유일하고 영원한 악이옵니다. 저는 죄를 지음으로써 당신을 잃어버렸나이다. 오 주님, 제가 만용부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나이다. 저는 개미가 강력하게 무장한 군인에게 욕하고 도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리석게 행동했나이다. 그러나 지금 저는 방탕한 아들처럼 저의 발길을 당신께 돌리나이다. 저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나이다.¹⁴⁰ 당신은 저의 아버지이시며, 저는 당신의

BM1
131

139. Nel senso di svenduto(값싸게 팔아치우다).

140. 루카 15,18 참조.

배은망덕한 아들이옵니다. 주님, 제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인내심을 주소서. 제가 죄의 기회를 피하겠나이다.

57.

대죄 - III

“얘야,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난날의 죄악에 대하여 용서를 빌어라. 뱀을 피하듯이 죄를 피하여라. 죄에 다가서면 그것이 너를 물 것이다. 죄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리라.”(집회 21,1-2)

1. 대죄는 광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대죄를 지으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의 선고를 받습니다. 천국은 최고선이시고 영원한 행복이신 하느님을 영원토록 소유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고, 세상의 재물, 안락함, 쾌락, 찰나적인 망상을 선호합니다. 에사우는 한사발의 불콩죽에 장자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허기진 배를 채운 후에, 에사우는 커다란 고통을 치르게 됩니다.¹⁴¹ 배가 고팠던 요나탄은 왕의 명령을 거슬러 전투가 끝나기 전에 약간의 꿀을 맛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사형을 선고받자,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나는 꿀을 조금 찍어 먹고, 이 작은 쾌락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¹⁴²라고 절규합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면 가장 큰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죄와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 바로 저희 자신에게 원

BM1
132

141. 창세 25,29-34 참조.

142. 1사무 14,24-43 참조.

수가 된다.”(토빗 12,10)고 성경은 말합니다. 루터는 어느 날 저녁, 눈부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 루터여, 너는 어떤 조국을 잃어 버렸는지 바라보아라!”라고 말했습니다.

2. 죄를 범하는 사람은 지옥의 선고를 받습니다. 죽은 후에야 지옥에 가게 되겠지만, 성경을 보면, 죄인은 지옥의 선고를 받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바로 그것들로 징벌도 받는다.”(지혜 11,16)라고 말합니다. “나를 농치는 자는 제 목숨을 해친다.”(잠언 8,36)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요한 8,34) “우리가 틀렸습니다Erravimus!”(지혜 5,6 참조)라고 죄를 범한 사람들은 큰소리로 외칩니다. 일순간의 쾌락으로 불바다에 빠졌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에, 루터는 불 곁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불꽃이 튀어 손에 닿았습니다. 그는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에게 그는 “익숙해지면 별 것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죄를 범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은 이렇듯 익숙해집니다.

3. 주님, 당신은 “내가 아들들을 기르고 키웠더니 그들은 도리어 나를 거역하였다.”(이사 1,2)라며 저를 나무라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 나는 너희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골라 심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쓰디쓴 열매만 맺었느냐?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고, 파라오를 홍해에 빠뜨렸고, 네 앞에서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주었건만, 너는 어찌하여 나를 수석 사제들에게 팔아넘기고, 나를 빌라도 관저로 압송하였느냐? 나는 광야

에서 너희에게 만나를 먹였건만, | 너는 어찌하여 빵을 때리고 채찍질을 하였느냐?”¹⁴³(성금요일 전례)

BM1
133

성찰 - 다음 사항들을 묵상의 유익한 주제로 삼을 것. “나는 너에게 바위에서 솟은 물을 마시게 하였건만, 너는 어찌 나에게 쓸개와 초를 마시게 하였느냐?” “나는 너에게 수천 가지 은혜를 베풀었건만, 너는 이들 중에서 무엇이 못마땅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 너는 내가 베푼 은혜를 악용하여 죄를 저질렀다. ...” 나는 죄가 어리석은 삶으로 유도한다는 것을 종종 생각하는가?

결심 - 죽을지언정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할 것.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죄뿐이다.

기도 -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당신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는 이들에 대해 당신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¹⁴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행하고 있는 악을 의식하지 못한 채 죄를 지었나이다. 오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또한 저를 위해 당신 아버지께 똑같은 기도를 바쳐주소서. 제가 바라옵건대 저의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미래를 참아주소서. 저는 “뱀을 피하듯이 죄를 피하여라.”¹⁴⁵ 하시는 당신의 교훈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143. 탈출기와 수난복음에서 따온 비탄의 노래.

144. 루카 23,34.

145. 집회 21,2.

58.

대죄 - IV

“죄인들의 자녀들은 혐오거리가 되고, 불경한 자들의 소굴을 들락거린다. 죄인들의 자녀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소멸되고, 그들의 후손에게는 치욕이 늘 함께한다. 자녀들은 불경한 아버지를 비난한다. 그 아버지 탓에 자신들이 수치를 당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불경한 인간들!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저버렸다. 너희 자손이 불어나도 파멸되기 마련이다. 너희는 태어나도 저주받기 마련이고, 죽게 되어도 저주받기 마련이다.”(집회 41,5-9)

1. 현세에서도 죄는 해롭습니다.

대죄로 인해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영혼의 죽음입니다. 은총 상태에서 나는 하느님의 성전이 되고, 마치 자연적인 생활에서 영혼이 육신과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하느님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 그분은 생명의 기원입니다. 나의 활동은 그분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늘을 위해 존재하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빠지면서 1)나는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가지처럼 되어 불속에 던져지는 것 말고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버렸습니다. 2)나는 비록 이미 탁월한 성덕에 이르렀을지라도, 과거에 쌓아올린 모든 공로를 잃어버렸습니다. 3)선행이 덕스럽고 영웅적인 것일지라도 하늘나라를 위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뿌리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하느님과 일치되어 있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분과 떨어져 있다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너희는 나 없이

BM1
134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

2. 죄를 짓는 사람은 자신을 찢고, 때리며, 학대하는 martorizza¹⁴⁶ 것입니다. 하느님은 인간 없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은 하느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웃은 자기 존재의 일부이기에, 이웃을 거슬러 죄를 지으면 위중한 악을 발생시키지만, 자기 자신을 거슬러 죄를 지으면 대단히 위중한 악을 발생시킵니다. 돌을 하늘 높이 던지면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지는 법입니다. 죄를 지을 때 자족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지만, 이것은 파멸을 가져오는 착각입니다! 그 대신 내 영혼과 마음, 육신에 암적인 질병이 침입합니다. 호기심으로 읽어본 나쁜 독서로 인해 영혼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쾌락^{il contento}¹⁴⁷을 추구하는 감각적인 애정으로 인해 마음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저속한 쾌락의 희열에 취한 온 존재와 육신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3. 오 주님, 제가 혹시 타인의 교훈이 필요한 상태입니까? 제가 저 자신에게 타산지식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의 아픔은 모두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제가 하느님의 섭리를 원망한다면 저는 불의한 사람일 겁니다. |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은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저의 조상들이 죄를 지어 제게 이 슬픈 유산을 남겨주었기 때문일까요?

BM1
135

146. martorizza로 쓰였지만 오늘날에는 martirizza로 사용한다.

147. il contento는 만족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문맥상의 쾌락은il godimento(쾌락)의 고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성찰 - 나는 내가 지은 죄가 아주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가벼이 웃어 넘기거나, 무심해하지는 않는가? 나는 무감각한 사람처럼 “죄를 지었어도 내게 아무일도 없었지 않은가?”¹⁴⁸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죄의 실체를 숙고하기 위하여 (침묵 속에) 머물고자 하는가?

결심 - 적어도 오늘만이라도 나는 나 자신에게 행한 크나큰 허물들을 숙고할 것. 나는 스스로 십자가들을 만들어서 내가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할 것.

기도 - 오 주님, 제가 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기에, 저 자신이 후회스럽습니다. 저는 세례를 통해 성삼위의 성전이 되어 행복하고 영예롭게 되었건만, 저는 제 영혼을 수없이 파괴하였나이다. 저는 이 성전을 모독하였고, 수많은 상처를 내었으며, 저 자신을 죽였나이다. 오 예수님, 저를 치유해 주소서.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하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물은 저를 씻으소서.”¹⁴⁹

59.

대죄 - V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실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에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말끔히 치워

148. 집회 5,4.

149. Anime Christi, Santifica me. Corpus Christi, salva me. Aquas lateris Christi, lava me.

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마태 12,43-45)

1. 대죄는 영혼을 파괴합니다. 거의 다 익은, 추수할 때¹⁵⁰가 가까운 풍성한 포도송이 위에 떨어지는 끔찍한 우박과 비슷합니다.

‘대죄는 습관을 낳습니다.’ | 이것은 사람의 의지가 쉽게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욕구를 느끼게 되고, 이어서 간혹 어떤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면 늘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이는 사악한 성향이 생기게 됩니다. 도둑질을 반복하게 되면 병적 도벽에 이르게 되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훔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행위는 저속한 것에 대해 거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는 욕망¹⁵¹입니다. 인간의 모든 기능이 아주 깊숙이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야!”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루가 될지, 일주일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다음 갈증이 더욱 심해지고 난폭해 집니다.

2. 이러한 강박적인 습관에는 과거와 관련하여 4가지 결과가

150. 포도수확을 의미한다.

151. 원문의 appetito는 식욕이 아닌 라틴어의 아주 강한 욕구(accezione)를 의미한다.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 눈먼 정신. 더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죄가 얼마나 위중한지, 어떠한 것이 거룩한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2) 완고한 마음.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오히려 저속한 세상 재물에서만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3) 나약한 의지. 저항하는 힘이 대단히 미약해서 부지불식간에 흉한 모습으로 타락합니다.

4) 육체가 부각될 것이며, 점점 더 난폭해질 것입니다. 탐식과 감각적인 쾌락을 찾아다니고, 인색하며 게을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실패의 중대성을 파악한다면, 영혼이 부끄러움과 모욕, 절망감을 느낄 것입니다!

BM1
137

3. 나의 하느님, 당신은 본래 이 영혼을 천사들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하늘나라의 복된 이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려진 베일을 벗겨보았을 때 파괴된 영혼만 보였나이다. 타락해 있는 이 존재의 불행이 이해되고, 널리 퍼져 있는 도덕적 파멸 또한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의 육체적 파멸 또한 이해됩니다.

성찰 - 나는 불쌍한 죄인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는가? 그들이 회개하여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을 이해하는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연민이 있는가?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들이 회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가?

결심 - 나는 매일 기도하고, 적어도 성모송을 바쳐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기도 - 오 하느님, 저희를 흠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소서! 저희는 원죄로 인하여 말할 수 없이 악한 경향으로 기울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소서. 더욱 부끄러운 것은, 저희가 저지른 개인적인 죄로 인하여 더욱 위중하게 나약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불쌍한 죄인들이 회개하게 해주소서. 은총을 베푸시어 고백성사를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소서.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¹⁵²

60.

죄의 길

“그들의 불의는 결코 그분 앞에서 숨겨지지 않고 그들의 온갖 죄악은 주님 앞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인자하시고 당신의 피조물을 아시어 그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고 아껴 주셨다.”(집회 17,20-21)

1. 어느 한 순간에 죄의 상태에 이르지 않고, 갑작스럽게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 그러니까 나는 먼저 미끄러운 길에 발을 내디뎠고, 천천히 심연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청년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 재기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나의 잘못을 씻을 수 있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BM1
138

152. Maria, refugium peccatorum, ora pro nobis.

또한 나는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높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들을 다스릴 수 있었고, 의지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삶은 투쟁¹⁵³으로, 유행을 거슬러 살아야 하며,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력을 게을리하여 다시 죄에 휩쓸리게 되었고, 경계를 소홀히 한 탓으로 감각의 유혹에 말려들었습니다. 각종 심신수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원의가 강해졌으며, 주변 환경은 대충 살아가는 삶을 정당화시켜 주었다. 일을 할 때마다 인간적인 존경을 받고 본보기가 되고자 하는 원의로 가득 찼다.

2. 구원의 유일한 탁자tavola는 기도이며, 그 기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까지 기도를 조금밖에 하지 않았습시다! 나는 ‘오만’하여 자신을 속였으며, 나의 판단에 대해 오류가 거의 없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굳셈의 덕행을 쌓았다고 여겼으며, 거의 불멸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위험과 죄를, 구원의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시다. 나는 신심을 조금밖에 실천하지 않았으며, 자주 소홀히 하였고, 늘 피상적으로 행하였습니다. 나는 노동의 의미를 왜곡하여, 별로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축소시켰습시다. 그 노동은 나에게 약간의 만족감을 주었기에, 나는 영적 진보의 참된 작업을 면제받았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 여기가 바로 내가 도착한 곳입니다.

153. durarla(durare lotta)는 투쟁을 이어간다는 말로, ‘인내하다’, ‘열의로 이어간다’는 의미이다.

3. 오 나의 하느님, 저는 부활을 확실하게 얻기 위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먼저 저는 진실하게 회심하는 마음으로 고백성사를 제대로 보아서 나쁜 습관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또한 저의 결심이 변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영원한 구원의 보증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BM1
139

성찰 - 나의 영혼이 파멸된 후 나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가? 죄 상태의 원인에 관하여 앞서 열거한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것인가?

결심 - 신뢰confidenza¹⁵⁴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

기도 - 오 주님, 제게 은총을 베푸시어 거룩한 영적 스승들이 (제안하는 다음과 같은) 경고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그대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덕행을 쌓았다고 믿지 말고,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대가 높이 날기를 바란다면, 날개를 움직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노력을 중단하면, 당신의 무게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승자의 것이고, 지옥은 패자의 것입니다. ‘세상의 평판과 자연적인 경향을 거슬러 싸워야 합니다 Age contra.’¹⁵⁵ 그대는 성령의 움직임과 내적 소리를 따르도록 하시오.”

154. confidenza는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다.

155. 신비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반대로 움직이라’라는 뜻이 있으며, ‘저항하라’, ‘거슬러 싸워라’는 의미를 지닌다.

61.

아담의 초자연적 상태

“주님께서 사람을 흠에서 창조하시고 그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정해진 날수와 시간을 그들에게 주시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처럼 그들에게 힘을 입히시고 당신 모습으로 그들을 만드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생물 안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놓으시고 그들을 들짐승과 날짐승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들은 주님의 다섯 가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덧붙여 그분께서는 여섯 번째로 그들에게 지성을 나누어 주시고 일곱 번째로 그분의 능력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분별력과 혀와 눈을 주시고 귀와 마음을 주시어 깨닫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지식과 이해력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과 악을 보여 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 주시어 당신의 위대한 업적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셨다.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리라.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생명의 율법을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시어 지금 살아 있는 존재들이 죽을 몸임을 깨우쳐 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판결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그들의 눈은 그분의 위대하신 영광을 보고 그들의 귀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그분께서는 ‘온갖 불의를 조심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 각자에게 제 이웃에 대한 계명을 주셨다.”(집회 17,1-14)

1. 하느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지성과 자유를 선물하신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초자연적 상태로 올려주셨습니다. | 인간에게 은총과 여러 다른 과성은혜를 베푸셨습니다.

BM1
140

성화는총은 아담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능가하며, 심지어 천사도 능가하는 은혜입니다. 천사를 포함하여 피조물은 성화는총에 대한 자격이 없으며, 이것을 요구할 수도 없고, 갈망할 수도 없습니다. 성화는총은 유한하며 창조된 은혜이지만, 신적입니다. 인간은 인격을 지녔으나, 신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후에 우발적인 사건으로 그 본성과 활동 능력에서 변질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이 되지 못하지만,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고”(2베드 1,4), 조력은총으로 공로를 쌓을 수 있는 활동과 초자연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뵈오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총이 영광 속에서 변모할 때 실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은 본성상 천사들이 지니고 있는 것을 능가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느님의 본성과 권능, 지적 생명과 사랑, 지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받은 특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본래 인간은 하느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 가족에 들어오게 하셨고, 자녀로 맞아주셨으며, 당신 왕국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화는총에는 대신덕과 성령의 은혜와 지복이 있습니다.

2. 한편 주님께서 아담에게 세 가지 과성은혜를 베푸셨는

데, 이것은 본래 인간은 가질 수 없고, 천사에게만 주어진 완전한 본성이었습니다. 밝은 지혜의 은혜, 사욕편정이 없는 완전무결의 은혜, 고통과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불멸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BM1
141 밝은 지혜의 은혜를 통하여, 아담은 공부를 하지 않고도 모든 진리를 알았는데, 그 진리는 인류의 우두머리로서, 그리고 최초의 인간 교육자로서의 직무상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경험적 지혜를 손쉽게 배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완전무결함의 은혜를 통하여, 인간은 덕행의 실천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난폭한 정욕에서 면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흠없는 인간이 되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삼중의 정욕을 통제할 수 있는 덕행을 베푸셨습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세상 쾌락과 명예욕, 소유욕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육신과 영혼을 함께 지니고 있고, 또한 이중의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무결함의 은혜로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어서, 인간 기능들이 이성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섭리를 통해 육신의 불멸은 인간을 질병과 죽음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에 전념했습니다.

3. 아담은 이상과 같은 은총들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서 탄생할) 인류를 위해서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손들에게 이러한 은총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했으나 그것을 잃어버렸

으므로 물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성찰 - 인간을 향한 하느님 섭리의 역사를 나는 잘 알고 있는가? 나는 가끔 하느님의 선하심 Bonté에 대해 생각하는가?

결심 - 그리스도교 교의와 구세사를 더 잘 공부하자 한다.

기도 - 오 하느님, 당신은 놀라운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한층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셨나이다. 저희가 당신께 청하오니, 죄의 유혹을 거부하고, 이성의 명령을 따르게 해주시어, 하늘나라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 주님,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찬미하게 하시고, 특히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은 인간이 높이 고양되기를 원하셨고, 당신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며, 당신의 지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나이다.

BM1
142

당신은 당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이다. 당신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나이다. ... 인간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천사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셨나이다.¹⁵⁶

62.

인간의 타락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땅은 네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던지게 하고 너는 들의 풀

156. 시편 8,6 참조.

을 먹으리라. 너는 흠에서 나왔으니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창세 3,17-19)

1. 아담은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시험을 극복할 때 영원한 상급을 받을 자격이 생기고, 수여받은 은혜들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무결함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자유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완전무결함은 죄의 원인을 제거해 주지만, 그렇다고 전부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은 욕정의 충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시험은 하느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연법이 더해진 실정법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BM1 143 성경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지혜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 그러나 사탄이 지상낙원에 들어가 뱀의 형상으로 다가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사탄은, 순종에 대한 의심을 원조들의 정신에 심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고, 더 나아가 하느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고 유혹하였습니다. 이것은 호기심과 교만, 행복에 대한 갈망을 자극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 않고, 아주 큰 대죄를 범하였으며, 하느님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죄의 결과에 대한 하느님의 경고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하느님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충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은

총을 거두시어, 밝은 지혜의 은혜와 완전무결함의 은혜, 고통과 죽음을 겪지 않는 불멸의 은혜를 거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믿음과 희망은 계속 남겨주셨습니다. 구세주를 약속하셨고, 조력은총으로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도록 인도하셨으며,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예들은 원조의 잘못된 결과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총과 과성은혜를 입지 않은 채, 수많은 악에 예속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원죄는 우리의 개인적인 죄는 아니지만, 인류가 지니고 있는 어떤 결핍, 오점, 하늘나라에서 배제되어 버린 폐기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인간이 지옥의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력하고, 상처입었으며, 무지에 예속되었고, 악에 치우치며, 유혹에 노출되었습니다. | 하지만 인간은 지성과 자유는 잃어버리지 않았고, 본질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신에 해를 입었고, 피조물에서 창조주께로 나아가는 데서 게을러진 것입니다.¹⁵⁷ 자주 진리에 대한 사랑보다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더 많고, 자주 영원한 가치를 망각하여 현세 사물의 자극에 마음을 더 빼앗깁니다. 얼마나 많은 오류가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편견과 우매함! 인간의 의지는 자주 교만스럽게 자율적이고, 행복을 원하지만 그것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애정과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시각, 청각, 미각, 촉각과 같은 외적 감각은 자주 도덕 규율을 도외시합니다. 더더욱 반

BM1
144

157. 정신적으로 피조물에서 창조주께로 나아가는 노력을 마지못해 행한다는 것을 뜻함. 지혜서(13,1 이하)와 성 바오로(로마 1,18-20)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며 비난하고 있다.

항적인 것은 상상과 마음, 애정 등과 같은 내적 감각들입니다.

3. 그래서 성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로마 7,15)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 줄 수 있습니까?”(로마 7,23-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로마 7,25)

성찰 - 나는 원죄의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나는 많은 여러 나쁜 경향을 불신하고 있는가? 나는 은총을 구하고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가?

결심 - 성 요한의 교훈을 유념할 것.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1요한 2,1-2)

기도 - 불행한 사람은 우리의 원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는 현명하게, 겸손하게 깨어 있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은총을 잃어버렸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을 되찾아주시어, 세례 때 우리에게 은총을 전해주십니다. ‘깨어 기도하여’¹⁵⁸ 더는 은총을 잃어

158. 마태 26,41 참조.

버리지 않도록!

유혹은 계속되고, 우리의 노력은 나약합니다. 사탄은 사자처럼 누군가를 죽여서 삼켜버리기 위해 돌아다닙니다.¹⁵⁹ 유혹에 빠지지 않는 확실한 방법은 영성체를 자주,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식탁에서 열정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악마가 두려워하게 되었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¹⁶⁰

63.

구원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서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히브 9,11-12)

1. 인간의 죄는 두 가지 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께 행한 위중한 모욕이며, 두 번째는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총과 권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중대한 모욕과 인간에게 영원한 영적 파괴를 일으킵니다.

구원은¹⁶¹ 예수 그리스도의 감탄스런 덕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편으로는 (인간이) 하느님께 행한 모욕과 불의를 온

159. 1베드 5,8 참조.

160. 영성체 후 파견 기도문 참조.

161. 구원의 주제에 관해서는 DF, 56-57항 참조.

전히 보속하고, 다른 편으로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과 권리를 획득하는 공로를 쌓았습니다.

구원은 보속과 공로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M1
146 구원은 인간을 위해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 삶의 모든 활동과 덕행, 고통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구원은 놀랍게도 십자가의 수난과 희생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은 사랑의 활동이었습니다. “자비가 풍성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에페 2,4-5) 구원은 또한 정의의 활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적절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속죄 제물을 통하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로마 5,20) 이렇게 정의와 평화는 서로 겨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¹⁶²

2. 죄는 영원한 생명의 상실이고, 구원은 그에 대한 재발견과 회복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값을 치르시기에 완성된 것입니다.

죄는 온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박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에 참여하는 권리와 은총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갓 태어난 첫 날도 죄가 있습니다. 모든 이가 죄를 덮어쓰고, 은총을 상실한 채,

162. 시편 85,11 참조.

하늘나라에서 제외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고”(사도 4,12),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고 하느님이십니다. 인간으로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고, 하느님으로서 이 희생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BM1
147

3.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요한 3,16)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느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¹⁶³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한 속죄의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수난의 열매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로마 5,5)

성찰 - 나는 구원의 의미를 숙고해 보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잘 알고 있는가? 나는 나의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대해 감사드리는가?

결심 -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사 53,5)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

163. 로마 8,32 참조.

기도 - 오 예수여, 당신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시고, 성령의 활동으로 동정 마리아의 태중에서 육화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으니, (저희가) 당신 사랑에 응답할 수 있게 해 주시어, 죄를 미워하며 당신을 통해 덕행의 길을 터득하게 하소서.

BM1
148

64.

구원자 예수

“그러나 자비가 풍성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 주려고 하셨습니다.”(에페 2,4-7)

1. 인간은 하느님의 계명을 어겨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는 죄인이 되었으며,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원하셨던 상태가 아닌 방향으로 빠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인류의 원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필리 2,8) 그분의 순종이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상태로 우리

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분은 선택받은 이들의 원조이십니다.

2. 이사야 예언자는 구원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게 순종하시어 수난을 받으시고 치욕스런 죽음을 통해 당신 백성을 구원하실 “하느님의 종 Servus Domini”¹⁶⁴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굴욕을 다음과 이야기합니다.¹⁶⁵ “그에게는 우리가 우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이사 53,2-3)

‘고통’과 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짊어진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이사 53,4-5)

그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164. ‘하느님의 종’ 칭호는 모세에게 처음 부여되었으며(신명 34,5), 이후 몇몇 예언자들에게 적용되었다. 예수님을 미리 예고하는 상징을 가리키고, 때가 이르자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메시아를 지칭한다.

165. 서술의 주어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같이 늘 이사야 예언자이다.

BM1
149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 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이사 53,7-8)

끝으로 예언자는 그분의 고통으로 맺은 열매, 곧 우리의 구원과 그분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이사 53,10-12)

3.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구하러 오셨고”(마태 18,11),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습니다.”(마태 16,21) 과연 그분은 생명을 바쳐 모든 이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우스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루카 24,26)라며 기억을 떠올려 주십니다. 성 베드로는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1베드 3,18)라고 말합니다.

성찰 -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는지 묵상하는가? |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해 주신 분을 나는 사랑하고 감사드리는가? 나는 십자가에 대한 신심이 있는가?

BM1
150

결심 - 성 바오로의 다음 말씀을 자주 숙고하도록 할 것.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1코린 15,3)

기도 - 예수님, 당신은 선한 목자로서 잃은 양들을 찾으시고 자 하늘에서 내려오셨나이다. 또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나이다. 당신은 아버지로서 방탕한 아들의 원초적 영예를 회복시켜 되돌려주셨나이다. 당신은 복음 속의 여인처럼 잃은 은전을 찾을 때까지 살살이 살피셨나이다.¹⁶⁶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구세주께서는 찬미받으소서.

65.

개별적 구원의 열매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에페 4,20-24)

166. 루카 15,8-9 참조.

1.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풍요롭습니다. 아담의 죄와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모든 이를 위한 은총을 얻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은총을 얻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보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회의 열매를 맺으시어 이를 가치롭게 만드셨고, 당신 참회의 열매를 성부께 바치셨으며, | 성부께서는 이 열매를 받아들이셨습니다.”(트렌토 공의회)¹⁶⁷

BM1
151

그런데 구원의 열매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되며, 늘 우리의 힘이 요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에게 당신 구원의 선물을 여러 가지 형태로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은총은 거부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은총을 거부하였습니다.

원죄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사해됩니다. 본죄는 보속을 함으로써 사해지며, 모든 성사를 통해서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성제를 통하여 아주 풍성하게 은총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선행, 덕행 실천, 기도, 성령과 친교 등을 통해 은총을 풍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은총을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며, 하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의 권리를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조력은총을 풍부하게 받을 수 있으며, 아주 요긴할 때 이 은총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은총을 적절한 때에 늘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의 전구와 수호천사의 보호,

167. 트렌토 공의회, “참회의 성사에 관한 교의”, 1551년 11월 25일, 8장(덴칭거-휘너만,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 선언 편람」, 다국어판, 1995, 1691번).

성인들과 연옥영혼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¹⁶⁸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에페 1,3)

2. 우리는 아담의 경우처럼 밝은 지혜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지라도 천국에서 하느님을 뵙는 지복직관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탁월한 지혜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지상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 선물을 통하여 계시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계시된 이 진리는 지극히 고귀한 신비입니다.

완전무결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은총의 도움으로 우리는 욕정을 제어하고, 투쟁으로 공로와 성덕을 쌓아 성장해 나갑니다.

BM1
152

우리는 질병과 죽음에서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범으로 우리를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것들을 끌어안도록 하시고, 공로와 영광의 수단으로 삼게 하십니다. 성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냅니다.”(로마 5,3) 이러한 방법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지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본질상 힘겨운 것일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극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완전무결함의 은혜와 무욕의 은혜, 무덤을 열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총

168. 로마 5,20.

을 얻게 될 것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수난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은혜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영혼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과 음식, 의복 등의 은혜가 바로 그러합니다.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히브 5,9)

성찰 - 나는 구원의 열매를 알고 있는가? 그것을 체감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획득했는가?

결심 -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여 살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 희망을 두는 이에게는 구원이 되시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에게는 멸망이 되신다.

기도 - 오 하느님, 유다에게는 그의 범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고, | 오른쪽 강도에게는 그의 신앙고백에 대한 상을 내리셨으니, 저희가 당신의 자비로우신 결정을 깨닫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을 겪으실 때, 오른 쪽 강도와 왼쪽 강도의 처신에 맞게 대처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 안에 남아 있는 낡은 인간성의 탈선을 없애주시고, 당신 부활의 은총을 저희에게 허락하소서.

BM1
153

66.

사회적 구원의 열매¹⁶⁹

“정녕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머지않아 나는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리니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이리 들어오리라. 그리하여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하카 2,6-7)

1.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수천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오류와 악행, 우상숭배의 구렁으로 계속 빠져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세기의 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과 사회는 새로운 생명을 향해 고향되었습니다. 열매의 선함은 뿌리의 선함입니다.

1) 그리스도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각 사람을 해방시킵니다.

첫 번째는 오류에서의 해방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권위와 무오류의 성무를 통해, 그리고 사제들이 지속적으로 설교하는 진리를 통해, 끊임없이 창궐하는 오류와 이단들을 거슬러 싸우며 보호해주는 목자들의 사목을 통해 각 사람을 오류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우상과 미신에서의 해방입니다. 이교도 사이에서 성행하던 우상과 미신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교 믿음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곳에서 성행하고 있는 우상과 미신에서 각 사람을

169. 제2판에서는(1952) 제목이 “구원의 사회적 열매”였다.

해방시켜 줍니다.

BM1
154

세 번째는 퇴폐풍조에서의 해방입니다. 미신자들에게 널리 확산되어 있고, 제우스와 비너스, 메르크리우스 등의 신들을 공경하는 비도덕적인 신화에 널리 퍼져 있는 퇴폐풍조에서 각 사람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수호하여 양심을 따르고, 도덕적, 물질적, 지적, 영적 완성 작업의 위대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2. ㄴ) 그리스도교는 가정에 관련하여, 이교도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자녀와 아기, 노인에 대한 생살여탈권을 휘두르던 가부장적 폭압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부모들의 엄중한 의무와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중해야 하는 자녀들의 엄중한 의무를 일깨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을 거룩하게 축성하고, 동정생활을 권고하며, 가족간의 특별한 유대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노예제를 폐지하고, 모든 이를 향한 사랑의 계명을 끊임없이 가르치며, 살인을 단죄하였습니다.

ㄷ) 그리스도교는 사회와 관련된 교리를 가르치고, 교조주의의 남용을 단죄하며, 시민법의 핵심 정신을 깨우쳐 주어 전체주의를 거슬러 싸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노동자의 향상을 도모하여 자본 계급의 착취에 시달리지 않게 하고, 합당한 임금을 받으며, 인간과 그리스도인,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받게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정의의 원리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의 원리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합법적인¹⁷⁰ 권위, 장상, 고용주에게 주어진 권한에 관해서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3. 그리스도교는 새로운 문명을 전파하여 두 가지 주요 요소가 결실을 맺게 하였습니다. ‘진리’와 ‘풍습의 성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어서 부차적으로 맺은 결실도 있습니다. 과학, 예술, 경제적 진보, 질적으로 보다 향상된 생활, 논쟁을 해결하는 평화적인 방식, 사회적 의무를 정의롭게 부과하는 우수성, 사회적 공동선의 건설을 위한 공평한 참여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또한 올바른 국가주의와 지속적인 국제협력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사람들 모두가 한 분이신 하느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은혜를 입은 존재이며,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행복의 초대를 받았음을 인식시켜 줍니다.¹⁷¹

BM1
155

성찰 -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나는 이것에 대해 숙고하는가? 나는 이 은혜들을 활용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는가?

결심 - 가톨릭 호교론에 관련된 책을 읽도록 할 것. 적어도 관련 콘퍼런스에 참여하거나 공공연한 종교 반대 논리에 대한 응답을 고찰할 것.

기도 - 오 선하신 스승이시여, 구원 사업에 대해 깊이 숙고하

170. 교회가 본분을 잘 지키도록 가르쳤다는 의미.

171.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사회 교리」(1948)에서 발전시킨 개념이다.(성바오로 출판사, 로마 1985)

고 찬미하나이다. 참된 의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¹⁷² 피상적인 과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교적 정신에서 멀어지게 하고, 심오한 과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교적 정신으로 되돌아오게 합니다.

오 주님,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보다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입은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며, 사랑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빈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 사려 깊지 못한 반발심이 제 영혼을 사로잡지 않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¹⁷³

BM1
156

67.

하느님을 알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한 17,3)

1.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는 성전에 계시듯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1코린 6,20)¹⁷⁴ 우리가 감실과 성광에 모신 분을 경배하듯이

172. 위대한 인물들.

173. 요한 6,68.

174.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들은 ‘영광스럽게 하다’까지만 번역되어 있다. ‘모시다’는 일부 성경 번역본에만 번역되어 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바로 이 성경구절에 바탕하여 소책자 제목을 정하기도 하였다. 1954년 「성 바오로」지에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처음 출판되었고, 이어서 「바오로 가족들에게」라는 소책자에 소개되었다. 「복음을 위한 몸과 마음」, (서울-바오로딸), 261-309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성삼위를 모시고 존경해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를 알고 본받으며 사랑해야 합니다.

본성적으로 한 분이시고, 위격으로는 세 분이신 하느님을 ‘알아야 하고’, 각 위격의 활동과 우리의 내부, 그리고 하늘과 땅 위에서의 활동도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서는 하느님을 관상하고, 땅에서는 살아 있는 믿음이 되게 하며, 우리의 생각은 할 수 있는 한 반드시 하느님을 향해야 합니다.

‘성부를 알고’, 그분의 자비로우신 섭리를 알며, 그분을 사랑하고 소유할 때 체험하는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페르폴리아노는, “하느님 아버지만큼 경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느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기쁘게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마태 11,25)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 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요한 11,41)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자를 알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가르침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미사성제에서 우리의 음식이 되어주시고, 지상에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주시며, 하늘에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제요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비록 분노와 악마의 자녀였지만, 그분의 자비를 입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BM1
157

우리는 ‘성령을 알고’,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통교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성사에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교회의 생명

이 되어 주시며, 하늘에서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비를 베풀고 진리를 사랑하며 일치를 갈망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기억하라고 성 아구스티노는 말합니다.

2. ‘본받다’. 하나님과의 일치는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7,22)라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완덕’은 결점을 계속 제거하고 성덕을 얻음으로써 본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 거룩한 어느 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세상에 죽을 때 본받는 것인데, 이는 영혼이 육신을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세 사물에서 이탈했을 때를 뜻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미워하기 시작할 때 본받게 됩니다. 또 우리는 천상적인 것을 끊임없이 목말라하며 세속적인 것을 멀리할 때 본받게 되고,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다만 그것을 사용할 줄 알 때 본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세상보다는 영적으로 늘 하늘에 거할 때 본받게 됩니다.”

BM1
158

3.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는 기도를 부지런히 바치도록 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정성 들여 십자성호를 긋도록 하십시오. 지극히 거룩한 성모 마리아와 일치하여 ‘마니피캣’(루카 1,46)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교회와 한 마음으로 대영광송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영혼은 지극히 거

룩한 성삼위를 흠숭하고, 성삼위의 현존을 의식하고, 존경하며, 흠숭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더 나아가 성삼위께 의탁하는 것에 습관을 드리도록 하고, 깊은 존경과 끊임없이 찬미를 바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성찰 - 나는 내 안에서 거룩하신 분의 현존을 느끼는가? 나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를 알고, 본받으며, 그분께 기도드리는가?

결심 - 잠심에 길들여지도록 노력할 것.

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의 종을 일깨워, 참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당신 엄위의 영원한 영광을 알게 하소서. 당신께 비오니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온갖 역경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68.

창조되지 않은 은총

BM1
159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육육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요한 1,12-13)

1. 지극히 거룩한 성삼위께서는 우리 영혼 안에 살아 계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삼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온전히 내어 주시어 우리 영혼 안에 내밀하고 신적인 방식으로 살아 계십니

다. 성부께서 살아 계시면서 계속하여 성자를 낳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부의 완전한 모상이시고 본질이시며 광채이신 성자를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께서는 서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 무한한 사랑은 성령이시며, 앞선 두 위격을 일치시키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분 스스로 다른 두 위격과 완전히 똑같은 신성한 위격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합체인지요! 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며, 협력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하느님 협회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할 뿐 아니라, 하느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시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로마 8,15-16)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2. 우리 안에 있는 신적 생명은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2베드 1,4) 하느님의 본성과 똑같지 않지만, 비슷합니다. 하느님을 닮은 생명이고, 새로운 탄생입니다. |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한 3,5) “하느님께서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야고 1,18)

BM1
160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1요한 3,1)

하느님은 우리에게 친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요한 15,15) 그분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2코린 3,5)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필리 2,13)

그분은 성인^{聖人}이 되게 하시고, 당신이 거하시는 곳과 성전을 고귀하게 만드시듯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1코린 3,16)

3. 거룩하고 나누임이 없으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서는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서는 내 영혼 안에 머물고 싶어하십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오 지극히 거룩한 성삼위시여, 제 영혼을 영원토록 차지하소서!

성 대 레오 교황은 “오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은 당신의 존엄성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다시는 무가치한 생활에 빠져들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존중하고, 또한 자신의 육신도 존중합니다.

성찰 -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보물이 어떤 것인지 나는 잘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하느님의 모상을 진흙탕 속에 내팽개친 적은

BM1
161
없는가? |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보다 잘 꾸미기 위하여 늘 기도
하고 작업하는가?

결심 - 나는 엄청난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기 위해 조심하며
정성을 다하겠다. 그리고 많은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의 길을 가
로질러 가도록 한다.

기도 - 스승 예수님, 당신의 위대한 선물을 제가 한층 더 잘
깨닫게 해주소서. 당신이 아신 만큼 제 지성이 당신을 알게 해
주시고, 제 마음이 당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소서. 저
의 하느님, 당신은 저를 두 번이나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거룩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나이다. 제 마음을 다하여 당신께 감사드리
오며, 보다 합당하게 감사드리기 위해 영원을 고대하나이다. 삼
위의 영광이시며 본향이시여!

69.

성화은총 - I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
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
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
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로마 8,26-27)

1. 성화은총은 형용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인간
은 이 은총으로 죄에서 해방됩니다. 죄로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
과 같은 성인이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됩니다. 이는 예수 그

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얻어주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성화은총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표현하지만 그 모든 명칭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화은총은 ‘의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을 초자연적 목표로서 하느님 앞에서 충분히 의롭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화은총 또는 성화은총이라고 하는데, 이
는 | 단순히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인간
이 하느님의 ‘완덕과 거룩함’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BM1
162

성화은총은 ‘하느님의 우정’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삼위일체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성화은총은 ‘자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영혼이 하느님의 사
랑받는 소중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화은총은 신적 ‘양자결연’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며, 실제로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
은 자연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자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성화은총은 하느님 또는 성령의 ‘거처’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삼위이신 하느님께서 의로운 영혼에 거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러한 사랑의 행위는 성령의 고유한 활동입니다.

2. 은총은 인간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며, 영혼
을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관계로 맺어줍니다. 은총은 영원한 구
원을 얻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은총은 성부께서 인자하게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느님의 자비

로운 은혜입니다. 은총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열매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은총은 세례를 받고 보속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세례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보속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죄를 범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세상에서 공로를 쌓는 일은 언제나 모두에게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지복의 목적인 하느님을 갈망하고, 죄를 혐오하며, 성사생활에 열중하는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회심할 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BM1
163 영혼은 씻기고, 정화되며, 새로워지고, | 눈처럼 하얗게 될 것이며, 성인들과 천사들의 자매가 되고, 천상의 빛을 받아서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왕국이 자리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 이미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바오로는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부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낡은 인간은 죽고, 우리는 하느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그분 신비체의 지체가 됩니다.

3. 오 주님, 당신은 놀라운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한층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인간을 재창조하셨으니 거룩한 미사에서 봉헌되는 물과 포도주의 신비를 통하여, 하느님이시며, 기꺼이 우리 인간의 몸을 취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드님, 우리의 주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성령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¹⁷⁵

성찰 - 나는 은총에 관한 가톨릭 교리를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은총을 입고 있는가? 나는 이 은총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은총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있는가? 사도직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은총 속에 살게 하고 선한 생활로 은총을 증대시키도록 인도하는 것임을 나는 이해하고 있는가?

결심 -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¹⁷⁶고 하신 천상 스승의 말씀을 자주 기억하도록 한다.

기도 - 오 주님, 제 안에 머무소서. | 저는 죄를 미워하나이 BM1
164 다. 죄는 제 안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유일한 장애물이고, 제 마음의 당신 성전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당신은 말씀하셨나이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잇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없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잇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¹⁷⁷ 그렇듯 당신은 저를 무한히 사랑하시니, 저는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고 싶나이다. 오 예수님, 오소서. 가장 거룩하고 친밀하며 변함없는 우정을 맺어주소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저의 것이고,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¹⁷⁸

175. 옛날 미사경문에서, 사제가 포도주에 몇 방울의 물을 부으면서 바치는 기도문이다. “Deus, qui humanae substantiae dignitatem mirabiliter condidisti, et mirabilis reformasti: da nobis per hujus aquae et vini mysterium ejus divinitatis esse consortes, qui humanitatis nostrae fieri dignatus est particeps, Jesus Christus, Filius tuus, Dominus noster: Qui tecum vivit et regnat in unitate Spiritus Sancti Deus: per omnia saecula saeculorum. Amen.”

176. 요한 10,10.

177. 이사 49,15.

178. 아가 2,16 참조.

70.

성화는총 - II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요한 14,15-17)

1. 한 분이시고 삼위이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리고 하늘에서와 같이 선한 그리스도인 안에 사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천국에서 완성될 것이나, 열심한 영혼은 지상에서 미리 그 기쁨을 맛봅니다.

그분은 가장 위대한 분이시고,¹⁷⁹ 시작이시며,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의 목적이십니다. 한 분이시고 삼위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열심한 영혼들은 깊이 잠심하면서,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의 영원한 광채를 묵상하고 관상하며, 그분의 품 안에서 평온하게 쉽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바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

179. 고대에 이 칭호는 특히 비문에서 제우스신을 지칭한다(Jupiter optimus et maximus, 약어로는 JOM).

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모든 활동을 성삼위께 방향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십자성호를 그으며,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이 영혼들은 지극히 거룩한 성삼위의 영원한 신적 업적을 관상하고, 성삼위의 고유한 각각의 활동과 속성을 찬미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어주시고, 지혜롭고 현명하며, 슬기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마태 11,25)

2. 하나이시고 삼위이신 하나님을 닮도록 합시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영혼 안에 머무시어 그를 당신과 비슷하게 만드시며, 당신의 선하신 본성에 참여케 하시고, 당신의 완전함과 생명, 그리고 성덕을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갈 때 지나는 경건한 신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신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꾸미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삼위께서 하나이시듯 순결, 인내, 형제적 자비를 통해 우리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삼위의 현존을 의식하도록 합시다. 기도할 때만 아니라, 하루 일과 내내 그분의 현존을 의식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속적으로 그분을 생각하여 우리의 모든 활동으로,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그분께 영광을 바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

BM1
166

서 하늘나라의 삶을 미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복음의 참행복을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발견했습니다. | 천국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그것을 붙잡았으며, 여기서 내 안에 품었습니다.”¹⁸⁰

3. 하느님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성당에서 우리가 감실을 향해 인사드리는 것처럼, 성당 밖에서는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시는 성삼위의 감실을 향해 그렇게 인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께 신뢰하며 대화를 나누도록 합시다. 이것은 위대한 사랑의 행위이며, 하느님께서 양자들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주시는 자애로운 선물입니다. 주님께 거룩한 친밀감을 가지고 모든 비밀, 고통, 소망을 털어놓도록 합시다.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내 아들이,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 오.”(잠언 23,26)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를 미워하고, 그분의 무한한 은총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그분께 영광을 바치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도록 합시다. “나는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합니다.”(요한 8,29)

성찰 - 나는 내 마음의 이 거룩한 손님을 생각하고, 느끼며, 사랑하고, 기도하는가?

결심 - 나의 일과중에 가끔 멈춰 서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느님 현존에 잠기도록 한다.

기도 - 주님, 제 마음에 천국을 마련하시고, 늘 머물러 계시니, 당신의 음성과 당신의 현존, 당신의 초대에 귀 기울이게 해주소서.

180. 성삼위의 엘리사벳 수녀(1880-1906) 기도에서 인용.

당신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참으로 달콤하나이다! 당신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친밀한지요! 저는 이렇게 천국을 앞당겨 즐기고 싶나이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영원한 정의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복음과 참행복의 | 약속을 제가 맞볼 수 있게 해주소서.

BM1
167

71.

성화 은총 - III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 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로마 7,21-25)

1. 겸덕은 은총을 받아들일 마음을 지니게 해주고,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ㄱ) 마음의 회개. 이 회개를 통해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갑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승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나) 항구함. 올바른 길을 걷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빛나가지 않고 항구하게 앞으로 걸어갑니다. 혹시 불행히 죄에 빠지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반성하며, 올바른 길로 용기를 내어 걸어갑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과 우정을 나누며 다른 생명으로 건너갑니다.

다) 영웅적인 성덕. 이것은 영광의 제단에 올려진 성인들의 성덕을 말합니다. 그들은 비범한 수준으로 믿음과 희망,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들은 범상치 않은 행위를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평범한 덕행 속에서 사랑과 인내심으로 비범하게 열심히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라) 신비적인 성덕. 이것은 초자연적인 은혜, 곧 환시와 황홀경, 계시의 은혜를 입은 성인들의 성덕을 말합니다.

로) 특별한 성덕.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와 성 요셉, 세례자 성 요한의 성덕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BM1
168

2. 무엇보다도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평범한 성덕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삶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니다. 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한층 더 친밀하게 예수님과 일치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커져 갔고, 은총도 더해갔습니니다.

신분에 따른 일상의 의무 준수, 결점을 의지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 고요한 성소에 상응하는 행위, 열심한 기도와 자주 성사에 참여함 등은 훌륭한 수단들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죄에 빠졌을 때 간절히 은총을 구하고, 은총을 받은 후에는 선행을 통해 은총을 증대시키기 위해 부지

런히 노력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느님께 의탁하여 도움을 청하고, 어둠의 세력을 거슬러 싸웁니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쓰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에페 6,12-16)

끝까지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성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2)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푸셨기에 “원하는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¹⁸¹

3. 이 은총은 탁월한 보물이며, 영원합니다. 하늘나라는 귀한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아름다운 보물을 발견하여,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삽니다.¹⁸² 성인들은 모든 것을, 때로는 생명까지도 내어주고 구원

181. 알베리오네 신부는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나 그의 독자들에게 꽤나 잘 알려진 어느 책 제목을 인용하고 있다. 1956년 어느 강론에서도 이를 암시하고 있다. “원하는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녀 수도자들에게만 아니라, 평범한 신자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그 상태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고, 실천하며,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은총을 받았습니니다.”(「스승예수에게 자수녀들에게」, 1956년 3월)

182. 마태 13,44-46 참조.

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BM1
169

성찰 - 나는 내 신분에 걸맞는 성덕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가? 나는 일상의 의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가? 나는 이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이러한 평범한 성덕을 추구하는가?

결심 - “원하는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격언을 기억할 것. 모든 실망은 마귀의 유혹이다.

기도 - “나는 은총을 왕홀과 왕좌보다 더 좋아하고, 은총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값은 헤아릴 수 없는 보석도 은총과 견주지 않았다. 온 세상의 금도 은총과 마주하면 한 줌의 모래이고, 은도 은총 앞에서는 진흙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는 은총을 건강이나 미모보다 더 사랑하고, 빛보다 은총을 얻기를 선호하였다. 은총에서 끊임없이 광채가 나오기 때문이다. 은총과 함께 좋은 것이 다 나에게 왔다.”¹⁸³
주님, 제가 은총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한층 더 존중하며, 한층 더 추구하게 하소서.(편의상 기도와 성경인용문의 위치를 편집자가 바꾸었음)

72.

조력은총 - I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

183. 지혜 7,8-11 참조. 알베리오네 신부는 거룩한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지혜의 자리에 은총으로 대체하여 적용시키고 있다.

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요한 14,12-13)

1. 조력은총은 주님께서 인간의 내면을 통해 주시는 초자연적 도움입니다. 정신을 밝혀주는 빛이고, 의지를 달래주는 위로이며, 마음을 움직여주는 동력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느님의 자비활동입니다. 이를 통하여 인간은 덕행을 실천하고 천국을 지향하는 구원활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조력은총은 우리의 정신을 비추어줍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죄에 빠지게 하는 악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 회개할 수 있으며, | 덕행의 가치를 이해하여 진보할 수 있습니다.

BM1
170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눈을 열어주시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 설파된 진리를 알아듣게 해주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하셔서 우리의 정신을 비추어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해냈다고 여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2코린 3,5)라고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2. 이 은총은 인간의 의지를 촉진하고conforta¹⁸⁴ 에너지를 북돋아주며, 구원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의를

184. conforta는 라틴어의 의미에 따라 ‘강하게 만들다’, ‘견고히 하다’로 이해한다.

지니게 해줍니다. 천상 은총은 선으로 부르시고, 격려하며, 자극하고, 재촉하며, 인도합니다. 참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은총입니다. 어머니는 아직은 나약한 아기를 격려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붙들어주며, 손을 붙잡아서 걸음을 옮겨주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요한 6,44) 성 바오로는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¹⁸⁵라고 말합니다.

만일에 사람이 강압적으로 악의 유혹을 느끼고 충동을 받을 때 기도를 하면 저항하고자 하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 굳건해질 것이고, 대비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악의 유혹 자체에서 어떤 가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3. 조력은총은 또한 마음을 움직이며 초자연적 성향과 소망, 욕구를 일으켜줍니다. 트렌토 공의회에 의하면, | 사람들은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에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은총을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¹⁸⁶ 그러니까 기억력과 상상력, 감각적인 능력과 같은 감각 기능에 어떤 동력이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은 아름답고, 유익하며, 유쾌합니다 giocondo.¹⁸⁷ 그러나 악은 더럽고, 밋고, 혐오스럽습니다. 이를 다 음과 같은 것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더러 강렬한 목소리와 영적

185. 필리 2,13.

186. 트렌토 공의회, “의화에 관한 교령”, 1547년 1월 13일, 5장(덴칭거-휘너만,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 선언 편람」, 다국어판, 1995, 1525번).

187. 호감이 가는(piacevole), 매력이 있는(attrainte).

체험, 열정적인 얼굴 등에서 관대함, 거룩한 열정, 하느님 현존 의식, 내적인 친교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성찰 - 나는 조력은총의 귀중함을 알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의지, 마음에 대한 이 은총의 가치를 인정하는가? 나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향구하게 간청하는가?

결심 -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도우심을 얻을 때에만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명심할 것.

기도 - 주님, 제게 오셔서 도와주소서. 주님, 어서 오시어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들이 혼란에 빠지고 창피를 당하게 하소서. 저를 악에 빠트리려고 하는 자들이 도망치고 얼굴 붉히게 하소서. 제 불행을 즐기는 자들이 도망가고 수치를 느끼게 하소서. ... 저는 가난하고 초라할 뿐입니다. 오 주님, 저를 도우소서. 당신은 저의 도움이시며 저의 해방자이십니다. 주님, 어서 오소서.¹⁸⁸

73.

조력은총 - II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

1. 조력은총은 성령께서 매순간 영혼에 작용하여 자극하고

188. 시편 70편에서 영감을 얻은 기도.

위로하며, 빛을 비추어주는 활동입니다. 이 은총의 활동은 종종 인간의 참여 없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가끔은 인간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은총에 협력합니다.

은총은 때때로 우리를 예방해주고, 때로는 우리를 동반하며 또 때로는 우리를 지켜봅니다.

자연적인 질병에서 구원해 줄 때 영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재한 힘을 증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행위들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의 능력들을 향상시킬 때 고양시키는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신자들과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믿음과 은총에 이르게 해줍니다. 이것은 좋은 생각과 거룩한 원의를 일으켜 주고, 마음을 움직여 주며, 하느님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 그러나 너희가 마다하고 거스르면 칼날에 먹히리라.”(이사 1,16-20)

이것은 또한 의로운 영혼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가치있는 일에 투신하게 해줍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요한 15,4)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 아무것도, 그러니까 적게도 많게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총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 의로운 사람이, 비록 성인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길에서 항구하게 정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또한 특별한 조력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두려워하고, 경계하며, 기도하고, 모

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 하여라.”(마태 26,41)

죽는 순간까지 부르심과 성덕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충실함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위대한 은혜입니다. 성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나는 확신합니다.”(필리 1,6) 그리고 성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은총의 하느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 주신 그분께서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1베드 5,10) 교회는 우리의 구원과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영원한 멸망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저희가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해주소서.”

순결하고 선한 영혼들이 전 생애에 걸쳐 비록 소죄일지라도 각종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도우심과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3. 주님,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은총을 모두에게 베풀어주소서. 완고한 죄인들과 미신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주소서. 의로운 이들에게는 더 많은 은총을 베푸시어 하느님의 계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소서. 첫 번째 은총은 순수하고 자비롭게 주어졌고, 이후의 은총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찰 - 나는 조력은총에 대해 깊이 신뢰하는가? 나는 조력은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나는 조력은총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하는가? 조력은총과 일치하며 살아가는가?

BM1
174

결심 - 성 아우구스티노의 금언을 유념할 것. “그대(의 협력) 없이 그대를 만드신 하느님께서서는 그대(의 협력) 없이는 그대를 의롭게 하시지 않으신다.”¹⁸⁹ 그분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너를 창조하셨지만, 그분은 내가 진실로 구원받기를 원할 때만 너를 구원하신다.

기도 - 오 주님, 제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은총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당신께 기울이게 하시어, 저희가 당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저는 제 마음을 당신께 향하게 하여 당신의 계명을 지켰나이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저는 제 입을 열어 영을 들이마셨나이다.” “오 주님, 순수한 마음을 제 안에 심어주소서.” “주님 제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¹⁹⁰

주님, 당신 자비로 제게 은총을 베풀어주소서. 나아가 당신의 은총에 일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74.

창조된 은총 - I¹⁹¹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

189.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 169, “Qui ergo fecit te sine te, non te iustificat sine te.”

190. 일련의 성경구절들이지만, 정확한 인용 출처를 찾아내기 힘든 부분이다.

191. 두 번째 인쇄본에서는 제목이 “초자연적 조직 - I”이었다.

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요한 15,13-15)

1. 창조된 은총은 성령의 친교입니다 *Comunicatio Sancti Spiritus*.¹⁹²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로마 5,5)

이러한 창조된 은총은 초자연적인 은혜로서 항구하게 영혼에 활동하여 인간이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되며, 하느님의 마음에 들게 합니다. 신성에 참여하고, 하느님의 양자로 그분과 친구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가치있는 공로를 쌓을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안에 접목되는 것입니다. 현세와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내적 본질에서도 외적 활동에서도 하느님을 점점 친밀하게 닮아갑니다.

인간 스스로 요구할 수도, 생각할 수도, 갈망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원죄로 인해 그 은혜를 상실한 이후로 하느님께서 직접 그 은혜를 베풀고 또 베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은총과는 달리, 영혼에 영구적으로 작용하는 은총입니다.

192. 2코린 13,13. “창조되지 않은 은총”(묵상 68 참조)과 “창조된 은총” 간의 구별을 주목하기 바란다. 창조된 은총은 인간 피조물에 개입하는 은총을 지칭하는데, 지금 이 항목의 묵상과 이어지는 묵상에서 다루고 있다.

BM1
175

2. 인간은 처음에는 죄인이었다가, 하느님의 벗이 되고, 내적으로 거룩하게 되며, 의롭게 되고, 신비체의 지체가 됩니다.

하느님의 양자가 됩니다: 단순한 피조물에서 양자결연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이가 위인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이 양자결연은 인간적인 양자결연과 다소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놀라워서 인간적인 양자결연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벗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좋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요한 15,14-15) 이 우정은 애정과 선익, 기쁨과 위로를 수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접목된 후에, 장차 행할 선행은 그리스도께 귀속될 것이며, 초자연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BM1 3. “그분께서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176 우리에게 내려 주시어, 여러분이 그 약속 덕분에, 욕망으로 이 세상에 빚어진 멸망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2베드 1,4)라고 성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루 형용할 길 없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은 특히 은혜를 잘 보존하고 부지런히 그 은혜를 증대시키는 데서 나타납니다.

성찰 - 내 마음 안에 있는 은총의 위대한 보물에 대해 나는 존경심과 신앙심을 지니고 있는가?

결심 -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내게 초자연적 생명을 선물해 주신 주님께 매일 감사드리도록 한다.

기도 - 주님, 성령의 빛으로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이끌어주셨으니, 성령 안에서 올바른 것들을 음미하게 해주시고, 늘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소서.

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자비롭게 정화하시고, 모든 불행과 위협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소서.

오 위로자 성령이시여, 성자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의 정신을 비추어주시고, 모든 진리 안으로 저희를 이끌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온 마음을 살피시고 저희의 모든 의지를 알고 계시는 당신께는 어떠한 비밀도 있을 수 없으니,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의 감정과 생각을 정화해 주소서. 그로써 저희가 온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합당하게 당신을 찬양할 수 있나이다.¹⁹³

75.

창조된 은총 - II¹⁹⁴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죄가 여

193. 성령께 봉헌하여 거행된 전례에서 발췌된 미사경문과 기도문이다.

194. 두 번째 인쇄본에서는(1952), 제목이 “초자연적 조직 -II”였다.

러분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습니다.”(로마 6,11-14)

1.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23) 지극히 거룩한 성삼위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머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어 그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거의 대부분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고백성사, 그리고 특히 영성체 때 일어납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와 성령께서 영혼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후에 영혼이 완전한 회심의 마음으로 은총에 순응할 때 모든 것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져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생명, 또는 신적인 생명, 그리스도교적 생명, 은총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연계에서 생명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기원이며, 이것은 생명의 원천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기능이며, 생명체의 활동이 생기게 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행위이며, 생활 에너지를 길로 드러내고 이것을 발전시킵니다.

초자연계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하느님의 현존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상존은총 *gratia habitualis*, 또는 생명의 기원으로, 하느님을 닮게 해줍니다. 말하자면 영혼의 본성 자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초자연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의 생명은 자연적인 생명과 구별됩니다. 단순하게 겹쳐놓은 것이 아닙니다. 은총의 생명은 영혼에 침투하여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합니다. | 인간 안에 내재하는 인간 본성과 교육, 습관과 같은 모든 것을 선하게 동화시켜줍니다. 인간의 모든 요소에 초자연적인 공로가 있는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완성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이렇게 공부와 노동, 식사, 호흡, 그리고 무의미한 각종 행위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쓸모있게 됩니다. 가령 음식 섭취는 짐승에게나 사람에게나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단순히 야성적인 본능 행위일 뿐이고, 인간은 이성적인 행위로서 인간적인 것입니다.

2. 은총에서 솟아나오는 두 번째 요소는 성령의 대신덕과 은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영혼 안에 거처하시면서 믿음의 빛을 비추어주시어, 정신을 깨우치고 함양시키며 거룩하게 해줍니다. 희망을 품게 하고 의덕과 지덕, 절덕, 용덕과 같은 윤리덕을 부여하시면서 의지를 움직이고 함양하며 거룩하게 해줍니다. 또 감정을 조정하시어, 애정을 함양시키고, 사랑을 거룩하게 하여 자비심을 고취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인간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 신성한 일, 큰 가치가 있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성 토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혼의 본질에서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능력이나 동력이 솟아나는 것처럼 은총에서 영혼의 동력이 솟아나오고, 이러한 동력 자체가 행동의 근원이 되어 덕행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새로운 원리이며, 우리 안에 거처하시고 신적인 방법으로 활동합니다.

BM1
179

3. 지극히 거룩한 성삼위께서는 조력은총grazia attuale을 베풀고 정신과 의지, 감정에 작용하시어 이러한 능력을 갖추게 해주십니다. | 조력은총의 도움으로 부여받은 능력을 통해 행동하게 되고 이 행위들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피조물간의 질서를 정해 주시며, 생물체들의 능력이 상호 조화를 이루게 하셨으니, 저의 모든 생활과 활동이 이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저의 이성과 의지, 감정이 믿음에 충실하고 초자연적인 생활에 순응하며 살아가게 해주소서.

성찰 - 위의 내용들은 초자연적 생활의 주된 원리들입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했는가? 나는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성령에게서 꼭 필요한 조력은총을 얻고자 하는가?

결심 - 나는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 그러므로 나는 초자연적인 생활을 하고자 노력할 것.

기도 - 오 천상 성령이시여, 오셔서 제 안에 머무소서. 저의 전 존재와 영혼, 지성, 의지, 감정을 다스리소서.

76.

은총은 불분명하다

“속죄를 과신하지 마라. 죄에 죄를 쌓을 뿐이다. “그분의 인자함이 크시니 수많은 내 죄악이 속죄받으리라.”고 말하지 마라. 정녕 자비도 분노도 다 그분께 있고, 그분의 진노가 죄인들 위에 머무르리라.”(집회 5,5-6)

1. 그리스도인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는 것이 의화에 있어 충분하고 필수적이라고 한 개신교인들의 교리는 트렌토 공의회에서 단죄받았습니다. 공의회는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하고, | 자신이 받은 은총에 대해서 의심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신이 은총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¹⁹⁵

BM1
180

성 토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지 아니면 부재하시는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깨끗이 보존하여 죄 없이 결백하다고 누가 말하랴?”(잠언 20,9) 하지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가슴 깊이 통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겸손은 반드시 당신과 함께해야 합니다. 나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물리적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는 용서를 받았음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느님의 은총을 신뢰할 수 있고, 때로는 도덕적 확실성을 통해 하느님 은총 안에 있음을 믿기도 합니다. 내적 평화를 위해서는 잘 준비된 고백성사와 고해사제의 훈화, 그리고 열정과 하느님을 섬기는 희생 정신이 필요합니다.

195. 트렌토 공의회, “의화에 관한 교령”, 1547년 1월 13일, 9장(D텐칭거-휘너만,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 선언 편람」, 다국어판, 1995, 1534번).

2. 사도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잘못된 것이 없음을 압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1코린 4,4)

이에 대해 성 토마스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나는 어떠한 죄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총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에서 말하듯 나도 모르는 은밀하게 감추어진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뜻 아니 한 허물을 누가 알 수 있는가?”¹⁹⁶ 그래서 사도 스스로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필리 2,12)

BM1 181 하느님의 특별한 계시 없이는 영혼이 확실하게 은총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죄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성사에 참여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의무적인 규정을 이행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혼이 은총을 많이 입은 그만큼 자신 안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잘못과 책임이 있지는 않은지 늘 두려워해야 합니다.”

3. 주님, 섬세한 영혼들에게 이러한 의심은 아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당신 자비에 맡기고 언제나 당신 자비를 바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이다. 저는 영적 수단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하여 당신의 은총 속에 있다는 도덕적 확실성을 보장받고 싶나이다.

열심히 기도를 바치고, 악의 위협에 빠지지 않기 위해 깨어 있

196. 시편 18,13 참조: “Delicata quis intelligit?”(불가타역)

으면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일, 영혼들을 향한 사랑, 세상에서의 이탈, 극기 수행,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를 향한 굳건한 신심, 복음적 권고에 따른 완덕 생활 등, 이러한 수단들을 모두 잘 실천할 때 용서받았다는 도덕적 확실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찰 - 나는 지난 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이와 같은 영적 수단들을 조금씩 활용하고 있는가?

결심 - 복음적 순명, 정결, 가난을 충실히 실천할 것.

기도 - 오 예수 그리스도님, 막달레나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발 앞에 제가 있나이다. | 제게 당신께 대한 강렬한 사랑을 주시고, 제가 지은 죄에 대해 깊이 통회하는 마음을 주소서. 저 또한 죄인이었던 막달레나의 겸손과 사랑을 지니게 하시어, 당신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소서.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제게 통회의 마음을 주시고, 열렬한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 그리고 용서받았다는 믿음의 평온함을 주소서.

BM1
182

77.

은총은 잃어버릴 수 있다

“주님을 경외함은 지혜요 교훈이며 믿음과 은유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주님을 경외함에 불신감을 갖지 말고 두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지 마라.”(집회 1,27-28)

1.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은 후에도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고, 하느님의 우정과 은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은총 안에 있는 영혼은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부서지기 쉬운 그릇에 자신의 보물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죄에 빠지면 그릇은 깨어집니다. 그리고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립니다. “의인이라도 죄를 짓는 날에는, 그의 의로움이 그를 구해 주지 못한다.”(에제 33,12)

천상 스승은 다음과 같이 훈계하십니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요한 15,6) 그래서 성령 Spiritus Sanctus께서는 (성 바오로를 통해-편집자 주)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1코린 10,1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만찬 때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마태 26,41)

BM1
183

2. 많은 천사들이 유혹에 빠졌고,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졌으며, 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이 유혹에 빠졌고, 하느님께서 점지하신 다윗왕이 유혹에 빠졌으며, 유다 사도가 유혹에 빠졌고, 사도들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유혹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의지와 마음과 마찬가지로 나약합니다. 그래서 자주 정신이 흐트러지고, 욕망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탄은 수천 가지 유혹으로 인간을 공격합니다. “행복하여라,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잠언 28,14)

성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훈계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1베드 5,8) 그리하여 성 바오로는 믿음 또한 잃어버릴 수 있으며, 그 자신 스스로 영원한 단죄를 두려워한다고 천명합니다.

3. 스승 예수님, 제 영혼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 있니다.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저를 구하여 주소서. 만일 나의 원수들이 나를 짓이겨 내가 죄에 빠져든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죽음이 나를 급습할 것이고, 회개할 시간적 여유를 남겨 놓지 않을 것이며, 나는 영원한 단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분은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보장할 것이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날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뜻대로 허락하실 것이고, 또한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찰 - 나는 죄를 깊이 혐오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나는 언제든 다시 죄에 빠질 수 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각종 위험에 빠질 때마다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가?

결심 - 나는 엄청난 가치의 보물을 지니고 있고, 동시에 수많은 도둑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것.

기도 - 오 주님, 저는 당신께 희망을 두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마음은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입니다. 오 천상 성심이시여,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저는 당신의 자비에 의탁하오니 결코 당신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소서. 제게 인내심을 베풀어주

BM1
184

소서. 특히 제가 유혹을 받을 때 언제나 당신께 의탁할 줄 알게 해주소서.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당신께 몸을 돌려 “나의 예수님,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계속 죄를 지어 당신의 은총을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소서.

성모 마리아님, 당신은 저의 구원이십니다. 제가 유혹을 당할 때 인내롭게 견디며 줄곧 당신께 달려가 도움을 청할 줄 알게 해주소서.

모든 죄악에서,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¹⁹⁷

78.

은총은 모든 영혼에게 동일하지 않다¹⁹⁸

“해의 광채가 다르고 달의 광채가 다르고 별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별들은 또 그 광채로 서로 구별됩니다.”(1코린 15,41)

1.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과 일치됩니다. 이러한 일치를 성덕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덕의 단계는 영혼들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이는 계속 의로운 일을 하고, 거룩한 이는 계속 거룩한 채로 있어라.”(묵시 22,11) 첫 번째 은총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은총, 백 번째, 천 번째의 은총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¹⁹⁹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겨우 사함을

197. Ab omni peccato, libera nos, Domine.

198. 두 번째 인쇄본(1952)에서는 제목이 “은총은 똑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다.

199. 이 주제에 대해서는 DF 57-58항 참조한다. “은총은 첫 번째, 두 번째, 천 번째 것일 수 있으며, 오른쪽 강도에서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의 숭고함에

받은 상태에 이르렀는가 하면, | 성 알폰소처럼 직접 겪은 보속과 설교, 시련 등을 통해 이미 단련되어 90세에 이른 사람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덕의 단계는 성령의 부으심과 우리의 협력에 따라 좌우됩니다. 은총은 선한 활동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한 진리입니다. “각자 자신의 그릇에 따라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각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라 *Secondo Vuole*,²⁰⁰ 결심과 협력의 정도에 따라 은총을 베푸십니다.”²⁰¹ 또한 성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²⁰²

2.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의 길은 동틀 녘의 빛과 같아 한낮이 될 때까지 점점 밝아진다.”(잠언 4,18) 성화는 은총과 우리의 협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됩니다. 협력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총과 그분에 대한 앎을 더욱 키워 나아가십시오.”(2베도 3,18) 성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

이르기까지 무한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요소, 곧 우리의 활동과 하느님의 은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활동은 질료적인 부분이고, 은총은 활동의 존재 또는 초자연적 가치를 부여하는 혼의 부분이다.”

200. 그가 원하는 것처럼, 또는 자신의 뜻에 따라.

201. 트렌토 공의회, “의화에 관한 교령”, 1547년 1월 13일, 7장(텐칭거-휘너만,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 선언 편람」, 다국어판, 1995, 1529번).

202. 에페 4,7.

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²⁰³ 많은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머물고 있으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어떤 별은 다른 별보다 더 빛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혼들이 영원으로 들어갈 때 지니고 있는 은총의 단계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은총과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성령께 간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자 하는 굳건한 원의를 품고 하느님께 협력해야 하며, 하늘나라의 초대에 온순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3. 오소서, 성령이여, 믿는 이들의 마음을 당신으로 채워주시고, | 당신 사랑의 천상 불꽃을 일으켜주소서. 오 스승 예수님, 제가 참된 신심을 지니게 해주소서.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언제나 간청할 줄 알게 해주시어, 모든 것에서 천상 성부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소서.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겨우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이는 힘든 일을 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강인하며 영웅적인 군인처럼 살아갑니다. 영적 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이는 은총 안에서 여리게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이는 많은 덕행으로 성인의 영웅적 삶을 살아갑니다.

성찰 - 물이 계곡으로 흘러내리듯 은총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나는 나 자신을 겸손하고 진실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은총에 협력하는가? 매일 저녁 하루 일과를 되돌아볼 때, 나는 아침보다 더 풍성한 은총 상태에 있는 자신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가?

203. 예페 4,15.

결심 - “은총을 더욱 키워 나아가십시오.”(2베드 3,18)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것.

기도 - 스승 예수님, 당신 교회의 가르침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소서. 성령께서는 당신이 좋아하시는 대로 은총을 베푸시며, 영혼의 결심과 협력에 따라 은총을 베푸시나이다. 당신 성령을 제게 보내시고, 선한 의지를 지니게 하시어, 평화를 사랑하는 영혼에게 그 평화를 풍성히 베풀어주소서.

79.

세 가지 은총

“주님께서는 넘어지는 이 누구나 붙드시고 꺾인 이 누구나 일으켜 세우신다. 모든 눈이 당신께 바라고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때에 주십니다. 당신의 손을 벌리시어 모든 생물을 호의로 배불리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모든 행동에서 성실하시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당신을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다.”(시편145,14-18)

이성을 조명해 주는 은총,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은총, 애정을 거룩하게 해주는 은총은 지성과 의지, 마음을 강화시켜 줍니다.²⁰⁴

1. 이성을 조명해 주는 은총 *grazia di illustrazione*은 우리의 지성을 비추어줍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주님

204. DF, 60항 참조: “은총은 인간의 지성에는 비추임을, 마음에는 거룩한 애정을, 의지에는 영감이라는 대단히 감탄스러운 효과를 가져온다.”

scientiarum Dominus이십니다.²⁰⁵ 그분은 작은 이들, 곧 겸손한 이들
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Intellectum dat parvulis.²⁰⁶ 예수님께서서는 성
부께 다음과 같이 감사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마태
11,25) 그분의 빛은 인간의 모든 지식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지식이 있는데, 이것은 하느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인 목표가 되며, 힘을 다하여 추종해
야 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구원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주님께서 당신께 간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것
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발걸음의 빛입니다.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시편 119,105)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에페 5,14)

2.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은총grazia di ispirazione은 의지를 격려
하여 굳건하게 해줍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
와주십시오.”(마르 9,24) 주님께서서는 불가능한 것을 실행하도록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명령하실 때, 가능한 것은 실행하
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청하라고 충고하십니다. 그리고 우
리를 도와주시어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BM1 우리는 은총에 협력해야 합니다. | 수아레즈는²⁰⁷ 다음과 같이
188

205. 1사무 2,3 참조.

206. 시편 119,130(불가타역).

207. 프란치스코 수아레즈(1548-1617), 스페인 예수회 신학자, 성 토마스에 관
한 주석가.

말합니다. “인내심이라는 은혜가 효력있는 수많은 도움을 내포
하고 있습니다. 이 도움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
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당신께 기울이게 하시어 당신
의 모든 길을 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1열왕 8,58) 그리고 교회
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저희 구원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키소서. 저희에 대한 노여움을 푸소서.”(시편 85,5)

3. 세례를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오신 성령에 의해 친
밀함의 은총이 우리 마음 안에 부여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기울어
지는 애정적인 경향pius credulitatis affectus”²⁰⁸은 성령의 증여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
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요한 6,4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가雅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당신에게 끌어 주श्य,
우리 달려가요.”(아가 1,4)

시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당신의 법령을 실천하려 제
마음을 기울입니다, 영원토록 다할 때까지.”²⁰⁹ “당신 계명의 길
을 견게 하소서. 제가 이것을 좋아합니다.”²¹⁰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
서.”(시편 51,12)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면서 인간이 그의 목표를

208. 이는 아우구스티노 학파가 설파하는 이론이다.

209. 시편 119,112.

210. 시편 119,35.

향하도록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마치 모든 살아 있는 존재들이 본능적으로 또는 자연법칙에²¹¹ 따라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들의 목표를 향해서 걷듯이 규정하십니다.

성찰 - 나는 내 안에서 활동하는 은총을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이러한 은총을 청하고 있는가? 나는 은총에 순응하는가?

BM1 189
결심 -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도록 내말기고, | 그분을 상심시켜 드리지 않도록 할 것. 만일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며, 훌륭한 사람은 성인이 되고, 항구하게 완덕에 머물며, 모든 이를 향한 선을 실천하기 위해, 은총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면 그 은총을 언제든지 청하도록 한다.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²¹² (분께) 도움을 간청하자. 이것은 오로지 그분의 도움만이 참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도 - 오 하느님, 당신의 생각을 스스로없이 다 말씀하시나, 사람의 비밀은 들추어내지 않으시니, 성령을 부어주시어 우리 내면의 생각들을 정화시켜 주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80.

공로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총이 점점 더

211. 식물적인 또는 광물적인.

212. 로마 8,26 참조.

많은 사람에게 퍼져 나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이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2코린 4,15-17)

1. 은총의 도움을 받은 영혼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행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마태 10,42)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총을 키워나갈 수 있으며,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화관을 쓰는 공로를 쌓을 수 있습니다. 성 바오로는 당신 생애 말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2티모 4,7-8)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여,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샅을 받을 뿐입니다.”(1코린 3,8)

BM1 190
우리의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이는 우리의 것인 동시에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은 공로인 동시에 그분이 쌓은 공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5,5) 참으로 예수님의 공로는 우리 머리이신 분의 공로이기에 또한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2. 우리 생애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를 위한 공로이기도 하고, 지옥을 향한 잘못이나 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 속에 자신과 함께 가져가는 것은 단지 선행과 악행뿐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것들이 변하지 않고, 증가하지 않으며, 고칠 수 없고, 소멸되지 않으며, 감소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과 은총, 영적·물적 재화는 모두 오로지 공로를 쌓기 위한 것입니다. 임종자가 마지막 날에 빈 손인 자신을 보게 될 때 얼마나 큰 후회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한편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임종자는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지 모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마태 6,20)

천국을 위해 공로를 아주 많이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총의 보물을 낭비하고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3. 트렌토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면서 끝까지 선에 충실히 임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이 약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상입니다.²¹³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어 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야고 1,12) | 성 바오로는 히브리 서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히브 10,36)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마태 5,12) 심판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한 이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성찰 - 나는 공로로 매일 보물을 쌓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는가? 나는 하늘나라의 보물에 더 민감하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지상 보물에 더 민감하게 살아가는가? 나는 지혜로운 상인들을 본받고 있는가?

결심 -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할 것.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²¹⁴

기도 - 오 주님,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일으켜 주시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저세상에서의 안식을 갈망하게 해주소서.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극복했을 때의 공로는 더욱 클 것입니다. 시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로도 그만큼 위대할 것입니다. 덕행이 탁월할수록 영광의 화관도 더욱 고귀할 것입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상급은 더욱 달콤할 것입니다. 덕행이 완전할수록 승리의 열매도 더욱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 당신과 아주 가깝게 일치하는 사람은 복되나이다. 당신과 함께, 당신을 위하여, 당신 안에서 하느님께 영광을 바칠 것이며, 하늘에서 무한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213. 트렌토 공의회, “의화에 관한 교령”, 1547년 1월 13일, 16장(덴칭거-휘너만,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 선언 편람」, 다국어판, 1995, 1545번).

214. 마태 6,33.

BM1
192

81.

성령의 은혜²¹⁵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요한 16,13-15)

1. 은총과 덕행 외에도 성령께서는 일곱 가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칠은Sacrum septenarium²¹⁶을 성령의 일곱 가지 은사라고 칭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도움이며, 이를 통해 영혼의 능력은 더욱 온유해지고 강해져서 하느님의 뜻을 추종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은 영혼은 믿음의 등불로 안내를 받고 강화되어 한층 더 완전한 행위를, 때로는 영웅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로마 8,14) 성 이레네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²¹⁷

215. DF, 101-102항.

216. 부속가: “오소서, 성령이여Veni, sancte Spiritus”.

217. 이레네오 성인이 이사11,2를 단순히 발췌한 내용.

2. 네 가지 은혜를 통해 우리의 지성은 완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통달intelletto의 은혜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진리를 더욱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sapienza의 은혜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신심과 기도, 그리스도교적 덕행을 맛들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식scienza의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 피조물에서 진리를 통달하고, 보다 숭고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의견consiglio의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실생활에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분별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²¹⁸

우리의 의지는 세 가지 은혜를 통해 완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효경pietà의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 하느님께 대해, 수도 장상에 대해, 보편적으로 이웃에 대해 언제나 사랑과 관대한 마음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기fortezza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죽음, 비웃음, 고통 등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외심timore의 은혜입니다. | 이것은 하느님을 모욕하지 않고, 연옥과 지옥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BM1
193

성령의 거룩한 도우로 성령강림일에 사도들에게 내렸던 것과 비슷한 은혜가 영혼에게 내립니다.

빛나는 믿음, 사도적 용기, 타오르는 열의, 예수님께 대한 기쁜 헌신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은 불이며, 빛이고, 활기찬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영혼을 사로잡으면서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218. 성령의 이 네 가지 은혜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복음을 위한 몸과 마음 Anima e Corpo per il Vangelo」, (서울-바오로딸), 23항 참조.

3. 오 주님,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며, 당신의 천상 위로를 맛보게 해주소서.

성찰 - 나는 성령의 은혜를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이 은혜를 청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활동에 협력하는가?

결심 - 성령께 대한 신심을 증진시킬 것.

기도 -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BM1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194

허물은 씻어 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맘 풀어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칠은을 베푸소서.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서, 영원복락 주옵소서.²¹⁹

82.

열매와 지복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219. 성령강림대축일 부속가.

이들은 자기 욕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갈라 5,22-26)

1. 성령께서는 의인들의 영혼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열매 또한 맺으십니다.²²⁰ 성 바오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²²¹ 이것들은 유쾌하고 완전하게 빈번히 이루어지는 덕스러운 활동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은사의 효과로, 보다 완전하게 성취되는 좋은 활동들로서 열매를 맺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나쁨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고 성 토마스는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무난하고 기민하게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는 덕스러운 활동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덕스러운 활동은 수고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은사를 일구는 사람은 덕행을 쌓을 것이며, 덕행을 일구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2. 지복beatitudine은 영혼에게 있어서 신적 활동의 마지막 화관입니다. 지복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 그런데 이것은 영혼에게 영원한 지복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특별한 완덕의 열매입니다.²²² 절대적인 행복은 아직 없지만 이것에 도달할 수 있는 효과

BM1
195

220. 알베리오네 신부는 ‘DF 102-104항’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열거하며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성 바오로의 서간(갈라 5,22)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표현이 단수라는 것이다. 사도는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사랑에서 모든 것이 유래되고, 상술한 구체적 인 결과들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221. 갈라 5,22.

222. 프란체스코 키에서 참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드디어 은총은 행

적인 수단들은 있습니다. 이 수단들은 훨씬 더 어려운 덕행들도 실천할 수 있도록 촉진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덟 가지 참행복을 선언하셨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마태 5,3-11)

3. 때때로 성령께서는 비범한 특별 은총을 베푸십니다.²²³ 이것은 성덕과는 무관하며, 성덕을 쌓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웃의 선익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으로서, 대부분 사람들이 선을 지향하도록 설득하고, 깨우치며,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치유 은총, 미래 예언 능력, 독심술, 언어 능력, 용변 능력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

복선언에서 경탄할 만한 구체성을 띠게 되는데, 이 행복선언은 세상의 거짓 행복이 드러나게 하고, 이 세상에서부터 어떤 행복을, 곧 미래의 완전한 행복을 미리 음미할 수 있는 활동과 비슷합니다.” 「수덕신학 입문」, 알바-로마, 1929, p.164)

223. 카리스마를 암시하고 있으며, 후대의 영성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 없는 사람은 이를 갈망하지 말고, | 이런 은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전능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언제든, 원하는 이에 게 은사를 베푸십니다.

성찰 -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내맡기는가? 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그분의 은총 아래 내려놓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가?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온전히 임하시도록 항구하게 기도하는가?

결심 - 은총에 순응하여 가장 높은 성덕을 쌓은 영혼들을 늘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낮출 것.

기도 -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당신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며,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셨나이다. 그러므로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주 하느님’이라고 외치면서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²²⁴

83.

은총에 협력함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

224. 성 비오 5세의 로마 미사경문에서 발췌한 성령 감사송.

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로마 13,11-14)

1. 인간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종속시키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²²⁵ 그분의 뜻은 모든 것 안에서 인간을 지도하고 다스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느님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께 도달하는 길이고, 유일한 장애물은 죄입니다. 죄는 하느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공로가 됩니다. 하느님의 뜻에 온순히 따르기 위해, 그리고 모든 욕정과 그 행위를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극기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하느님께 예속되기 위해서는 ‘인간 관계’를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의견과 험담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쁜 표양을 본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이것은 간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받을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그들이 가르친 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

225. DF 45항에 이미 개진되어 있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지침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우리의 뜻은 언제나 모든 것 안에서 전적인 동의와 겸손으로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라 살아간 정도의 선례만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세속 정신을 거슬러 싸우는 것은 커다란 지혜입니다.

2. 의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겨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훈련과 꾸준한 극기가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속절없는 두려움과, 일상적인 곤란 앞에서 체념하고,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게으름 등으로 갈등만 증폭됩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유부단함, 게으름, 무관심이 의지를 병들게 할 때,²²⁶ 성인들의 표양을 되새겨보면서 정신적 에너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경솔함, 악습, 욕정, 그리고 또 성급한 과잉행동, 가볍고 항구하지 못한 열정, 무질서한 행위 등이 의지를 뒤흔들 때, 하느님을 향해 충실하게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 당신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사도 9,6) 침착하게 일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러나 동시에 열정적으로 매일 실행해야 합니다.

226. 의지를 거스르는 또는 의지를 병들게 만드는 것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자주 언급하고 있다. DF 6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치유 은총은 ... 의지에 관하여, 무기력, 경망스러움, 항구하지 못한, 태만, 완고함, 악습에 물든 의지를 치유한다.” 「인쇄 사도직」 60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명하고 있다. “영성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야생 올리브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목되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치유와 성화라는 두 가지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은 영혼들을 사랑하시어 무기력, 항구하지 못한, 게으름, 완고함, 악습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승 예수님은 본질적인 성덕을 심어주시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러한 전망은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있어서 기도가 되고 삶의 과제가 되었다. “오, 성령이시여, 오순절의 여왕의 전구를 통하여 비오니, 저의 무기력함, 경망스러움, 항구하지 못한, 게으름, 완고함, 악습에서 저의 의지를 치유해주시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며, 새로운 사랑을 심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소서.”(개인 메모장)

BM1
198

3. 하느님께 예속되고, 우리의 전 존재가 의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총은 원죄 이후로 특별히 아주 크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우리가 향구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협력자이시고, 협조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그분께 의탁하며, 기도하고 호소하며,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에너지는 힘차고도 결단성있게, 향구하게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애매한 소망과 ‘하고 싶은데’라는 막연한 말은 도움이 안 됩니다. “원한다, 항상 원한다, 강하게 원한다.”²²⁷라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격언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가능한 것은 오늘 해야 하고, 내일 가능한 것은 내일 해야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아무런 기약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찰 - 나는 내 의지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 잘 인지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극기훈련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은총에 부응하고자 노력하며, 은총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가?

결심 - 승자가 아니면 패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할 것. 천국은 승자들의 화관이고, 지옥은 패자들의 치욕입니다.

기도 - 주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자유를 선물해주셨으니

227. 이 책, 묵상 52항 참조.

formati,²²⁸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굳건하게 하시어 당신의 계명들을 잘 지키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저를 인도하고 다스리게 하소서. | 당신의 뜻은 저의 모든 능력과 욕정을 지배하는 확실한 인도자입니다. 오 주님, 당신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 평화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소서! 하느님의 뜻을 준수하는 올바른 사람에게 언제까지나 평온한 기쁨을 느끼게 하소서. 극기를 행함으로써 가장 달콤한 열매를 얻게 해주소서.

BM1
199

84.

생활환경

“힘 닿는 대로 이웃들에게 다가가 지혜로운 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라. 지각 있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언제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에 대해 말하여라. 의로운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주님 경외하는 일을 자랑으로 삼아라.”(집회 9,14-16)

1. 우리는 인간이며,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도덕적 종교적 측면에서 볼 때 선한 이들, 악한 이들, 중립적인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표양을 보이거나 나쁜 표양을 보일 수 있고, 적대적이거나 호의적일 수 있습니다. 시대적 환경에 따라 삶의 모습이 오늘날은 지난 세대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날은 특수한 위험들이 있으며, 선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가령 가톨릭 조직들, 라디오, 영화 등이 그러합니다. 우리와 함께 노인들이나 젊은이들이 함께 살 수

228. formati 보다는 forniti(공급받았다)가 더 나올 것이다.

있고, 가난한 이들이나 부자들이 함께 살 수 있으며, 지식인들이나 무지한 이들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지리적인 환경에 따라 가톨릭적인 지역과 반종교적인 지역, 가난한 동네와 부자 동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대부분 수용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지역에서 우리 자신을 성화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가령 친구 관계는 우리가 선한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해사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독서, 인간 관계, 동료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가능한 최대의 거룩한 환경을 창조해낼 줄 알았습니다. 더러는 사막이나 수도원으로 은둔하여 그렇게 하였고, 시대를 위한 사명감으로 그렇게 하였으며, 동료 또는 친구들과 의기투합하여 소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BM1
200

2. 환경을 성화하십시오. 말을 통해 모든 곳을 비출 수 있습니다. 좋은 표양으로 선도할 수 있고, 기도로 은총과 축복을 길어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인자하고, 깊은 신앙에서 우리나라, 참사랑이 가득한 완벽한 생활은 주변의 모든 생활환경을 끊임없이 환히 밝혀주는 빛입니다. 초자연적 열정은 주변으로 퍼져나가 모두에게 굳은 확신과 평화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처럼 군인들, 교사들, 의사들은 자신들의 고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그리스도교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린이들, 친척들, 여인들, 젊은이들은 겸손과 사랑으로 매일 위대한 선을 실천합니다.

악을 조심하십시오. 학교와 사무실, 공장에서 동료와 협회회원, 가족 간에 나쁜 표양이 퍼질 수 있고, 위험한 이념과 사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 악을 조심해야 합니다. 악의 기회를 피하고, 기도로 방어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순결한 백합과 성덕의 꽃을 피어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은총과 승리, 마지막 보상이 아낌없이 주어질 것입니다.

유행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쁜 마음으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성화에 힘쓰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내와 친구, 직장 동료들이 자신의 남편, 친구, 동료들을 성화시키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BM1
201

성찰 - 인생은 시련이라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는가? 인생의 투쟁에서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가? 나는 승자인가? 아니면 패자인가? 성인과 순교자들의 영웅적인 신앙에서 나는 자극을 받고 있는가?

결심 - 악을 이겨낼 것. 그러나 동시에 나의 주변 환경을 성화시킬 것.

기도 - 오 인자하시고 순결하시며 너그러우신 동정 마리아님, 당신의 자비로운 눈길을 제게 보내주소서. 저는 사나운 바다 위에 떠있는 불쌍한 작은 배입니다. 매순간 바다 깊이 침몰하는 저를 구해주소서. 저는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사탄에게 명령하시고, 제 영혼을 굳세게 해주시어 한결같이 저를 비추어주소서.

그렇습니다, 제가 몇 명의 사람밖에 구할 수 없을지라도 저를 비추어주소서. 아니, 저는 당신의 은총으로 여행 중에 있는 동료들을 구하고, 많은 이들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나이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더라도 저는 당신의 능력과 인자하심에 의탁하나다. 오 마리아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85.

인류 안에서

“네 복이 완전해지도록 가난한 이에게 네 손길을 뻗어라. 살아 있는 모든 이에게 호의를 베풀고 죽은 이에 대한 호의를 거두지 마라. 우는 이들을 버려두지 말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여라. 병자 방문을 주저하지 마라.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으리라. 모든 언행에서 너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 그러면 결코 죄를 짓지 않으리라.”(집회 7,32-36)

1. 인류는, 인간이 살아가는 보다 큰 환경이며, 인간은 인류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인간은 인류 안에서 직무를 비롯해 의무와 권리도 지니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옵니다. | 그러므로 아버지 안에서 형제이며 친밀한 관계입니다.

BM1
202

인간은 모두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으며,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들로,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비록 종족이 다르고 문명과 국가가 다르지만,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모두 똑같이 영적이고 불사불멸의 영혼을 지니고 있으

며, 모두 육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인간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두가 원죄에 예속되어 있으므로 불운한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아버지께서 계시는 집, 하늘나라를 향하여 여행하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하늘나라는 모든 이가 염원하는 곳이며, 이곳에서 영원한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지복을 누릴 것입니다.

2. 사람들 사이의 사랑과 존경과 협력은 서로 상호 관계적입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심판²²⁹을 암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자기 오른 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과,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들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

229. 마태 25,34 이하.

BM1
203

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34-40)

‘존경’. 누군가가 누리는 권리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가정, 자유, 소유권은 신성한 것입니다.

살인·도둑질·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의 명예·재산·육신·영혼을 존중해야 합니다. 주인에게 권리가 있으면, 노예와 노동자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강자에게 권리가 있으면, 약자와 병자와 가난한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문화인에게 권리가 있으면, 원주민^{selvaggio}²³⁰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타인에게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각종 전쟁, 박해, 폭력으로 인해 하느님 앞에서 복수를 부르짖는 울부짖음이 커져가기만 합니다.

3. ‘협력’. 영적인 측면의 협력은 하느님의 진리를 알리고, 교회를 개방하며, 반도덕성과 오류를 거슬러 싸우는 것입니다.

지성적인 측면의 협력은 문화와 문명, 지식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의 협력은 무역 협상, 생필품과 의약품의 지원 활동과 구호 활동 등이 있습니다.

성찰 -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 나는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이웃을 향한 계명들을 준수하고 있는가? 나는 인류의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가?

230. 미개한 인간을 의미한다.

결심 - 이기주의는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할 것. 인간의 도리는 양심의 책무임을 명심할 것.

기도 -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니, | 모든 사람을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형제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소서. 죄는 인류 가족을 분열시켰으나, 복음과 구원, 교회는 인류 가족을 모으고 일치시키며, 하늘을 향한 당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게 해주나이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천주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BM1
204

86.

가정의 의무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신을 낳아 준 부모를 상전처럼 섬긴다. 말과 행동으로 네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집회 3,5-8)

1. 가정은 인간의 성화를 위한 첫 번째 환경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첫 번째 사회입니다. 가정은 성사를 통하여 탄생합니다.²³¹

일반적으로 사람은 가정에서 인생을 시작하고, 그곳에서 보

231. 그리스도교적 시각에서 바라본 가정을 말한다.

내며, 그곳에서 마감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큰 공로는 대체로 가정에서 쌓게 됩니다. 가정에 대한 충실은 한 사람의 참된 덕행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가정구성원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가 있습니다. 남편, 아버지, 아들, 아내, 어머니, 딸, 어른, 청년, 어린이, 형제, 자매, 하인 … 등, 각자의 위치가 있으며,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2. 위치에 따르는 의무가 있습니다.²³² 가정에는 종교교육, 상호간의 좋은 표양, 지속적인 사랑, 기도의 분위기, 근면한 노동이 있어야 합니다. | 모든 가정에는 먹을 음식, 거주지, 안락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있어야 합니다.

BM1
205

부모들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노동과 희생으로 시련을 헤쳐 나가면서, 자녀들을 육체적으로 건전하게 돌보고, 가능한 만큼 최고의 시민교육과 종교교육을 시키면서, 물심양면으로 훌륭하게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며, 모든 일에서 순종과 존경, 사랑, 협력으로 부모를 따르며, 도의적이고 물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주인들은,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며, 하인들과 일꾼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인들과 일꾼들은 충실하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며, 자신의 주인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연법과 그리스도교 사상은 가정을 육성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느님께서 원

232. 곧, “말겨진 지위에 따라 각각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신 대로 가정이 형성되고, 나자렛 성가정의 표양을 본받는 가정을 이루며, 지상에서 평화로운 생활로 인도해주는 데 꼭 필요한 가정이 되고, 가족 모두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끊지 못합니다. 가족은 하늘에서 다시 일치되어야 합니다. 건전한 가정은 위계질서가 잘 확립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성찰 - 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나의 임무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애정을 가지고 충실하게 임무를 잘 실행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의 영원한 영적 선익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결심 - 최후의 심판 때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내가 가정에서 범한 죄 때문에 나를 비난하거나, 가족 모두의 공동 선익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BM1
206

기도 - 스승 예수님, 가정을 축복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평화의 동지가 되게 하시고, 천사들이 가정에 머물러 보호하게 하소서. 악마의 시기를 멀리 쫓아 주시고, 나자렛 가정을 본받게 하소서.

87.

교회의 자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

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다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사도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예언자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교사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기적을 일으킬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1코린 12,27-30)

1. 교회는, 아기가 자라서 만나게 되는 두 번째 환경입니다. 사람은 교회에서 살아가며 선교 사명을 수행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시고, 그분이 시작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조직입니다.²³³

교회는 초자연적이지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한함 속에 살지만 하늘에서는 지속될 것입니다. 교회는 동요했고 박해도 받았지만 늘 승리했습니다. 교회는 모두를 새 생명으로 낳기 때문에 어머니입니다.

233. 교회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분명히 창립자 시대의 것이다. 오늘날에는 명백하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거해서 보완되었다. 우리는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공의회에 참석함은 물론이고, 열의를 가지고 자신의 영적 자녀들을 초대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에 대한 지식과 사랑, 온순함의 자세로 교황님에 의해 인도되고 공의회에 의해 순차적으로 인준된 규정들과 법률들에서 기인하는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세기의 사건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산다는 것은 공의회를 연구하고, 또 연구를 통해 얻은 최상의 이해를 우리 바오로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성 바오로」, 1964년 9월-12월호)

2. 교회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복음에 따른 법들을 세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하느님의 말씀을 설파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성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를 집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사 안에서 늘 이단에 맞서 투쟁한 교회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성무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부여받은 신적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며, 영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녀들은 초자연적이며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 때문에 기꺼이 교회에 예속되었습니다. 구원의 수단들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으며, 세상에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어머니이신 이 교회에서 양육되고 지도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수호자로서 죽음 이후에도 명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줍니다.

신자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²³⁴ 교회의 모든 지침들, 훈령들, 전례 지침, 교회법을 지키고, 더 나아가 교회가 교황과 사목자들을 통하여 제시하는 사회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충실한 자녀로서 교회를 위한 애정어린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 교황과 사제들을 위하여 바치는 열심한 기도, 신앙 전파, 성소계발을 통하여 협력할 것.

— 삶의 표양을 통해 협력할 것.

234. 루카 10,16.

BM1 — 성소계발, | 평신도 사도직 활동, 주어진 조건 속에서 교회
208 의 권리를 지지하는 활동 등을 통해 협력할 것.

3. 교회는 또한 기도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례부문에서 그러합니다. 미사경문, 성무일도, 전례서, 주교용 전례서에는 신심용 기도와 규범들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공로와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성찰 - 나는 믿음의 기본적인 나의 의무를 교회에서 이행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 협력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결심 - 나는 교회의 훌륭한 사랑받는 자녀이기를 바란다.

기도 - 오 스승이신 예수님,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며 생명과 영혼이시니, 당신의 송고한 피를 흘려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소서. 교회는 당신의 왕국이며 당신의 신비체입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의 전구로 청하오니, 교회에 자유를 주시고, 세상에서 교회를 들어 높여 주시며, 그 지체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저를 당신의 가장 충실한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88.

시 민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욕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

로 섬기십시오.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한다면, 서로가 파멸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갈라 5,13-15)

1. 시민 사회는 아기가 만나게 되는 세 번째 환경입니다. 사회에서 살아가고, 사회의 선익을 위해 사회에 참여하며, 사회에서 선교 사명을 수행하고, 이 사회에 하늘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²³⁵

시민 사회는 하느님 뜻에 부합합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BM1 209

시민 사회는 시민들의 집단과 통치권자로 구성됩니다. 시민 사회의 목적은 공통의 수단들을 통하여 현세적인 복지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두가 권력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치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지혜로운 법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은 법을 준수하면서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고, 인간적이며 그리스도교적인 자신의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이가 공동선에 동의하고, 공동체는 시민 각 개인을

235. 시민 사회를 이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러한 비전은 그리스도교적 사회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레오 13세 교황의 회칙 「새로운 사태 *Rerum novarum*」를 인용하고 있다. 이 회칙은 1950년에 이르기까지 알베리오네 신부의 저서들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앞서 인용한 사회교리에 영향을 끼쳤다.

위해 필요한 수단들을 제공합니다.

2. 교회는 모든 통치 체제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부는 공동선을 지향해야 합니다. 절대주의, 전제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는 시민들의 선익에 상반됩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통치하는 이는 한 가정의 아버지처럼 사회의 아버지입니다. 특히 사회적 부담을 평등하게 분담하고, 균등하게 재화분배해야 합니다.

시민 모두는 다음의 의무가 있습니다.

-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을 때, 선량한 통치자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할 의무
- 공공 지출을 위한 납세 의무
- 국가의 안녕을 수호하며, 외부의 침략에서 영토를 지켜야 할 의무
- 법을 준수하고 시민들을 존중할 의무

BM1
210

동시에 모든 시민은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 법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모든 시도는 지적인 면, 경제적인 면, 도덕적인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재판의 공정한 집행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 안정적인 법규 안에서 평온한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통치자들, 경찰들, 군인들, 재판관들은 기여하는 바가 큼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법을 집행하고,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공공 직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예수님께서 당신과 베드로의 몫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과 같이 법을 준수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의무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은 사회적 관계, 상업적 관계, 노동자와 사업주들 사이의 사회적 공존 안에서 공동의 삶을 통해 겸손과 존중, 좋은 예시, 영적 자비와 곤궁한 이들을 위한 봉사를 실천합니다.

성찰 - 나는 선량한 시민인가? 나는 사회의 일원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결심 - 나는 어느 한 국가의 시민이다. 그래서 나는 국가의 법에 충실할 것이며, 형제들을 위한 형제가 되고자 한다.

기도 - 모든 이들과 모든 것의 주님, | 저의 조국을 축복해주소서. 선량한 통치자들, 충실한 시민들, 현명한 법, 내적 평화, 점진적인 복지를 허락해주소서. 훌륭한 제도들을 축복하시어 청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정치인들이 정직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사회제도들이 복음과 교회에 부합하게 하소서. 저를 현재의 조국에서 선량한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게 해주소서.

BM1
211

89.

영적 진보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필리 4,12-14)

1. 성인들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 매일 항구하게 정진할 줄 알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특별한 빛을 비추시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당신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을 따름으로써 자신에게 영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줄 알았습니다.

1) 하늘나라를 향하고, 주님과 영원히 일치하고자 하는 활기찬 갈망은, 일상의 의무들과 삶의 어려움을 기꺼이 수용하고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영혼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무리와 닮은, 이 땅에 천사들 무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지상생활은 천국의 수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²³⁶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초자연적 갈망을 마음에 지니며,

236. 알베리오네 신부의 강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상이다. “삶은 전부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수련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활기차고 충실하게 하느님 뜻에 맞추어 활동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2. 2) 지상 삶에 대해 보다 올바르게 깨어 있는 양심을 통해 영혼은 | 자유를 느끼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역경이 다가와도 멈춰 서지 않으며, 사소한 애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움푹달짝 못하게 만드는 텃이나 올라미에서 풀려난 새와 같이 자유롭습니다. 죄의 고통과 두려움은 한층 더 민감해지고 지엽적인 것이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갈망은 커져가고, 영혼들에 대한 사랑은 깊어집니다. 하느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은 새로운 빛으로 영혼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살며, 열망과 느낌을 함께 나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에 대해 점점 더 갈증을 느낍니다.

BM1
212

3) 육체적 힘이 약해지는 반면에 영적인 힘은 증가됩니다. 모든 위로와 만족에서 분리될지라도 알고 사랑하고자 하는 커다란 원의가 있습니다. 수고에 대한 참된 열정을 보여주는 활동들은 다 음과 같습니다. 잘 균형잡힌 신심 실천, 다정함, 영혼들을 위한 겸손하고 끊임없는 활동, 은총의 어머니이며 거룩함과 진리의 스승이신 교회에 대한 깊은 신심과 보다 명확한 이해입니다.

4) 영적 생활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악을 거슬러 싸울 줄 아는 저항능력은 우유부단함, 방탕, 좌절의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한 상황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합

는 이 땅에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을 미리 앞당겨 맞볼 수 있고, 저 위의 삶을 미리 앞당겨 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장차 누리게 될 것들을 앞당겨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스승예수 의제자수녀들에게」, 1959, 180)

니다.

성찰 - 나는 내 안에서 첫 번째 표지를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두 번째 표지? 세 번째? 네 번째?

결심 - 늘 성화되고자 애쓰신 영혼의 모범 성 바오로 사도를 본받을 것.

BM1
213

기도 - 주님, 제 안에 완덕에 대한 열망과 완덕의 결심을 심어주셨으니, 저를 나약함에서 구해주소서. 저는 아직도 얼마나 세속적이고 항구하지 못하며 냉혹한지 모릅니다! 오 나의 하느님, 은총을 더욱 많이 베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더욱 풍부히 베풀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성심을 통하여 당신께 비나이다.

90.

선교 사명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원로들에게 같은 원로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느님의 양 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1베드 5,1-4)

1.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²³⁷ Missus 또는 Messia,²³⁷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사도들을 파견하시면서, 가서 선교 사명을 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천상 스승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²³⁸

그러니까 선교 사명은 하느님에게서 파견받은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왕국, 교회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미신자들 사이에 구원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성무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을 지도하며, 회복시키고, 성화하는 일입니다.²³⁹ 아직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교화하고 그리스도교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2.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대한 아시아, | 오세아니아, 아프리카는 대다수가 이방인들, 이슬람교도들입니다. 모든 지역에 선교사들이 다소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와 미신, 미흡한 도덕관념, 우상숭배의 상황은 가엾기만 합니다.

BM1
214

예수님의 소망은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를 이루는 것입니다.²⁴⁰

237. “Missus”는 라틴어권에서는 ‘황제에게서 파견된 자’라는 의미가 있고, 한편 “Messia”는 유대어권에서 ‘축성받은 왕’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용어는 그리스도, 곧 그리스어 Χριστός(Christós)에서 유래되었다.

238. 요한 20,21; 마르 16,15.

239. 루카 1,79 참조.

240. 요한 10,16 참조.

영혼들에 대한 그분의 목마름은 무한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²⁴¹ 믿음의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난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보물을 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선교 사명을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관대한 정신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 포교 사업회, 아기 예수 포교 사업회, 토착 성직 선교회, 선교 단체들, 각종 선교사 성소 발굴 및 선교 아이디어 등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²⁴²

자신의 믿음을 사랑하고 의식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알리고자 하는 열정을 지니게 마련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열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적으로 민감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불행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느낍니다.

3. 선교 수단들은 기도와 활동입니다. 기도를 통한 선교, 천상 스승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²⁴³ 선교 사명과 선교사들을 위해 영성체를 하고, 목주기도를 바치며, 거룩한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조배를 행하십시오.

241. 1티모 2,4 참조.

242. 앞서 정의내린 것을 바탕으로 하여 뒷부분의 서술을 생략하는 구문이다. 예를 들면 “이러한 동기에서 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단체들이 탄생하였습니다. ...”

243. 마태 9,38; 루카 10,2.

활동을 통한 선교: 성소계발에 적극 참여하고, 성소자들의 양성에 힘쓰며,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하도록 하십시오.

성찰 - 나는 선교 사명을 느끼는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교 정신을 갖추고 있는가? 나는 선교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결심 - 선교 사명을 위해 몇 가지 기도문을 바치거나 또는 특별한 활동을 실천할 것.

기도 -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직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당신의 자비로운 눈길을 비추소서. 주님, 길 잃고 목자 없이 살아가는 이 거대한 양떼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성소자들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이들을 양성시켜주소서. 거룩하고 지혜로운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열정으로 불태우게 하소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참된 선교 의식을 심어주소서.

91.

신분상의 의무^{stato}²⁴⁴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

244. stato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신분이나 사회적 위치,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다. 오늘날에는 더 넓은 의미에서 직업에 따른 의무들을 뜻한다. 이탈리아어 professione는 직업을 의미하지만 서원(誓願)을 가리키기도 한다.

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에페 4,1-4)

1. 삶의 신분은 혼인 신분, 사제 신분, 수도자 신분이라는 주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 신분은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상과 아랫사람, 아버지와 어머니, 일반 사제와 본당 사제 등등. 그리고 자신의 신분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 학생, 청년 등등.

각자의 위치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삶의 개별적인 조건에서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4계명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제6계명도 미혼 여성figlia,²⁴⁵ 수녀, 기혼 여성, 과부, 독신녀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BM1 216 각 신분에는 위험, 은총, 수단, 의무,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2. 각 신분에서 성인Santi이 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주교 성인, 수도자 성인, 일반 가정의 아버지 성인, 어린이 성인, 청년 성인, 과부 성인, 사제 성인 등이 있습니다. 성덕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순수한 그분의 면전에 서있는 성인입니다. 각자 개별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신분과 조건, 직무상의 의무는 하느님의 뜻과 의지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어

245. 원문에 사용된 Figlia는 ‘딸’이라는 의미지만, 여기에서는 소녀, 젊은 여인들을 뜻한다.

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일반 가정의 어떤 어머니가 별 탈 없이 건강하고, 남편이 있으며, 꽤 착한 어린 자녀들이 있고, 가족 분위기는 제법 화목하며, 살고 있는 지역은 꽤나 그리스도교적인 마을이고, 적당히 젊은 연령층이며, 어느 정도 인생고를 겪어 본 사람이라고 칩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모든 사건에서 자신과 관련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압니다. 각자에게 하루 일과는 사소한 것들을 연결한 사슬이며, 순간적인 시간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시련과 힘겨움을 겪거나 또는 소소하게 보람있는 일들이 교차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성화시킬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은 불완전하고 실패한 인생, 그리고 또한 죄스러운 인생을 생각할 것입니다.

3. 신분상의 의무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필요하며, 대단히 유익합니다. 매일, 그리고 고백성사를 볼 때마다, 월피정 때마다, 영신수련을 할 때마다 신분상의 의무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 고유 의무와 성소, 직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 그리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기도하고, 필요한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BM1
217

성찰 - 나는 어떠한 신분에 있으며, 신분상의 의무들을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자주 점검하는가? 나는 기도하고, 성찰하며, 진보하고 있는가?

결심 - 인생의 종착점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하느님께서 원하

시는 것을 실천했다고 평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나 자신에게 자주 할 것.

기도 - 주님, 모든 이가 제각기 서로 다른 인생길과 직무, 그리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하늘의 당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시니, 저에게도 당신의 자비로운 눈길을 비추어주소서. 저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따르는 선량하고 온순한 자녀가 되게 해주소서. 그리하면 저는 매일 매순간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변덕스러움을 믿지 않을 것이며, 당신을 거슬러 반항하지 않고,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것에서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랑스런 성자를 닮게 해주소서.

92.

가톨릭 활동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으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그대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다른 이들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2티모 2,1-2)

1. 가톨릭 활동은 사제들의 사목 열의에 신자들이 참여하고 협조하는 것입니다.

사제는 신앙을 설교합니다. 선량한 그리스도인은 선교활동과 교리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회합을 지도하고 훈화하며, 가톨릭 출판과 라디오 방송, 선한 영화 제작에 참여합니다. | 호교론적

논쟁apologetica²⁴⁶에 참여하고, 교육과 그리스도교 문화, 선한 학교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에 참여하여 활동합니다.

사제는 영혼들을 돌보는데, 교황은 전 세계에서, 주교는 그의 교구에서, 본당사목자는 그의 본당에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제는 다른 형식tante²⁴⁷으로도 영혼들의 일에 동참합니다. 선량한 그리스도인은, 여성들과 청년들, 어린이들을 도우며, 좋은 풍습을 선도하고, 악을 거슬러 싸웁니다. 그리고 좋은 정부를 만들고, 국가 경영이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활동합니다. 모든 가톨릭적 기획에 호의적으로 참여합니다.

사제는 신앙의 관리자ministro이며 하느님 신비의 전달자²⁴⁸입니다. 선량한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일치를 북돋우며 사람들을 인도하여 성사와 전례에 참여케 하며, 교회와 신심 전파에 협력하고,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2. 모두가 형제들을 향한 자비의 의무가 있으며, 구원salvazione²⁴⁹ 활동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두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도직, 선한 표양의 사도직, 고통의 사도직, 활동의 사도직, 출판 사도직 등 어떠한 차원에서든 우리 고유의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우리의 잘못으로 잃어버리면 모두가

246. apologetica는 본래 호교론을 뜻하지만 하나의 유사점으로, 진리와 도덕적으로 건전한 원칙을 변호하는 토론을 의미한다

247. 원문에 사용된 tante라는 말이 forme를 의미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248. 1코린 4,1 참조.

249. salvazione(구제)는 salvazza(구원)을 뜻한다.

하느님의 문책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라도 성덕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모두가 하느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성 베드로에 의하면 우리는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²⁵⁰이라는 영예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톨릭 활동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언제나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 일종의 “임금의 사제단”에 속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황과 주교, 성직자에게 맡겨진 구원의 직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남녀 청년들, 노동자들, 농부들, 지식인들, 관료들과 주민들, 모든 이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협력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회를 승화시켜야 합니다.

3. 용기를 내어 온유하게 구세주의 모범을 본받아 삶에서, 가정에서, 본당에서, 사회에서 자신의 책임을 떠맡을 줄 아는 사람이 쌓는 공로는 큼니다.

기도, 선거 투표, 언어능력, 재산, 지식 등은 크게 유익한 재능이며, 하느님께 보고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애덕 실천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성찰 - 앞서 설명한 진리에 관한 나의 신념은 어떠한가? 나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하릴없이 슬퍼하기만 하는가? 나는 이웃을 위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결심 - 고해사제의 권고에 따라 실천적인 삶을 살도록 결심

250. 1베드 2,9.

할 것.

기도 -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께 청하오니 저희를 영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웅적으로 그리스도께 충실하며, 그분의 사제직에서 그리스도께 협력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이들 중에서 제자들을 뽑아 세우셨나이다. 교회와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 교회의 모든 계획을 따르며, 방황하는 이들을 동반하고자 하는 연민의 정을 지니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활동하게 하소서.

93.

출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 드리십시오.”(콜로 3,16)

1. 도서, 회보, 신문, 잡지, 화보집, 인쇄소, 출판사, 서점원, 신문판매원, 저술가, 인쇄공, 보급원은 흔히 말하는 ‘출판’의 범주에 속합니다.

출판은 진리와 선, 종교를 전파하는 사도직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와 과학, 예술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오류, 이단, 부패, 무질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위대한 발명품인 출판을 통하여 사람은 자신의 발언을 배가시키고 퍼트리며 모

든 이에게 도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럽게도 선을 가져오는 선한 이들보다, 악을 가져오는 악인들이 먼저 이러한 수단을 사용합니다.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독자들보다 나쁜 간행물을 읽는 독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2. 출판은 거대한 힘입니다.²⁵¹ 성경과 복음서, 하느님의 책들은 거듭 재판되었고, 발행부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책임입니다. 이처럼 교회 박사들과 교황들, 성인들, 가톨릭 저술가들의 저서들도 출판되고 보급되었습니다.

BM1
221 이들은 목자들의 설교집과 좋은 묵상집들²⁵²을 출판하였고, 그리스도교적 사상, | 도덕, 신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정반대로 All'incontro²⁵³ 수백만 부의 신문, 책, 잡지는 오류와 나쁜 관습, 미신을 퍼트렸습니다. 이것들은 선한 사회 체계를 무너뜨리고, 전쟁을 부추기며, 인간을 고통스럽게 착취하고, 교회와 성스러운 것들을 공격하며, 젊은이들을 부패시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바오로 서간을 통해 회심하였으나, 청년들의 순수한 영혼은 타락한 책과 신문을 통해 순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251. 이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성소와 사명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바오로가족의 창립 초기부터 그는 인쇄를 사도직으로 생각했고, 교황 비오 15세의 “가톨릭 신자에게 있어 인쇄는 사명입니다.”라는 말씀이 이를 확인해준다.(1961년 「성 바오로」지에서 인용) 1933년판 「출판 사도직」에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 묵상과 계속 이어지는 묵상들 안에서 이 주제 안에 폭넓게 머물렀으며, 1944년판 「출판 사도직」에서는 이를 보완하고 시대에 맞게 적용했으며, 2000년에는 이 시리즈를 재판집했다.

252. 이 책들이 출판되었음은 좋은 묵상집들임을 암시한다.

253. All'incontro는 al contrario(반대로)를 의미한다.

3. 출판에 관한 우리의 의무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가) 각종 나쁜 독서를 멀리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나쁜 출판에 협력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 에페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미신에 빠트리는 책들을 성 바오로는 광장에 가져오게 하여,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불태워버렸습니다.²⁵⁴

나) 양서를 읽고, 좋은 신문을 구독하며, 가능한 한 이러한 간행물 제작condizione²⁵⁵에도 기여하십시오. 복음과 성인들의 전기, 영성서적들에 대한 독서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다) 기도와 기부, 저술, 보급 등과 같은 인쇄 사도직을 가능한 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수행하십시오.

오늘날의 사람들은 과거보다 읽을거리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이에 대해 거듭 가르치고 있으며, 주교들과 사제들은 이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출판을 통해 저지른 죄악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 이 죄악은 대단히 위중하여 직접적으로 천상 스승을 거스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문을 일으킵니다.

BM1
222

성찰 - 나는 출판물에서 발생하는 선과 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독이 든 열매를 멀리하고 있는가? 나는 건강한 열매를 섭취하고 있는가? 나는 인쇄 사도직에 기여하고 있는가?

결심 - 영혼을 타락시키는 출판에는 건강한 출판으로 대항하라는 레오 13세 교황님의 말씀을 유념할 것.

254. 사도 19,19 참조.

255. condizione(건강, 신변 등의 상황, 상태)라는 말이 아마도 composizione(구성, 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다음 출판분에서는 pubblicazione(출판)으로 바뀌었다.

기도 - 오 주님, 생각을 널리 펼 수 있도록 탁월한 수단들을 인간에게 선물해 주셨으니, 오늘날의 사회에 당신의 자비로운 눈길을 보내주소서. 진리와 덕행, 교회가 얼마나 큰 위협을 받고 있는지 살펴주소서!

저술가와 노동자, 보급자들을 비추어주시고 성화시켜 주소서. 그리하여 영혼들이 온갖 위협과 파멸을 피할 수 있게 해주소서. 나아가 당신의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어, 어디서든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선한 출판의 사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내리시며, 그들을 위로하시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소서. “누구든지 잘 지키고 잘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²⁵⁶라고 하신 당신의 말씀을 기억주소서.

94.

영 화

“그분의 이름에 위엄을 드리고 그분을 찬미하며 그분께 감사하여라. 입술에 노래를 담고 수금을 타며 감사드릴 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위업은 너무나 훌륭하고, 그분의 모든 분부는 제때에 이루어지리라.’ … 모든 인간의 일은 다 그분 앞에 있고, 그분의 눈 앞에서 숨겨질 수 없다. 그분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내려다보시니, 그분 앞에는 도무지 신기한 것이 없다.”(집회 39,15-20)

1. 수많은 인간 발명품들이 선보다는 악의 도구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사실입니다. 출판, 영화, 라디오

256. 참조: 마태 5,19; 1티모 5,17.

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오 11세 교황은 영화에 관한 아주 훌륭한 회칙을 반포하여, 영화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유념케 하셨습니다.²⁵⁷ 그리고 비오 12세 교황은 영화 대표자들의 알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영화산업 운영자들이 가정에서나, 좀 더 넓은 도시 공동체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는 거대한 힘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눈과 귀는 인간 영혼을 직접 인도해 주는 넓은 도로입니다. 영화 스크린을 통해서 정신의 은밀한 구석까지 스며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젊은이들의 바탕이 성장하고, 성격을 결정짓는 활동 규범과 동기가 형성되고 단련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법을 사랑할 줄 아는 근면하고 유능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기쁨을 발견하고 건전한 만족과 위로를 얻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 바오로는 코린토인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고대 그리스 시인 메난드로 Menandro를 좋게 평가하였습니다. “나쁜 교제(나쁜 이야기)를 의미함)는 좋은 관습을 망칩니다.”(1코린 15,33)

꾸민 거짓 연기로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하느님의 법과 인간의 품위를 우스꽝스럽게 변질시킴으로써 얼마나 효과적으로 부패시켰는지 모릅니다. 또한 영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쁜 영혼이 … 사악한 목적을 위해 이 도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²⁵⁸

257. 비오 11세, 회칙 「주의 깊은 관심 *Vigilanti cura*」, 1936년 6월 29일.

258. 교황 비오 12세께서 헐리우드 영화 집행위원회 회원들에게 하신 말씀.(1945년 7월 14일)

BM1
224

2. 우리들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경하고 비도덕적인 영화 상영을 자제하며, 이러한 영화에 의존하는 이들을 멀리 떼어 놓는 일입니다. 모든 이를 위협에서 보호하고 ‘영화 관람 서약’²⁵⁹을 하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참되고 현대적인 사도직으로 생각하여 건전한 영화를 위해 기도하고, 건전한 영화를 제작하며 보급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수단입니다. 또한 각종 발명품과 가장 뛰어나고 효과적인 수단들은 하느님의 왕국을 위하여, 또 사람들의 구속과 구원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모두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나쁜 영화에는 좋은 영화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바쳐야 하는 엄중한 결산서입니다.

3. 비오 11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음란 서적과 영화에 대해 한층 더 세심하고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찰 - 나는 영화에 대해 건전한 양심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절제하고 극기해야 하는 나의 의무를 실천하고 있는가? 영화 사도직의 발전을 위해 나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있는가?

259. 이에 대해서 알베리오네 신부가 「출판 사도직 *L'Apostolato dell'Edizione*」에서 서술한 내용을 읽어보기 바란다. “올바른 영화 의식을 양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법 가운데, 여기에서 제시하는 바는 영화 관람에 관한 서약이다. 비오 11세도 「주의 깊은 관심 *Vigilanti cura*」 회칙에서 직접 권고하며 정확하게 표현했다. ‘영혼을 사목하는 모든 목자들은 매년 신자들이 그들의 미국 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교적 진리와 윤리에 어긋나는 영화 관람을 자제한다는 서약을 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결심 - “하느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모든 사도직의 스승이며 모델인 교회가 목소리를 내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합하고 다양하며 타당한 여러 사도직의 모습들을 지시할 것입니다.”라는 비오 11세의 말씀을 기억하겠다.

기도 - 오 천상 스승이시여, 영화 사도직을 위해 일하고 기도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소서. 불행한 많은 이들, | 맹목적인 수많은 제작자들과 보급자들, 부도덕한 영화 관람객들을 비추어 주시고, 회심의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과학은 당신의 것이으며, 피조물의 힘은 당신의 것이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소서! 오 주님, 어느 누구도 당신을 모욕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께서 인류를 위한 위대한 사랑으로 섭리하신 것을 변질시켜 타락과 해로움을 끼치지 못하게 해주소서.

BM1
225

95.

라디오

“좋은 것은 처음부터 선인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나쁜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사람이 사는 데 꼭 필요한 것은 물과 불과 쇠와 소금, 고운 밀가루와 우유와 꿀, 포도즙과 기름과 옷이다. 이 모든 것이 경건한 이들에게는 선이 되지만 죄인들에게는 악으로 변한다.”(집회 39,25-27)

1. 교황님은 바티칸에 인쇄소와 신문사 설립을 원했던 것처럼, 라디오 시설을 설치하여 모든 이들과 교류하기를 원하셨습

니다.²⁶⁰ 어떤 상황에서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교황님이 라디오를 통해 보편적인 파견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²⁶¹ 라디오는 진리와 거짓, 과학과 예술, 거룩한 것과 타락한 것을 전달합니다. 수많은 청취자들이 이야기들을 기계 장치들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라디오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은 가치로운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부도덕한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이야기는 좋은 관습을 망칩니다.”²⁶² 청취자는 귀와 기계 장치를 열어서 들을 수도 있고, 극기 정신을 발휘하여 귀와 기계 장치를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하는 뱀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영혼을 비추고 위로하는 예수님 대리자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2. 라디오는 선 또는 악의 거대한 힘입니다. 만일 성 바오로가 이 세상에 오신다면, 이것을 통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²⁶³ 라디오를 통하여 전례 거행을 청취하거나 음악을 청취할 수 있을

260. 바티칸 인쇄소는 1587년 4월 25일에 시스토 5세 교황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588년 1월 22일 전속 수도회에 위임하였다. 바티칸 라디오는 비오 11세 교황의 원의에 따라 굴리엘모 마르코니(Guglielmo Marconi)가 설립하였고, 1931년 2월 12일에 축성되었다.

261. 마르 16,15.

262. 그리스 시인 메난드로(Menandro)의 금언으로, 성 바오로는 1코린 15,33에서 이를 인용하였다.

263. “만일 성 바오로가 살아계시다면 하느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향하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는 열정이라는 두 개의 불꽃을 지닌 불길을 끊임없이 타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리가 더 널리 퍼져 나가도록 더 높은 단상에 올라갔을 것이고, 출판과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 시대적 진보가 가져온 수단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성 바오로」, 1954년 10월; 「복음을 위한 몸과 마음」, (서울-바오로딸), 79쪽 참조)

것입니다. 라디오의 위력은 주파수와 청취자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시민 국가들의 거의 모든 가정은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비오 12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발명품처럼 라디오는 선 또는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말을 퍼트리고, 단순한 사람과 정보 소외자를 교란시키며, 국가와 사람들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데 라디오가 사용되곤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선물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 라디오를 통하여 악이 퍼져나가는 것보다 선이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²⁶⁴

3. 라디오가 만들어내는 선과 악에 직면하는 모든 이들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죄를 범하게 만드는 나쁜 내용의 청취를 절대적으로 멀리해야 합니다. 라디오에 의존하는 이들이 청취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차라리 라디오를 없애버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2) 종교적이고 문화적이며,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방송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그리스도교적 정신을 강화하고, 인성을 함양하며,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3) 라디오가 참된 사도직이 되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좋은 방송을 널리 퍼트리며, 타락하고 저급한 방송은 하지 않음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교황님과 사제들, 건전한 정신을 갖춘 가톨릭 신자들은 주어진 여건에서 라디오를 활용하여 신자들이 좋은 결과를 많이 얻을 수 있게

264. RAI 라디오 방송국의 개인 인터뷰를 통해 말씀하신 비오 12세의 답화, 1944년 12월 3일.

하는 것입니다.

BM1
227
성찰 - 나는 라디오가 지닌 위험한 위력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위험한 것에 대해 극기하고 멀리하는가? 나는 이 사도직에 협력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올바르게 이용하고 있는가?

결심 - 인간은 모든 것을 남용할 수 있다. 모든 것 안에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라디오를 성화시키고 있는가? 나는 라디오를 성화와 향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가?

기도 - 오 주님, 당신은 지식의 주님이시고, 자연적 힘의 주님이시니, 이 모든 것을 축복하시어 선을 많이 창출하며 인류를 위해 봉사하게 해주소서. 당신은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십니다. 하늘과 땅, 자연의 힘, 오르간²⁶⁵이 당신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소서. 저희를 비추시고 인도하시어 모든 것이 저희를 자극하여 은혜로운 사랑에 응답하고, 마음 깊이 흠송하며, 온전히 봉사하고, 한층 더 진리와 선과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소서. 무한히 완전하신 당신을 하늘나라에서 관상할 때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대단할지 모릅니다! 오 주님, 수많은 위험에서 순결함을 지키게 하시고, 한층 더 열렬하게 최고선Sommo Bene이시고 영원한 행복Eterna Felicità이신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265. 본문의 gli organi(파이프 오르간)는 교회의 악기들을 가리킨다.

96.

현재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종을 들 것이다.”(루카 12,35-37)

1. 과거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결실이 없지만, 우리는 단지 현재를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최고의 가치를 지닙니다. 하느님께는 단 1분의 시간이라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른 쪽 강도는 | 지옥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소유하는 데에 한순간으로 충분했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²⁶⁶ 얼마나 많은 방랑자들이 고통과 사랑이 교차되는 마음으로 하느님 품안으로 뛰어들어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각 순간을 하늘나라를 위해 일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로로 보물과 같은 하느님과 천국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²⁶⁷

BM1
228

2. 현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1) 은총과 하느님의 친교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266. 루카 23,43.

267. 루카 12,33 참조.

않다면 얼른 참회하고 최대한 빨리 고백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곧 은총과 친교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²⁶⁸ 이 열매는 영원합니다.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느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죽을 죄에 이르게 됩니다. 비록 선행을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매순간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각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의 의무는 하느님께서 뜻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좋아해야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서 기꺼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눈에 거의 쓸모가 없어 보더라도 주님을 위해 올바른 지향을 가지고 행하는 것들은 모두 귀중한 보물입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귀중하게 만듭니다.

3) 활동을 잘 해야 합니다. 활동을 잘 시작하고, 계속 잘 이어 나가며,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²⁶⁹ 모든 것을 하느님의 눈길 아래서, 성모 마리아의 눈길 아래서, 단순한 마음으로, 섬세하게,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3. 현재의 시간을, 하느님을 모욕하거나 또는 하느님을 사랑하

268. 요한 15,5 참조.

269. DF, 47-48항 참조: “네 번째 조건 (하느님의 활동을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활동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하고, 계속하며,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모든 것을 봉헌하며, 하느님의 손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제대로, 기꺼이, 곧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계속해야 하나? 하느님의 눈길 아래서, 관대한 마음으로 실행하며, 항구하게 열의를 가지고 계속해야 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나? 겸손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 BM1
삶은 마치 가는 실로 짠 직물처럼 순간들로 엮어져 있습니다. 인 229
간 —인류 과학에 대해 무지한 이들이나 교육받은 이들이나 그
누구든— 의 모든 지혜는 삶을 잘 활용하는 데 있거나, 삶의 매
순간을 아주 잘 활용하는 데에서 생겨납니다.

성찰 - 나는 앞서 설명한 진리에 대해 신뢰하는가? 나는 (그 진리를)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매순간 활동하고 있는가? 올바른 지향을 가지고 활동하는가? 나는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결심 - 나는, 나의 짧은 인생이 다할 때까지, 상급의 시간이 빨리 오기를 갈망하면서, 매순간 하느님의 눈길 아래 걸어가도록 한다.

기도 - 오 주님, 당신은 제게 아주 많은 자비를 베풀어주셨 나이다. 오 성모 마리아님, 당신의 거룩한 손을 제 머리 위에 얹 어주소서. 늘 당신의 빛을 비추어주시고, 늘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주시며, 늘 당신의 축복을 베풀어주소서. 그리하여 제가 매 순간 보물을 쌓고, 계속해서 제 화관을 더 많은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미며, 매순간 관대한 마음으로 활동하게 하시어, 어느 날 제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게 됨을 깨닫게 해주소서.

발행일 | 2024년 3월 25일

옮긴이 | 백기태

펴낸곳 | 성바오로